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윤 경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젠더리스 패션 표현 특성에 따른
색채 이미지 스케일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최 지 은

젠더리스 패션 표현 특성에 따른
색채 이미지 스케일

문 윤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최 지 은

인 준 서

최지은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0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Z세대의 등장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시대적 변화의 욕구를 나타내며 다름에 대한 수용력과 타인에 대한 인정으로 개인의 다양성을 증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이나 획일화된 규범을 거부하여 젠더의 사회적 경계를 허무는 것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흐름을 바탕으로 젠더의 탈 장르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패션 영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젠더리스의 디자인적 요인 분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리스 패션 디자인의 요인을 분석하여 다채롭고 경계가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중성 이미지의 범주를 객관화하는 것에 있다. 젠더리스 표현 특성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패션 디자인 연구의 접근 범위를 확장하고 색채 이미지를 객관화하여 중성 이미지의 분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 방법과 색채 이미지 분석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문헌 고찰은 선행연구와 국내외 단행본, 정기 간행물,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여 패션의 역사에서 나타난 중성 이미지의 색채를 파악하고 젠더리스 표현 특성 유형화에 적용되었다. 이는 젠더리스의 색채를 도출하기 위한 실증연구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둘째, 색채이미지 분석법은 컬렉션 분석, 색채분석 프로그램 분석으로 진행되었다. 2011년 S/S 컬렉션부터 2020년 F/W 컬렉션까지 총 20시즌 컬렉션을 분석하여 120개의 컬렉션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국표준색 색채분석 프로그램(KSCA)을 활용하여 젠더리스 표현 특성별 480가지의 색채를 도출하였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중성 이미지의 색채와 대조하여 패션에서 나타난 중성 색채 이미지의 범주와 영역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리스 표현 특성은 절충성, 양성성, 유희성, 관능성, 과장성, 역사성

과 같이 총 6가지로 분류되었다. 절충성은 상반된 이미지의 아이টে를 코디네이션한 두 영역의 교류로 결합과 대조를 통한 병치에서 오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정의됐다. 양성성은 젠더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의 구분 자체를 초월한 것으로 양성의 융합을 통하여 나타난 제 3의 성적 디자인을 의미했으며, 유희성은 편(fun) 요소를 본질로 삼는 반고전주의적 경향을 나타냄과 동시에 성 역할에서의 해방과 일탈의 쾌감, 자유의 감정, 유희 충동의 발산을 나타냈다. 관능성은 나르시즘에 의해 성적 대상화된 에로티시즘 이미지와 성적 주체로서 자유로우며 독립적인 강인한 여성의 인체 이미지를 나타냈고 과장성은 확장과 축소, 변형을 통해 신체를 왜곡하여 실제보다 지나치게 표현하여 형상을 주관적이고 창조적으로 재형성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역사성은 복고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과거의 흔적을 새로운 현대적 가치와 융합한 디자인을 패션에 응용하여 재현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창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젠더리스 표현 특성별로 나타난 색채 분석 내용을 보면, 젠더리스의 절충성에 나타난 색채는 저명도의 저채도를 띤 다크 톤의 퍼플블루(PB)와 고명도와 저채도의 그레이시 톤의 퍼플블루(PB)로 나타났고 색채 이미지는 ‘모던한’, ‘화려한’, ‘은은한’, ‘우아한’, ‘내추럴한’, ‘점잖은’ 영역에서 발생되었으며 상반된 이미지의 절충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졌다. 절충성과 유사한 중성 이미지는 매니시, 밀리터리, 크로스섹슈얼, 이모보이 이미지로 도출되었다.

젠더리스의 양성성은 무채색(N)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남녀의 공존과 모호성을 표출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난색 계열에서는 베이지와 브라운의 차분한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며 한색인 퍼플블루(PB), 퍼플(P), 블루(B)에서는 남성성이 가미된 양성성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색채 이미지는 ‘모던한’, ‘점잖은’, ‘은은한’이 도출되었으며 양성성과 유사한 중성 이미지로는 밀리터리, 히피, 앤드로지너스 이미지로 분석되었다.

젠더리스 유희성은 저명도, 저채도의 다크 톤과 중명도 고채도의 스트롱 톤

으로 나타나 색상의 울동감이 큰 편으로 보여졌다. 색채 이미지는 ‘모던함’, ‘은은한’, ‘경쾌한’, ‘온화한’, ‘화려한’으로 이미지 스케일에서 색채의 범주가 고르게 분포되어 개성이 뚜렷한 표현 특성으로 해석되어졌다. 유사한 중성 이미지로는 보이시, 히피, 유니섹스, 핑크, 메트로섹슈얼, 콘트라섹슈얼, 엠니스로 분석되었다.

젠더리스의 관능성에 나타난 색채는 무채색(N)과 워 톤 계열의 색채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나 피부가 그대로 노출되는 소재를 활용한 의상의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색채 이미지는 ‘모던한’, ‘우아한’, ‘은은한’, ‘내추럴한’으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중성 이미지로는 매니시, 앤드로지너스 이미지로 분석되어 섹스 어필보다는 여성을 독립적인 성적 주체로서 인식하여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젠더리스의 과장성에 나타난 색채는 채도가 낮은 베이스 컬러에 증명도와 중·고채도의 레드(R), 퍼플블루(PB), 레드퍼플(RP)을 사용하여 의상의 형상을 극대화하고 과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색채 이미지는 ‘모던한’, ‘고상한’, ‘은은한’의 영역에서 발생하여 과장성으로 인한 동적 색채가 두드러짐과 동시에 반대로 은은한 영역의 분포를 띠어 과장된 형태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중성 이미지로는 보이시, 유니섹스, 핑크, 메트로섹슈얼, 콘트라섹슈얼, 이모보이, 엠니스 이미지로 도출되었다.

젠더리스의 역사성은 스트롱한 톤의 골드 컬러로 고풍스럽고 중후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이외의 난색 컬러들은 과거지향적이며 차분하고 격식이 있는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한색의 색채는 보색대비를 통하여 난색의 채도를 높여 온도감의 상승과 역사성의 미적 효과를 강조하였으며 색채 이미지로는 딱딱하고 정적이며 부드러운 영역에 해당되는 ‘점잖은’, ‘모던한’, ‘은은한’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중성 이미지는 매니시 이미지로 분석되었다.

셋째, 젠더리스를 나타내는 상징적 대표 색채를 추출했으며 그에 따른 색채

이미지 분포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는 젠더리스 패션 표현 특성별 색채 이미지 스케일로 젠더리스 디자인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젠더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젠더 뉴트럴 시대에 젠더리스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색채 이미지 스케일을 제안하여 디자인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 지속적인 젠더리스의 패션 디자인의 분석을 통해 중성색의 이론적 토대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 |
| 2. 연구 방법 | 4 |
| 1) 연구 방법 및 범위 | 4 |
| 2) 용어의 정의 | 5 |
| (1) 중성 | 5 |
| (2) 젠더리스 | 6 |
| (3) 섹채 이미지 스케일 | 6 |
| II. 이론적 배경 | 7 |
| 1. 젠더 패션의 변천 | 7 |
| 1) 20세기 전반 | 7 |
| 2) 20세기 후반 | 12 |
| 3) 21세기 전반 | 16 |
| 2. 중성 이미지 섹채 | 19 |
| 1) 중성 이미지 유형화 | 19 |
| 2) 중성 이미지 유형의 조형적 형태와 섹채 | 20 |
| 3. 젠더리스 패션의 표현 특성 | 29 |
| 4. I.R.I 이미지 스케일 | 35 |
| III. 젠더리스 패션 표현 특성과 섹채 분석 | 38 |
| 1. 절충성 | 39 |
| 1) 표현 특성 | 39 |

| | |
|---|------------|
| 2) 색채 | 41 |
| 2. 양성성 | 50 |
| 1) 표현 특성 | 50 |
| 2) 색채 | 52 |
| 3. 유희성 | 60 |
| 1) 표현 특성 | 60 |
| 2) 색채 | 61 |
| 4. 관능성 | 70 |
| 1) 표현 특성 | 70 |
| 2) 색채 | 72 |
| 5. 과장성 | 80 |
| 1) 표현 특성 | 80 |
| 2) 색채 | 82 |
| 6. 역사성 | 91 |
| 1) 표현 특성 | 91 |
| 2) 색채 | 93 |
| | |
| IV. 젠더리스 패션 표현 특성에 따른 색채 이미지 스케일 | 101 |
| 1. 상징적 대표 색채 추출 | 101 |
| 2. 색채 이미지 분포 | 107 |
| 3. 젠더리스 패션 표현 특성별 색채 이미지 스케일 | 115 |
| | |
| V. 결론 | 123 |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 | |
|--|----|
| <표 1> 중성 이미지 유형화 | 20 |
| <표 2> 중성 이미지 유형의 조형적 형태와 색채 | 28 |
| <표 3> 젠더리스 패션 디자인 표현 특성 선행연구 | 34 |
| <표 4> 젠더리스 표현 특성 | 38 |
| <표 5> Maison Martin Margiela 2011 S/S 추출색상표 | 42 |
| <표 6> Maison Martin Margiela 2011 S/S 추출색상분포 | 42 |
| <표 7> Chanel 2011 F/W 추출색상표 | 43 |
| <표 8> Chanel 2011 F/W추출색상분포 | 43 |
| <표 9> Paul Smith 2014 F/W 추출색상표 | 44 |
| <표 10> Paul Smith 2014 F/W 추출색상분포 | 44 |
| <표 11> Tommy Hilfiger 2014 S/S 추출색상표 | 45 |
| <표 12> Tommy Hilfiger 2014 S/S 추출색상분포 | 45 |
| <표 13> 젠더리스 절충성에 나타난 구조색 팔레트 | 47 |
| <표 14> 절충성의 색상 빈도 분포 | 48 |
| <표 15> 절충성의 색조 빈도 분포 | 49 |
| <표 16> Moschino 2011 F/W 추출색상표 | 53 |
| <표 17> Moschino 2011 F/W 추출색상분포 | 53 |
| <표 18> Hermès 2012 F/W 추출색상표 | 54 |
| <표 19> Hermès 2012 F/W추출색상분포 | 54 |
| <표 20> Christopher Kane 2014 S/S 추출색상표 | 55 |
| <표 21> Christopher Kane 2014 S/S 추출색상분포 | 55 |
| <표 22> Vallentino 2015 F/W 추출색상표 | 56 |
| <표 23> Vallentino 2015 F/W 추출색상분포 | 56 |

| | |
|---|----|
| <표 24> 젠더리스 양성성에 나타난 주조색 팔레트 | 57 |
| <표 25> 양성성의 색상 빈도 분포 | 58 |
| <표 26> 양성성의 색조 빈도 분포 | 59 |
| <표 27> Comme des Garçons 2011 F/W 추출색상표 | 62 |
| <표 28> Comme des Garçons 2011 F/W 추출색상분포 | 62 |
| <표 29> Maison Martin Margiela 2014 S/S 추출색상표 | 63 |
| <표 30> Maison Martin Margiela 2014 S/S 추출색상분포 | 63 |
| <표 31> Jacquemus 2015 F/W 추출색상표 | 64 |
| <표 32> Jacquemus 2015 F/W 추출색상분포 | 64 |
| <표 33> Undercover 2016 S/S 추출색상표 | 65 |
| <표 34> Undercover 2016 S/S 추출색상분포 | 65 |
| <표 35> 젠더리스 유희성에 나타난 주조색 팔레트 | 67 |
| <표 36> 유희성의 색상 빈도 분포 | 68 |
| <표 37> 유희성의 색조 빈도 분포 | 69 |
| <표 38> Hermès 2011 S/S 추출색상표 | 72 |
| <표 39> Hermès 2011 S/S추출색상분포 | 73 |
| <표 40> Jean Paul Gaultier 2012 S/S추출색상표 | 73 |
| <표 41> Jean Paul Gaultier 2012 S/S 추출색상분포 | 74 |
| <표 42> Lacoste 2014 S/S 추출색상표 | 75 |
| <표 43> Lacoste 2014 S/S 추출색상분포 | 75 |
| <표 44> Salvatore Ferragamo 2014 S/S 추출색상표 | 76 |
| <표 45> Salvatore Ferragamo 2014 S/S 추출색상분포 | 76 |
| <표 46> 젠더리스 관능성에 나타난 주조색 팔레트 | 77 |
| <표 47> 관능성의 색상 빈도 분포 | 78 |
| <표 48> 관능성의 색조 빈도 분포 | 79 |

| | |
|---|-----|
| <표 49> Maison Martin Margiela 2011 S/S 추출색상표 | 83 |
| <표 50> Maison Martin Margiela 2011 S/S 추출색상분포 | 83 |
| <표 51> Issey Miyake 2011 F/W 추출색상표 | 84 |
| <표 52> Issey Miyake 2011 F/W 추출색상분포 | 84 |
| <표 53> Thom Browne 2012 S/S 추출색상표 | 85 |
| <표 54> Thom Browne 2012 S/S 추출색상분포 | 85 |
| <표 55> Comme des Garçons 2014 F/W 추출색상표 | 86 |
| <표 56> Comme des Garçons 2014 F/W 추출색상분포 | 86 |
| <표 57> 젠더리스 과장성에 나타난 구조색 팔레트 | 88 |
| <표 58> 과장성의 색상 빈도 분포 | 89 |
| <표 59> 과장성의 색조 빈도 분포 | 90 |
| <표 60> Moschino 2012 F/W 추출색상표 | 93 |
| <표 61> Moschino 2012 F/W추출색상분포 | 94 |
| <표 62> Moschino 2013 F/W추출색상표 | 94 |
| <표 63> Moschino 2013 F/W 추출색상분포 | 95 |
| <표 64> Ralph Lauren 2016 F/W 추출색상표 | 95 |
| <표 65> Ralph Lauren 2016 F/W 추출색상분포 | 96 |
| <표 66> Gucci 2017 F/W 추출색상표 | 97 |
| <표 67> Gucci 2017 F/W 추출색상분포 | 97 |
| <표 68> 젠더리스 역사성에 나타난 구조색 팔레트 | 98 |
| <표 69> 역사성의 색상 빈도 분포 | 99 |
| <표 70> 역사성의 색조 빈도 분포 | 100 |
| <표 71> 젠더리스 절충성의 기준색 | 102 |
| <표 72> 젠더리스 양성성의 기준색 | 103 |
| <표 73> 젠더리스 유희성의 기준색 | 104 |

| | |
|----------------------------|-----|
| <표 74> 젠더리스 관능성의 기준색 | 105 |
| <표 75> 젠더리스 과장성의 기준색 | 105 |
| <표 76> 젠더리스 역사성의 기준색 | 106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1> 호블 스타일 | 9 |
| <그림 2> 크라바트 | 9 |
| <그림 3> 디렉투아르 스타일 | 9 |
| <그림 4> 군복에서 영향을 받은 의상 | 9 |
| <그림 5> 보이시 이미지 | 9 |
| <그림 6> 보브 커트 | 9 |
| <그림 7> 클로세 | 10 |
| <그림 8> 트레저 수트 | 10 |
| <그림 9> 밀리터리 룩 | 11 |
| <그림 10> 유틸리티 룩 | 11 |
| <그림 11> 볼드 룩 | 11 |
| <그림 12> 크리스찬 디올 H-라인 | 11 |
| <그림 13> 히피 룩 | 13 |
| <그림 14> 유니섹스 룩 | 13 |
| <그림 15> 르 스모키 룩 | 15 |
| <그림 16> 핑크 룩 | 15 |
| <그림 17> 앤드로지너스 룩 | 16 |
| <그림 18> 포스트모더니즘 패션 | 16 |
| <그림 19> 젠더리스 룩 | 16 |
| <그림 20> 메트로섹슈얼 | 16 |
| <그림 21> 보이시 색채 이미지 분포 | 21 |
| <그림 22> 매니시 색채 이미지 분포 | 21 |

| | |
|---|----|
| <그림 23> 밀리터리 색채 이미지 분포 | 22 |
| <그림 24> 히피 색채 이미지 분포 | 22 |
| <그림 25> 유니섹스 색채 이미지 분포 | 23 |
| <그림 26> 핑크 색채 이미지 분포 | 23 |
| <그림 27> 앤드로지너스 색채 이미지 분포 | 24 |
| <그림 28> 젠더리스 색채 이미지 분포 | 24 |
| <그림 29> 메트로섹슈얼 색채 이미지 분포 | 25 |
| <그림 30> 콘트라섹슈얼 색채 이미지 분포 | 25 |
| <그림 31> 크로스섹슈얼 색채 이미지 분포 | 26 |
| <그림 32> 이모보이 색채 이미지 분포 | 26 |
| <그림 33> 엠니스 색채 이미지 분포 | 27 |
| <그림 34>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 36 |
| <그림 35>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 | 37 |
| <그림 36>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 | 37 |
| <그림 37> Maison Martin Margiela 2011 S/S | 41 |
| <그림 38> Chanel 2011 F/W | 41 |
| <그림 39> Paul Smith 2014 F/W | 41 |
| <그림 40> Tommy Hilfiger 2014 S/S | 41 |
| <그림 41> Moschino 2011 F/W | 52 |
| <그림 42> Hermè 2014 F/W | 52 |
| <그림 43> Christopher Kane 2014 S/S | 52 |
| <그림 44> Vallentino 2015 F/W | 52 |
| <그림 45> Comme des Garçons 2011 F/W | 61 |
| <그림 46> Maison Martin Margiela 2014 S/S | 61 |
| <그림 47> Jacquemus 2015 F/W | 61 |

| | |
|---|-----|
| <그림 48> Undercover 2016 S/S | 61 |
| <그림 49> Hermès 2011 S/S | 71 |
| <그림 50> Jean Paul Gaultier 2012 S/S | 71 |
| <그림 51> Lacoste 2014 S/S | 71 |
| <그림 52> Salvatore Ferragamo 2014 S/S | 71 |
| <그림 53> Maison Martin Margiela 2011 S/S | 82 |
| <그림 54> Issey Miyake 2011 F/W | 82 |
| <그림 55> Thom Browne 2012 S/S | 82 |
| <그림 56> Comme des Garçons 2014 F/W | 82 |
| <그림 57> Moschino 2012 F/W | 92 |
| <그림 58> Moschino 2013 F/W | 92 |
| <그림 59> Ralph Lauren 2016 F/W | 92 |
| <그림 60> Gucci 2017 F/W | 92 |
| <그림 61> 절충성의 색채 이미지 분포 | 107 |
| <그림 62> 절충성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 | 107 |
| <그림 63> 양성성의 색채 이미지 분포 | 108 |
| <그림 64> 양성성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 | 108 |
| <그림 65> 유희성의 색채 이미지 분포 | 109 |
| <그림 66> 유희성 색채 이미지 스케일 | 109 |
| <그림 67> 관능성의 색채 이미지 분포 | 110 |
| <그림 68> 관능성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 | 110 |
| <그림 69> 과장성의 색채 이미지 분포 | 111 |
| <그림 70> 과장성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 | 111 |
| <그림 71> 역사성의 색채 이미지 분포 | 113 |
| <그림 72> 역사성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 | 113 |

| | |
|--|-----|
| <그림 73> 젠더리스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 | 114 |
| <그림 74> 젠더리스 이미지스케일이 적용된 보이시 이미지 범주 | 116 |
| <그림 75> 젠더리스 이미지스케일이 적용된 매니시 이미지 범주 | 116 |
| <그림 76> 젠더리스 이미지스케일이 적용된 밀리터리 이미지 범주 | 117 |
| <그림 77> 젠더리스 이미지스케일이 적용된 히피 이미지 범주 | 117 |
| <그림 78> 젠더리스 이미지스케일이 적용된 유니섹스 이미지 범주 | 118 |
| <그림 79> 젠더리스 이미지스케일이 적용된 핑크 이미지 범주 | 118 |
| <그림 80> 젠더리스 이미지스케일이 적용된 앤드로지너스 이미지 범주 ... | 119 |
| <그림 81> 젠더리스 이미지스케일이 적용된 메트로섹슈얼 이미지 범주 ... | 119 |
| <그림 82> 젠더리스 이미지스케일이 적용된 콘트라섹슈얼 이미지 범주 ... | 121 |
| <그림 83> 젠더리스 이미지스케일이 적용된 크로스섹슈얼 이미지 범주 ... | 121 |
| <그림 84> 젠더리스 이미지스케일이 적용된 이모보이 이미지 범주 | 122 |
| <그림 85> 젠더리스 이미지스케일이 적용된 엠니스 이미지 범주 | 122 |

I.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젠더(gender)는 성(性)을 뜻하는 용어로서 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개개인의 선택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된 사회적인 성을 의미하며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의 개념을 초월한 성 정체성을 총칭한다. 나아가 젠더리스(genderless), 젠더 뉴트럴(gender neutral), 젠더 플루이드(gender-fluid), 시스 젠더(cisgender), 트라이 젠더(trigender) 등과 같은 제 3의 성적 용어로 파생되고 있다¹⁾. 이에 영향을 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구조주의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시작으로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의 구분을 와해시키는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예술 전반에 걸친 개방성, 해체, 반항과 같은 불확정적인 이론과 함께 전통적 형이상학 체계인 진리, 주체, 초월적 이성을 거부하고 규범에 도전하여 엘리트 주의, 남성 우월주의를 부정한다. 이와 같은 포스트모던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예술의 한계를 넘은 장르의 혼합적 양상을 띠고 새로운 재현을 추구하며 기존의 획일화된 사고에서 벗어나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담은 개성을 표출한다²⁾. 이러한 현상은 성 역할에도 영향을 미쳐 성의 경계를 급진적으로 허물고 있으며 특정 성의 규범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탈장르화의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변화는 성의 구분이 일상적이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 역할에 따른 전통적 교복 양식을 고수해 온 일본 경우 성별과 관계없이 여학생에게 교복 바지를 허용했으며³⁾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한국 브랜드인 스킨룩스에서

1) 박현정(2018).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예술의 메시지를 반영한 패션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10.

2) 김미희(2015).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본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10.

도 여학생을 위한 바지 교복을 출시하여 젠더리스 학생복을 생산하고 있다.

성의 구분이 없는 중성 향수들의 인기 상승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되는 현상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2010년도의 중성 향수의 비율은 17%에 불과했으나 2018년도의 경우 51%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구찌의 ‘메모아 뉘 오더’(Mémoire d’une odeur)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미네랄 아로마틱 계열의 향을 만들었으며 바이레도(Byredo)의 ‘슬로우 댄스’와 제인 팩커(Jane Packer)의 뉴트럴 라인 향수 역시 양성의 균형에 초점을 둔 젠더리스 향을 출시했다⁴⁾.

젠더 뉴트럴 메이크업 브랜드 ‘라카(Laka)’는 12가지 색상의 남녀공용 립스틱을 개발하여 론칭한 후 2개월 동안 남성 구매자가 전체 매출의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글로벌 저그너트(Global juggernauts) 브랜드인 H&M과 ZARA도 데님 유나이티드 라인(United line)과 언젠더드(Ungendered) 컬렉션을 통해 성의 경계를 허문 다양한 젠더리스 패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⁶⁾.

아울러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 불리는 Z세대의 등장은 다름에 대한 수용력과 개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세대로 젠더리스의 시대적 성향과 유사한 사고 체계를 형성하며 젠더리스 패션의 소비를 이끄는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젠더리스 트렌드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남성과 여성, 제 3의 성까지 포용함과 동시에 다양한 젠더를 위한 디자인 사조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젠더리스는 패션 디자인 영역에서 중성의 핵심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지만 기존의 이분법적인 젠더의 경계를 허물 뿐 그에 따라 파생된 다양한 중성 형용사 이미지들의 분류 및 범주화는 매우 모호한 실정이다.

3) “日 도쿄 지자체 2곳, 여중생에 '젠더리스 바지교복' 허용”, <매일경제>, 2019.01.03.,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1/65266/>>, (접속일:2020.06.20)

4) “향에는 성별이 없다. 젠더리스 향수 인기”, <중앙일보>, 2020.02.26., <<https://news.joins.com/article/23704129>>, (접속일: 2020.06.20)

5) “향수, 화장품도 남녀 공용으로. 뷰티업계 젠더리스 제품 각광”, <아시아투데이>, 2018.08.02.,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801010000244>>, (접속일: 2020.06.20.)

6) ANYANWU, OBI. “Decoding Genderless Fashion”, WWD, 2020.01.08., (접속일:2020.11.24)

최근까지 진행된 젠더리스 뷰티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의 구분을 나누어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패션에서 나타난 표현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되거나(김지혜,2016; 안광숙,2018)⁷⁾⁸⁾ 특정의 철학적인 관점에서 젠더리스 스타일을 분석해왔다(박성욱,2019; 정수진 외 2인,2018)⁹⁾¹⁰⁾. 또한 젠더리스 스타일을 제품 디자인 개발에 응용한 연구를 하였거나(이현종,2019; 이승연;2019)¹¹⁾¹²⁾ 해외 학술 논문의 경우는 패션 마케팅에서의 젠더리스의 활용 가치에 대해 진행하였다(Luna, Camilla Pinto,2019; Oetojo, J. O,2016)¹³⁾¹⁴⁾.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을 분석하거나 그것을 활용한 특정 제품의 개발, 또는 패션 마케팅에서의 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를 바탕으로 중성 형용사 이미지의 영역과 범주에 관한 명확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젠더리스 패션 디자인의 접근 범위를 확장하고 구분이 모호한 중성 형용사 이미지를 분류하여 재배치하고자 한다. 이는 패션 디자인의 실용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디자인 발상 및 색채 이미지의 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7) 김지혜(2016).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의 표현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안광숙(2018).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표현된 젠더리스 특성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9(4).

9) 박성욱(2019). “퍼스 기호학 관점에서의 현대 젠더리스 패션 스타일 표현특성 연구”,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정수진(2018) 외 2인.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으로 본 남성복의 젠더리스 스타일”, 한국의류학회, 42(4).

11) 이현종(2019). “젠더리스 스타일을 응용한 Z세대 메이크업 디자인 제품이미지 개발 연구”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이승연(2018). “문화현상에 따른 화장품 브랜드 패키지디자인 제안”,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Luna, Camilla Pinto(2019), “Genderless Fashion: A (Still) Binary Market“, Latin American Business Review, Vol. 20 Issue 3, 20(3).

14) Oetojo, J. O(2016). Consumer Perception on Gender Equality and Designer Performance for Genderless Fashion Brands“ Pertanika Journal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24(-).

2. 연구방법

1)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색채 이미지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문헌고찰은 시대에 따른 중성 패션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조형적 형태 및 색채를 파악하여 중성 이미지를 유형화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어서 젠더리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위주로 젠더리스 패션 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분석하여 중성 이미지 범주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색채의 기준점을 설정하였다.

색채 이미지 분석법은 1,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차 분석은 젠더리스 컬렉션 이미지를 패션쇼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보그 공식 홈페이지(<http://www.vogue.co.kr/>)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분석 자료의 선정 이유는 선진의 21개국에서 발행되는 120여년의 전통을 지닌 가장 권위 있는 패션 매거진은 물론 1996년 창간 이래로 웹과 모바일, 그리고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프린트 매거진을 통해 컬렉션을 가장 정확하게 업로드하는 패션 매거진이기 때문이다. 분석 자료의 수집 범위는 2011년 S/S 부터 2020년 F/W 시즌에 발표된 컬렉션에서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이 나타난 800점의 의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젠더리스 표현 특성 별 색채 분석을 위하여 의류학과 교수 2인 및 뷰티디자인학과 메이크업 전공 교수 2인, 패션 유통업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실무진 1인을 포함한 총 5인의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논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에 따른 색채를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 표현 특성별로 20개의 의상을 선별하였으며 총 120개의 젠더리스 의상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한국 표준색 색채분석 프로그램(KSCA)을 사용하여 80가지의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별 주조색을 추출하여 총 480개의 젠더리스 색채를 도출하였다.

2차적 분석은 젠더리스의 색채를 함축하여 표현 특성별 기준색을 재추출하고 I.R.I 컬러 플래닝 프로세스에 대입하여 젠더리스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을 제작하였다. 이것을 기준으로 중성 이미지 유형의 색채를 대입하여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에 따른 중성 색채 이미지의 범주와 영역을 파악하였다.

2) 용어의 정의

(1) 중성

중성의 사전적 정의는 서로 반대되는 두 성질의 어느 쪽도 아닌 중간적 성질, 또는 생물의 개체에 암수 두 가지의 형질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¹⁵⁾.

중성에 관한 디자인적 견해를 살펴보면 김누리, 박영경(2017)¹⁶⁾은 중성색에 관한 연구에서 중성을 사회 문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는 심리적 양성성을 포용한 개념으로 보았으며 남녀 모두의 특징을 함께 지닌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Jung, Karl G.(1964)¹⁷⁾는 인간의 내면에는 여성의 마음속에 있는 남성성의 아니무스(Animus)와 남성의 마음속에 있는 여성성의 아니마(Anima)가 공존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중성의 포괄적인 개념은 성의 이분법적 분류를 거부한 양성성의 기질을 동시에 내포하는 것이다.

15) 중성, Naver어학사전. (검색일: 2020.12.10)

16) 김누리, 박영경(2017). 성별과 연령에 따른 연상 대상별 중성색으로의 인식 차이,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61(-), p.130.

17) Jung, Karl G.(1964). Man and his symbols. 이윤기 역, 열린책들, p.250.

(2) 젠더리스

젠더리스는 1990년대에 국제적으로 성별을 지칭하는 젠더에서 파생된 용어으로써 성과 나이의 파괴를 주 특성으로 하는 패션의 새로운 경향이며 남성성과 여성성을 융합하여 하나로 통합시켜 성의 개념을 초월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성과 젠더리스의 범위를 살펴보았을 때 중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젠더리스는 양성의 융합적 시도를 담아, 보다 발전된 디자인 양상을 띤 성적 개념을 탈피한 용어으로써 21세기 현 시대의 성 인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아우르는 중성의 개념에서 성적 융합을 통해 발전된 제 3의 성을 지칭하는 용어인 젠더리스를 기준으로 다양한 중성의 이미지의 영역과 범주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색채 이미지 스케일

색채 이미지 스케일은 색과 언어의 관계를 상반된 두 개의 축으로 구성하여 형용사적 이미지를 색 공간을 통하여 나타낸다. 또한 색상과 색조의 조합으로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색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지며 색채를 언어 이미지로 시각화 하는 것을 현실화 한다¹⁸⁾.

본 연구에서는 I.R.I(Image Research Institute)의 ‘부드러운(soft)/딱딱한(hard)’, ‘동적인(dynamic)/정적인(static)’ 축으로 설정된 이미지 스케일을 사용하여 이것을 토대로 패션에서 나타난 중성색의 이미지의 영역을 정하고 상호 교차된 범주를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18) IRI색채연구소(2004). 감성만족 컬러마케팅, (주)영진닷컴, p.30.

II. 이론적 배경

1. 젠더 패션의 변천

시대적 배경에 따라 패션의 다양한 변화를 근거하여 젠더 패션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기존의 성 관념을 탈피한 패션의 역사가 발생했으므로 20세기 전반의 패션은 1910~1960년까지 제 1, 2차 세계대전 전·후의 패션, 20세기 후반의 패션은 1961~1999년까지 전쟁 이 후 현대 사회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시대 문화적 사조의 영향을 받은 시기, 마지막으로 21세기 전반의 패션은 2000년~2019년까지의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1) 20세기 전반

벨 에포크(Belle Epoque) 시대의 아르데코(Art Deco)는 데스틸 운동(De Stijl)의 신조형주의와 바우하우스의 기능주의에 영향을 받아 기능성과 단순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현대사회의 의복에서도 비약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순수성을 지향한 디자이너 폴 푸아레(Paul Poiet)는 여성의 인체를 극심하게 조였던 코르셋을 없앴으로써 S-커브 실루엣의 구속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 패션의 현대화를 열었다¹⁹⁾.

튜닉드레스의 아랫단을 좁힌 비기능적인 호블 스커트(hobble skirt)(그림 1)는 사회활동을 하는 신여성의 등장으로 활동의 자율성을 위해 앞과 옆에 트임을 주어 테일러드 수트에 활용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스포츠 웨어와 같은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복장이 유행하였다. 페미니즘 운동의 일환으로 남성패션의 요소를 여성의 패션에 적용한 실루엣이 눈에 띄었으며 남성의 크라바트(cravate)

19) 정흥숙(2014). 서양패션문화사. (주)교문사, pp.356-360.

모양의 목걸이 장식을 여성이 착용하기도 하였다(그림 2)²⁰⁾.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더욱 활발해졌고 패션의 형태는 합리성과 기능성이 추구된 제복과 테일러드 수트의 보편화를 이루었으며 해방성을 강조한 오버스커트나 튜블러 스타일(Tubular Style), 디렉투아르 스타일(Directoire Style)(그림 3)²¹⁾을 선호했다. 또한 <그림 4>와 같이 단추가 달린 파카나 커프스는 군복에서 영향을 받았고 전시 상황 중 염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의상의 색상은 검정이나 갈색, 회색 계통이 주를 이루었으며²²⁾ 그 결과 여성 의복 색채의 경연감이 높아짐으로써 남성성이 부각되었다. 이처럼 여성 고유의 형태미를 줄이고 남성 복장을 착용한 것과 같은 남성 이미지의 여성복장을 매스큘린 룩(Masculine look), 즉 매니시 룩(Manish look)이라고 한다²³⁾.

여성의 참정권 부여로 인해 정치와 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남녀평등 사상이 확대되었으며 가슴을 납작하게 하고 허리의 곡선을 완화한 스트레이트 박스 실루엣의 보이시 스타일(Boyish Style)이 나타났다(그림 5). 이 스타일은 1920년대 말까지 유행하였으며 플레퍼 스타일(Flapper Style), 가르손느 스타일(Garconne Styl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²⁴⁾. 여성해방운동의 가속화로 인하여 남자와 같은 짧은 <그림 6>의 보브 단발머리와 <그림 7>의 벨 형태의 클로세(Cloche) 모자가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귀를 덮은 챙이 짧은 미니멀한 클로세는 두상에 깊게 눌러 착용하여 암울한 시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함께 바지정장인 트레저 수트(trouser suit)의 착용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그림8)²⁵⁾.

1930년대는 전 세계의 경제 공황으로 인한 혼돈의 현실을 탈피하고자 인간의 무의식을 표출시켜 이성적 사고로부터 해방하고 자유를 얻는 것에 기초한 초

20) 정흥숙(2014). op.cit., pp.362-364.

21) 박신미, 이재정(2010). 1900년대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 고찰,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3), p.128.

22) 정흥숙(2014). op.cit., p.366.

23) 이연희, 김영인(2005). 현대패션룩에 표현된 성 정체성, 패션문화연구학회, 13(5), p.795.

24) 김미선(1983). 근대 서구 여성패션의 기능화 요인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p. 73.

25) 정흥숙(2014). op.cit., p.370.

현실주의가 나타났으며 표현 기법으로는 신체에 감추어진 곳이나 이목구비를 의복의 겉에 표현하고 일부분에 나타내어 신체의 이동을 통해서 일반적인 고정 관념에 반하도록 했다²⁶⁾. 이는 패션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의외성을 나타내는 젠더리스 표현 특성인 유희성에 기초가 되어 의상의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독창적인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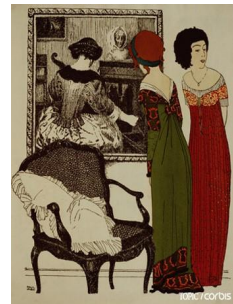
<그림 1>
호블 스타일

출처:<http://www.doopedia.co.kr>
(검색일: 2020.12.04.)



<그림 2>
크라바트

출처:<https://m.blog.naver.com/zammza4/220311186027>
(검색일: 2020.06.30.)



<그림 3>
디렉투아르 스타일

출처:<https://m.blog.naver.com/yoooong1111/220382885795>
(검색일: 2020.06.30.)



<그림 4> 군복에서
영향을 받은 의상

출처:<http://blog.naver.com/bopblog/220247353644>
(검색일: 2020.06.30.)



<그림 5> 보이시 이미지

출처:<http://blog.naver.com/bopblog/220253959105>
(검색일: 2020.06.30.)



<그림 6> 보브커트

출처:<http://blog.naver.com/bopblog/220253959105>
(검색일: 2020.06.30.)

26) 김윤(2013). 초현실주의 패션디자인 개발과 디지털 미디어 융합 전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3(3), p.60.



<그림 7> 클로세

출처:<http://blog.naver.com/bopblog/220253959105>
(검색일: 2020.06.30.)



<그림 8> 트레저 슈트

출처:<http://blog.naver.com/bopblog/220253959105>
(검색일: 2020.06.30.)

제 1차 세계대전부터 유행했던 <그림 9>의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은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실용적인 기능복으로 자리 잡았다. 라펠(Lapel)이 넓고 어깨는 각지며 스커트 길이가 짧은 테일 러드 슈트 스타일은 영국 무역청의 규정으로 전시 중에 직물 물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검소한 스타일의 유틸리티 룩(Utility Look)으로 보편화되면서 여성에게 강제적인 남성화를 부여하게 되었다(그림 10)²⁷⁾. 이 밖에도 아이젠하워 재킷(Eisenhower jacket)이나 몽고메리 베레모(Montgomery beret)는 전쟁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졌다.

어깨 폭을 확장시켜 강조하고 허리를 느슨하게 잡아주어 외관상의 선을 굵게 처리해 남성적인 모래시계 라인²⁸⁾을 선보인 볼드 룩(Bold Look)은 여성의 신체를 보다 거대하고 위엄이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11).

디올은 일명 플랫룩(Flat Look)으로 불리는 <그림 12>의 H-라인 실루엣을 발표했고 여성의 인체에 나타나는 곡선미를 무시한 직선형의 중성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실루엣에서 뿐만이 아니라 남성 테일러링과 뻗뻗한 소재, 그리고 네이비 블루나 그레이 컬러, 초크 스트라이프의 사용 등으로 나타난다²⁹⁾.

27) 김지혜(2016), op.cit., p.15.

28)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1997). 패션전문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p.127.

29) 최경희(2017). 크리스찬 디올 오프 꾸뛰르의 대중화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 기초조형학회, 18(3), p.381.



<그림 9> 밀리터리 룩

출처: <http://blog.naver.com/bopblog/220269995513> (검색일: 2020.06.30.)



<그림 10> 유틸리티 룩

출처: <https://m.blog.naver.com/zammza4/220312948489>
(검색일: 2020.06.30.)

<그림 11> 볼드 룩

출처: www.pinterest.co.kr
(검색일: 2020.11.26)



<그림 12> 크리스찬 디올 H-라인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291959988321613450/> (검색일: 2020.06.30.)

2) 20세기 후반

20세기 후반은 다양한 문화적 사조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시기로 패션에도 이러한 영향이 반영되어 양극화된 중성 스타일이 나타난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사회적 평의주의인 히피(Hippie)는 기존의 사회 통념과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성의 회복, 자연에의 귀의(歸依) 등과 같은 낙천적인 사고를 중시한다(그림 13). 이러한 문화는 여성패션의 해방과 유니섹스 모드(Unisex mode)로 나타났으며 남성복 역시 여성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자연과 자유를 상징하는 긴 머리 스타일을 시도하였다³⁰⁾.

1967년 슷공작이 암공작보다 화려한 것을 비유하는 피콕 혁명(Peacock Revolution)은 미래에는 남성복이 더욱 화려해질 것이라는 이론으로 당시의 사이키델릭(psychidelic)과 함께 화려한 컬러 시대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남성 의복 색상의 다양성 증대와 함께 유니섹스적인 요소를 남성에게도 적용하게 되었다³¹⁾.

유니섹스(Unisex)는 ‘남·녀 공용의’, ‘남·녀 구별이 없는’ 이라는 의미로 의상이나 헤어스타일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는 것을 뜻한다(그림 14). 1960년대에 지속적으로 일어난 여성해방운동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증대시키고 남녀가 동등하다는 의식의 보편화를 이뤄냄과 동시에 복장 표현의 자유로움과 여성성을 배제한 의복 스타일을 발생시켰다. 이는 20세기 이후 처음으로 남녀가 동일한 의복의 형태를 착용하는 계기가 되었다³²⁾.

30) 전여선, 김영삼(2012). 반사회적 의식이 반영된 시대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학회, 62(6), p. 121.

31) 정흥숙(2014). op.cit., p.329.

32) 박미령(2014). 현대패션에 표현된 젠더의 혁신 이미지, 한국생활과학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24.



<그림 13> 히피 룩

출처:<http://blog.naver.com/bopblog/220310646911>
(검색일: 2020.07.01.)



<그림 14> 유니섹스 룩

출처:<https://nostalgiacentral.com/pop-culture/fashion/annie-hall-look/>
(검색일: 2020.07.01.)

이후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그림 15>의 르 스모킹 룩(Le smoking Look)을 선보였으며 ‘스모킹(Smoking)’은 프랑스에서 일컫는 텍시도 스타일로 텍시도 룩과 같은 뜻이다. 남자의 밤 예복인 텍시도에서 영감을 얻은 여성복장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낸다³³⁾.

또한 부치 스타일(Butch Style)은 기존의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적 고유 요소를 반대로 차용하여 남자는 정교한 헤어와 극적인 메이크업을 하고 여자는 어두운 톤의 긴 팬츠와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함으로써 여성이 실용적으로 남성복 스타일을 대응하는 계기가 되었다³⁴⁾. 더불어 런던에 나타난 펑크(Punk)는 검은 가죽 옷에 채도가 높은 염색모, 검은 입술, 찢어진 스타킹, 쇠사슬 등을 착용하여 죽음, 절망, 공포, 공허를 표현하였고 허무주의, 히스테리, 성 혼용(Bi-sexual)의 모습을 극적으로 나타냈다(그림 16)³⁵⁾.

1980년대의 대표 사조인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적인 사고의 틀을 거부하고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해체시킴으로써 장르가 붕괴되어 서로 혼합되는

33) 유현정, 권미정(2019). 현대패션에 나타난 이브 생 로랑의 뮤즈패션.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5(4), p.371.

34) 최경희(2009). 패션속의 성. 경기도:㈜한국학술정보, pp.81-82.

35) 정흥숙(2014). op. cit., p.396.

양상을 띤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표현 특성으로는 서로 다른 문화의 양식과 이미지의 차용 및 혼합의 절충주의, 주변의 모든 것을 패션의 요소로 응용하는 브리콜라주(Bricolage), 원본 풍자의 패러디(Parody), 패스티시(Pastiche)가 있다. 이러한 조형성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체시키고 서로 다른 절충을 통하여 새로운 조화로움을 만들게 된다³⁶⁾.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그림 17>의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은 양성이 지니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융합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두 이미지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양성적 이미지와 남녀 중 어떠한 성도 느낄 수 없는 중성 이미지를 보여주며 성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³⁷⁾. 또한 이 시기에는 캐주얼 웨어의 보편화가 이루어졌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무채색의 크고 헐렁한 스타일인 빅 룩(Big Look)이 유행하였고 엉덩이를 가리는 반코트 기장은 인체의 곡선을 완화함과 동시에 활동성을 강조했다(그림 18)³⁸⁾.

남녀평등이 점차 강조되던 1990년대 중반에는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서 새로운 유행을 찾고자하였고 동시에 남녀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계속 이어갔다. 현재 까지도 이러한 시도의 중심에 있는 젠더리스(Genderless)는 ‘젠더(Gender)’에서 파생되어진 용어로 ‘성의 구별이 없는’, ‘중성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성과 나이의 파괴를 주 특성으로 하는 새로운 경향이다³⁹⁾. 이처럼 젠더리스는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양성성을 부정하지 않고 동등한 본질 또는 하나의 개체로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개념이며 성에 의해 나뉘어진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을 아무런 규범과 규제 없이 통합시켜 <그림 19>와 같은 새로운 디자인의 세계를 선보인다⁴⁰⁾.

36) 정흥숙(2014). op. cit., p.400.

37) 김경옥, 금기숙(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학회지, 36(0), p.243.

38) 정흥숙(2014). op. cit., p.402.

39) 김지혜(2016). op. cit., p.7.

40) 유흥식(2007). 국내의류업체의 패션상품에 나타난 젠더리스 연구, 10(3), 한국문화학회 p.58.

현대 패션에서 남성 의복의 젠더성은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기득권 세력인 남성의 안정적인 사회적 위치와 통념으로 인하여 여성에 비해 성 역할의 변화에 관한 저항과 투쟁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인식된다.

1994년도 일간지인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에 처음 등장한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이라는 용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시적 라이프 스타일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Narcissist)을 의미하며 여성 취향의 미적 감각을 지닌 남성으로 표현되었는데 남자들의 허영심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포용하고 표출하는 자신감으로도 해석되고 있다⁴¹⁾. 이처럼 자기 지향적 가치실현을 자신만의 자유로운 감성으로 표현하는 메트로섹슈얼은 <그림 20>과 같이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던 패션, 뷰티, 성형 등의 외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여 도시적 라이프를 즐기는 남성을 의미한다⁴²⁾.



<그림 15> 르 스모키 룩

출처: <https://m.blog.naver.com/zammza4/220313019340> (검색일: 2020.0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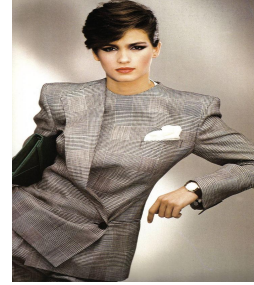
<그림 16> 핑크 룩

출처: <http://blog.naver.com/bopblog/220317479007> (검색일: 2020.07.01.)



41) Marian Salzman(2006). 남자의 미래, 이현주 역, 서울: 김영사), p.46.

42) 김지혜(2016). op.cit., p.29.



<그림17> 앤드로지너스 룩

출처: <http://blog.naver.com/bopblog/220317479007> (검색일: 2020.07.01.)



<그림 18> 포스트모더니즘 패션

출처: <http://blog.naver.com/bopblog/220317479007>
(검색일: 2020.07.01.)

<그림 19> 젠더리스 룩

출처: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3061858k>
(검색일: 2020.07.01.)

<그림 20> 메트로섹슈얼

출처: <http://www.fi.co.kr/mobile/view.asp?id=26306>
(검색일: 2020.07.01.)

3) 21세기 전반

20세기에 발생한 여성인권해방운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분법적 사고 붕괴, 히피의 반사회적 운동을 통하여 성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유연해졌고 동시에 성은 평등한 것이라는 시대적 사조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21세기에는 디지털 시대를 시작으로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하게 됨으로써 다름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의 이분법적 분류를 퇴색시

키고 보다 진보된 다차원성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21세기에 나타난 대표적 젠더 패션은 남녀구분이 없이 콘트라섹슈얼(Contrasexual), 크로스섹슈얼(Crosssexual), 이모 보이(Emo Boy), 엠니스(M-ness)로 구분된다.

콘트라섹슈얼(Contrasexual)은 기존의 성 역할 및 관념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여성 또는 그 성향⁴³⁾으로 태생의 생리적인 성과 사회적 통념에 따른 성 역할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여 사회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 여성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콘트라 섹슈얼의 등장은 전 세계의 독신율과 저 출산율의 증가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들의 이상은 생물학적인 남성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가지는 패션 감성은 고수하지만 한정된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며 신체의 외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로맨틱, 캐주얼, 댄디 등의 다양한 스타일을 자유롭게 연출하는 것을 선호한다⁴⁴⁾.

크로스섹슈얼(Crosssexual)은 여성의 패션, 헤어스타일, 악세사리, 메이크업을 하나의 패션 코드로 여기며 여성적 취향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뷰티 디자인적으로 활용하는 남성을 의미하지만 패션 이외의 행동양식에서는 남성성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동성애자와는 구별한다⁴⁵⁾. 이들은 자기 관리를 투자로 여기는 ‘루키즘’과 연관성을 짓고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패션 아이템인 스커트, 스키니진, 화려한 플라워 패턴, 프릴과 레이스 장식이 가미된 의상을 착용한다⁴⁶⁾. 이와 같이 크로스 섹슈얼은 남성의 몸에 여성적 취향을 과감하게 혼합함으로써 젠더 패션의 양성성을 부각하고 통합성을 이끌었다.

이모 보이(Emo Boy)의 이모(Emo)는 ‘Emotional’에서 파생된 단어로 슬직,

43) 김지혜(2016). op.cit., p.21.

44) 권정숙(2008). 패션에 표현된 네오젠더 개념의 특성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8(2), p.43.

45) 정혜희, 양숙희(2004). 트랙퀸과 트랙킹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학회, 54(7), pp.139-140.

46) 권정숙(2008). op.cit., p.45.

민감, 소극, 슬픔, 침울, 조용한 감정을 나타내며 고딕(Gothic)과 펑크(Punk) 패션, 그리고 하위문화에 근원을 두고 있다⁴⁷⁾. 마르고 각진 몸매를 더욱 강조하는 다크한 톤의 타이트한 의복을 입으며 진한 아이라이너를 바르고 무엇보다 그들의 우울한 감성을 표현하는 것에 주력하여 외모적인 꾸밈보다는 자신의 감성이나 의지를 담은 패션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⁴⁸⁾.

엠니스(M-ness)는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일반화 되면서 여성의 권력이 향상되자 과거 그녀들의 몫이었던 가사노동이나 쇼핑, 육아와 같은 활동을 능숙하게 하는 남성들을 의미한다. ‘부드러운 남성’, ‘여성성을 아우르는 남성’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들은 질 높은 감각적인 신체적 활동으로 즐거움을 찾고 남성만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⁴⁹⁾. 엠니스 패션스타일은 피트 앤 슬림(Fit and Slim) 실루엣으로 남성의 신체라인을 드러내고 허리선을 핏하여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슴선이 많이 파인 형태인 클리비치 룩(Cleavage Look)으로 성적매력을 자연스럽게 노출한다. 의상의 색채와 패턴은 비비드, 브라이트 톤의 밝은 색상으로 표현되며 여성적인 감각의 문양인 플라워 무늬가 주를 이룬다⁵⁰⁾. 따라서 엠니스는 기존의 남성성에 여성의 긍정적인 장점을 수용하여 결합시킨 형태로 급변하는 시대에 젠더의 자유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남성으로 자리잡고 있다⁵¹⁾.

47) 박주희, 하지수(2008). 한국과 미국의 Emo Fashion Style에 관한 연구. 58(2), pp.49-50.

48) Urban Dictionary. <https://www.urbandictionary.com>, (검색일:2020.07.02)

49) Marian Salzman(2006). op. cit., pp.259-261.

50) 유혜진(2012).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엠니스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9-35.

51) 김지혜(2016). op.cit., p.35.

2. 중성 이미지 색채

1) 중성 이미지 유형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 패션의 변천을 살펴보면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받아 꾸준히 성 역할과 인식이 바뀌었고 패션에서도 지속적인 스타일의 변화가 나타났다. 20세기 중반까지는 여성인권운동의 영향으로 남성의 권력과 사회적인 지휘에 도전하여 여성의 권리를 동등하게 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나갔으며 이 시기의 대표적인 스타일인 매니시, 보이시, 밀리터리는 여성이 남성을 모방하여 패션에 남성의 아이템을 착안한 스타일로 분석된다.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20세기 중·후반의 패션은 성의 이분법적인 해석과 절대 이념을 거부하고 개성과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을 중시한 저항적 시도를 담은 히피 룩, 유니섹스 룩, 핑크 룩, 앤드로지너스 룩, 젠더리스 룩, 메트로섹슈얼 룩으로 나타났다.

21세기부터는 보다 유연해진 대중들의 젠더 사상과 함께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체험함으로써 다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더욱 다양한 젠더 패션의 변천을 선도하였다. 이 시기에 나타난 콘트라섹슈얼, 크로스섹슈얼, 이모 보이, 엠니스는 대체적으로 양성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반대적 성의 요소를 차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패션의 변화를 시도하는 대상이 20세기에는 여성으로 도드라졌다면 21세기에는 남성들의 젠더리스적 변화가 크게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다음의 <표 1>은 이론적 배경의 젠더 패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13개의 중성 이미지의 유형이며 각각의 조형적 형태와 색채를 선행연구 및 서적과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중성 이미지 유형화

| 시대 | 대상 | 중성 이미지 유형 |
|------|--------|--------------------------------|
| 1920 | 여성 | 보이시 이미지(Boyish image) |
| 1930 | 여성 | 매니시 이미지(Mannish image) |
| 1940 | 여성 | 밀리터리 이미지(Military image) |
| 1960 | 남성, 여성 | 히피 이미지(Hippie image) |
| 1960 | 남성, 여성 | 유니섹스 이미지(Unisex image) |
| 1970 | 남성, 여성 | 펑크 이미지(Punk image) |
| 1980 | 남성, 여성 | 앤드로지너스 이미지(Androgynous image) |
| 1990 | 남성, 여성 | 젠더리스 이미지(Genderless image) |
| 1990 | 남성 | 메트로섹슈얼 이미지(Metrosexual image) |
| 2005 | 여성 | 콘트라섹슈얼 이미지(Contrasexual image) |
| 2005 | 남성 | 크로스섹슈얼 이미지(Crosssexual image) |
| 2000 | 남성 | 이모보이 이미지(Emo-boy image) |
| 2007 | 남성 | 엠니스 이미지(M-ness image) |

2) 중성 이미지 유형의 조형적 형태와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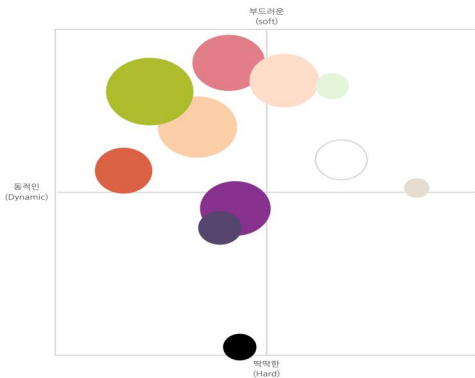
배민정(2008)⁵²⁾은 보이시 룩(Boyish look)의 조형성을 실루엣의 단순미, 아르 데코적 기능미, 율동미, 절제된 장식미로 분류하였으며 대표적 실루엣은 H-라인 또는 일자형으로 루즈하고 미니멀한 모던한 룩으로 분석했다. 또한 스커트의 길이를 짧게 하거나 바지를 함께 매치함으로써 활동성과 자유성을 높여 기능적인 면까지 보완한 룩으로 당시의 사회 활동이 늘어난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했다. 색채는 <그림 21>과 같이 비비드한 원색과 브라이트한 파스텔 색조가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백아름(2015)⁵³⁾은 보그 화보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를 분석하였으며 매니시 이미지(Mannish image)의 실루엣을 딱딱하고 직선적인 드레스 셔츠와 수트, 테일러드 재킷이라고 했으며 색채는 <그림 22>와 같이 진한 덜 톤의 무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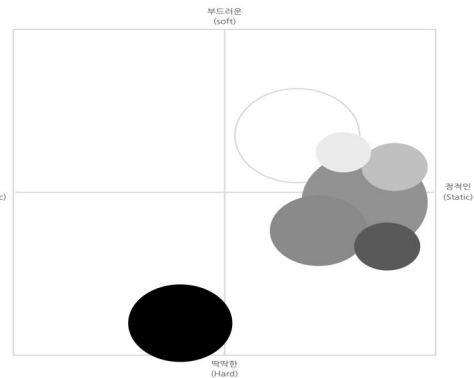
52) 배민정(2017). 1920년대 플래퍼 룩을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0-35.

53) 백아름(2015). 보그 화보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별 뷰티디자인 트렌드 분석,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계열인 블랙과 화이트, 그레이로 정의했다.



<그림 21> 보이시 색채 이미지 분포



<그림 22> 매니시 색채 이미지 분포

김정미(2013)⁵⁴)는 현대 여성 패션에서 나타난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의 조형적 특성을 권위성, 기능성, 저항성으로 분류하였으며 가장 밀리터리 룩의 역사성이 잘 드러나는 권위성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과시하는 유형으로 과거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공권력의 상징인 제복과 밀리터리 수트를 착용함으로써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여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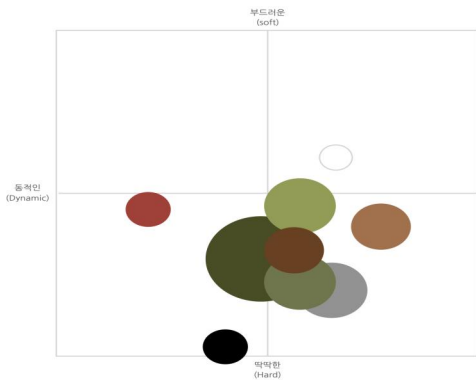
실루엣은 플립 포켓의 넓고 각진 어깨가 강조된 밀리터리 수트와 코트로 여성들의 제복과 군복과 매우 유사했다. 더불어 몸의 움직임에 충분히 고려하고 기능성을 강조한 품이 넉넉한 재킷과 스커트, 패치 포켓과 벨트 등이 나타났으며 색채로는 당시의 자연회귀 의지와 함께 에콜로지의 영향으로 군복의 대표적인 컬러인 카키와 브라운 계열이 주조색으로 나타났고 화이트, 그레이, 블랙의 모노톤을 보조색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그림 23).

김소연(2014)⁵⁵)은 히피 룩의 형태를 롱 드레스, 진 바지, 케이프, 페전트 블라우스(Peasant blouse)와 같은 인체의 라인을 드러내지 않는 넉넉하고 여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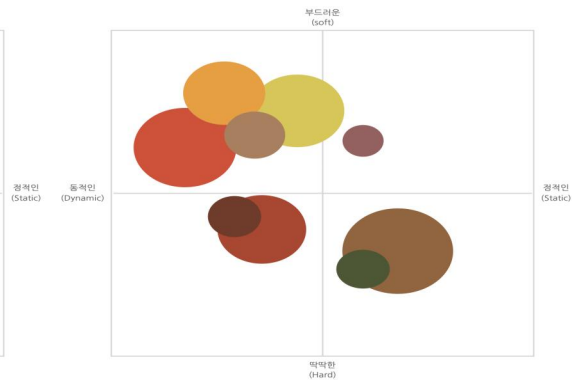
54) 김정미(2013).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5(6), pp. 866-867.

55) 김소연(2014). 1960년대 스타일을 재현한 현대 패션 뷰티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및 미적 특성,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7-48.

운 실루엣으로 분석했고 주조색은 <그림 24>의 R, YR, Y와 주조톤은 Deep, Dull 톤으로 나타나 자연친화적이며 민속적인 감성을 추론했다.



<그림 23> 밀리터리 색채 이미지 분포



<그림 24> 히피 색채 이미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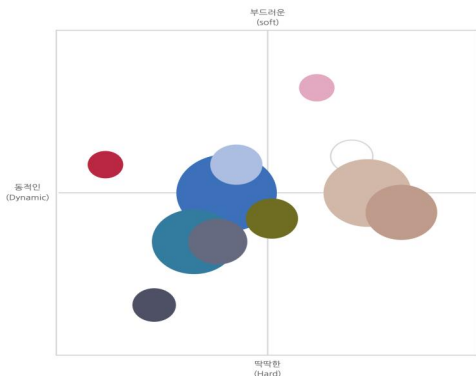
김현순(2001)⁵⁶⁾은 유니섹스(Unisex) 영 캐주얼웨어의 브랜드별 시장조사를 통하여 디자인 특성을 컴포터블 캐주얼웨어(Comfortable casual wear), 스포츠 캐주얼웨어(Sports casual wear), 힙합 캐주얼웨어로 구분하였으며 컴포터블 캐주얼웨어는 세미 웨임(a semi shape)의 티셔츠나 체크 패턴의 셔츠, 그리고 슬림 팬츠로 나타났으며 색채는 내추럴 톤의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컬러를 띤다. 스포츠 캐주얼웨어는 애슬릿 스타일(Athletic style)로 색채는 풀 톤(Full tone)의 브라이트한 스카이 블루, 핑크, 레드, 블루로 분석했다. 힙합 캐주얼웨어는 루즈 세입(a loose semi shape)의 티셔츠나 니트, 배기 팬츠(Baggy pants)이며 색상은 내추럴, 비비드 톤의 베이지, 카키로 나타났다(그림 25).

이수현(2013)⁵⁷⁾은 핑크의 미적특성을 저항성, 혐오성, 유희성, 해체성, 퇴폐성, 장식성으로 분류하였으며 기형적인 요소들 간의 복잡한 융합을 나타냈다. 검정을 기본색으로 다양한 원색과 화이트의 강한 색상 대비를 특징으로 분석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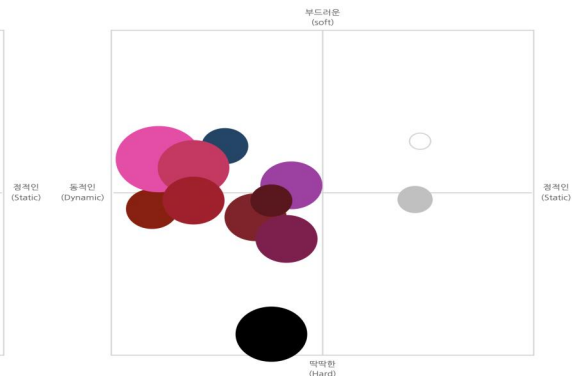
56) 김현순(2001). 유니섹스 영 캐주얼웨어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학회, 51(6), pp.94-97.

57) 이수현(2013). 핑크 이미지의 표현기법을 응용한 스타일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5-36.

다(그림 26). 여성의 경우 핑크 룩의 실루엣은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몸에 피트 되는 미니스커트, 망사 스타킹을 착용했으며 남성의 경우 스키니한 가죽 바지와 몸에 슬림하게 핏이 되거나 박시한 라이더 재킷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유니섹스 색채 이미지 분포



<그림 26> 핑크 색채 이미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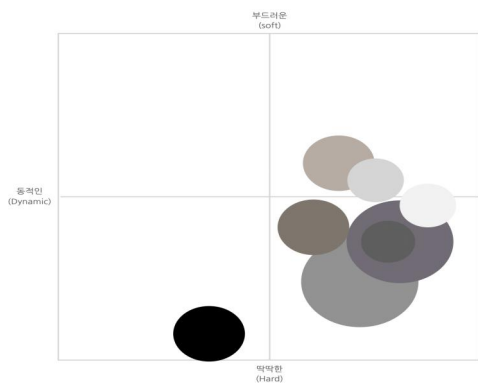
장지혜(2015)⁵⁸)는 현대 남성 컬렉션에서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의 실루엣의 특성을 피트 앤 슬림과 레깅스 및 스키니 팬츠로 분석했다. 좁아진 어깨선의 재킷과 피트되는 팬츠의 조합을 통해 전체적으로 인체에 밀착되는 슬림한 룩으로 이와 같은 I-형의 실루엣은 양성적 이미지로 분석했다. 색채는 라이트 그레이시 톤과 페일톤과 같은 파스텔 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것은 시크한 지성미와 함께 소프트하고 가벼운 이미지로 로맨틱한 무드와 여성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신비롭고 여성적인 남성의 이미지를 반영한다고 해석됐다. 또한 배색은 유사배색의 톤온톤이 높게 나왔으며 모던함과 부드러운 중성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특징으로 나타났다(그림 27).

김지혜, 이연희(2016)⁵⁹)의 젠더리스(Genderless) 표현 특성 중 가장 많이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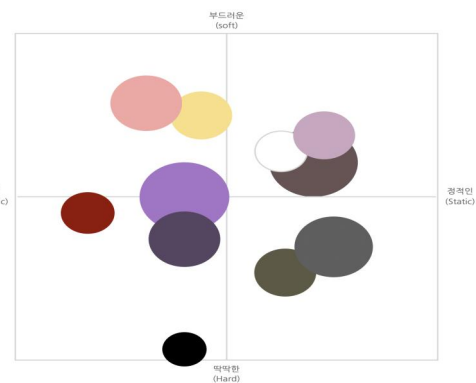
58) 장지혜(2015).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룩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1), pp.511-515.

59) 김지혜, 이연희(2016). 현대 여성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의 표현특성, 패션문화연구, 24(6), pp.201-202.

된 절충성을 살펴보면 테일러드 수트와 품이 넉넉하고 각진 어깨의 재킷, 넥타이와 같이 남성성이 짙은 아이템과 프린지 장식의 스커트, 플라워 패턴 등의 여성적 이미지의 혼합으로 중성성을 나타냈다. 색조 역시 양성의 이질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극명한 대비를 통한 절충성의 결합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림 28>과 같이 다크한 톤에 브라이트하거나 비비드한 톤을 매치하고 색상은 무채색의 블랙과 그레이, 거기에 여성성을 나타내는 난색 계열의 레드, 옐로우, 퍼플이 표현됐다.



<그림 27> 앤드로지너스 색채 이미지 분포



<그림 28> 젠더리스 색채 이미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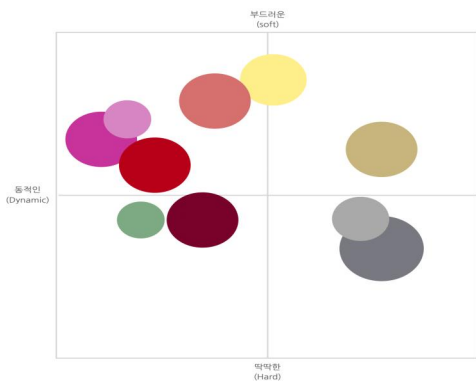
이언영, 변미연, 이인성(2006)⁶⁰은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의 형태를 피트 앤 슬림으로 분석했으며 바지의 밑 위 길이를 짧게 해서 남성의 골반이 부각되도록 했다. 또한 남성 신체의 직선적인 라인을 없애기 위해서 어깨선은 곡선으로 처리하고 좁아보이게 한다고 분석했다. 색채는 <그림 29>와 같이 고명도의 비비드 톤과 밝은 느낌의 브라이트, 라이트 톤과 색상은 핑크, 블루, 그린, 옐로우 등의 밝은 이미지의 색상으로 분석했다.

양은진, 이인성(2009)⁶¹은 드라마와 영화에 나타난 콘트라섹슈얼(Contrasex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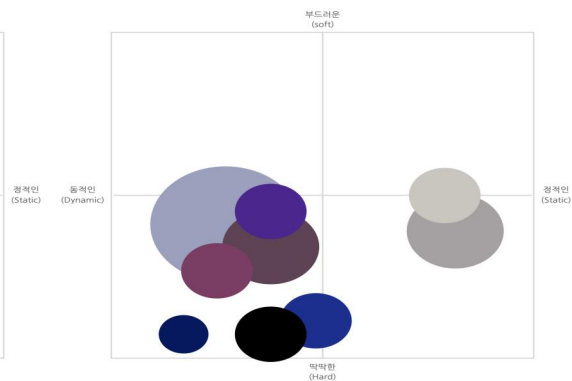
60) 이언영, 변미연, 이인성(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남성복 스타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의상디자인학회, 8(2), p.296.

61) 양은진, 이인성(2009). 현대 여성의 콘트라섹슈얼 성향에 따른 패션 디자인 개발, 패션문화연구, 17(5), pp.739-740.

패션의 조형적 분석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루엣은 스트레이트 실루엣인 H-라인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모던하면서도 매니시한 이미지를 나타냄으로서 콘트라 섹슈얼의 양성적 매력을 표출하기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Y실루엣은 여성의 어깨를 강조함으로 역삼각형을 이루어 강하고 위압적인 남성적 이미지의 연출을 나타냈다. 컬러 활용의 빈도는 <그림 30>과 같이 블랙과 화이트가 가장 높았으며 블루와 퍼플, 그레이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성인 무채색과 남성적인 이미지의 블루, 양성적 이미지의 퍼플 등의 활용은 콘트라섹슈얼의 성향을 표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 29> 메트로섹슈얼 색채 이미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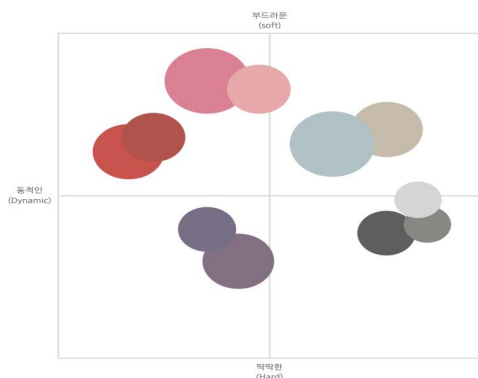
<그림 30> 콘트라섹슈얼 색채 이미지 분포

유혜진 안현주(2007)⁶²)는 남성패션의 크로스섹슈얼(Crosssexual) 디자인 특성을 분석했다. 실루엣은 몸에 밀착된 형태인 I-형 실루엣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슬림하고 편한 핏의 H-형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의 아방가르드한 형태의 실루엣이 도출되어 다양한 유형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캐주얼웨어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고 개성을 연출하기 위한 캐주얼 웨어의 수트 스타일의 활용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랩 스커트와 원피스의 활용, 배기 팬츠 등 다양한 아이템의 조합으로 고정관념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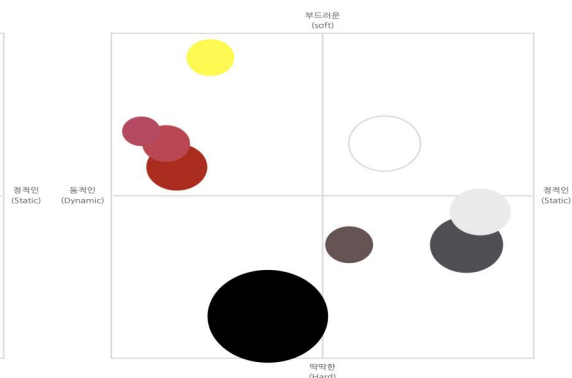
62) 안현주(2007). 크로스섹슈얼 이미지로 표현된 남성 패션의 디자인 특성 분석, 한국니트디자인학회, 5(2), pp.26-27.

체의 시도가 나타났다. 색상은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을 혼합하고 색상과 색상을 혼합하여 멀티색이 이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색조는 라이트 그레이쉬(light grayish tone), 다크 그레이쉬 톤(dark grayish tone)이 나타났고 색상은 퍼플, 블루, 옐로우, 레드, 핑크가 사용됐으나 액센트 컬러가 아닌 메인 색상으로 높은 빈도수가 나타났다(그림 31).

한순영, 김경희(2012)⁶³)는 이모 보이(Emo boy)의 조형적 특성은 고딕 패션(gothic fashion)과 펑크락(Punk rock) 패션에 근원을 둔 스타일로 마르고 키가 큰 체형의 실루엣에 어울리는 타이트한 의상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는 피트 앤 슬림이지만 핏이 되는 이너와는 반대로 후드나 집업 등의 아우터인 경우에는 여유로운 핏으로 이너와 상반된 실루엣을 보이며 전형적인 남성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여성적이고 감각적인 양성성이 드러난다. 또한 캐주얼 룩이 주를 이루며 하의는 블랙의 찢어진 스키니진이 주된 형태로 드러난다. 색조는 <그림 32>과 같이 다크하고 깊은 톤이 주를 이루며 색상은 무채색의 블랙을 주조색으로 하고 액센트 컬러로 레드, 옐로우, 실버, 화이트가 나타났다.



<그림 31> 크로스섹슈얼 색채 이미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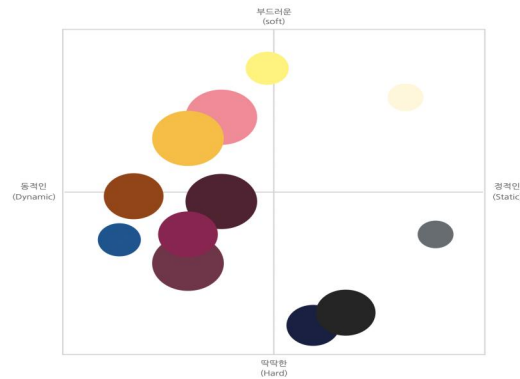
<그림 32> 이모보이 색채 이미지 분포

유혜진(2012)⁶⁴)은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엠니스(M-ness)의 조형적 특징을

63) 한순영, 김경희(2012).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양성성에 관한 디자인 연구. 한국니트디자인학회, 10(3), p.15.

분석했다. 실루엣은 피트 앤 슬림(Fit and Slim)이나 아워글래스(Houreglass), 클리비치 룩(Cleavage Look)으로 나타났다. 색상은 <그림 33>처럼 남성적인 색상인 블랙, 다크, 그레이, 브라운과 같은 어둡고 짙은 색상과 더불어 레드, 핑크, 오렌지, 마젠타 등의 고명도의 여성스럽고 화려한 색상과 밝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파스텔 톤의 핑크, 블루가 결합되어 사용되어졌고 중성이고 섹시한 느낌을 주는 퍼플, 레드, 와인색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중성 이미지 유형에 따른 형태와 색채는 각각의 스타일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났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림 33> 엠니스 색채 이미지 분포

64) 유혜진(2012). op.cit., pp.29-35.

<표 2> 중성 이미지 유형의 조형적 형태와 색채

| 이미지 | 색상 | 색조 | 아이템 및 실루엣 |
|--------------------------|---|--|---|
| 보이시 (Boyish) | 블랙, 화이트, 그린, 퍼플, 핑크, 피치, 코랄 | - 비비드(vivid) - 브라이트(bright) - 파스텔(pastel) | - H 라인 - 일자형 루즈핏 - 미니멀 모던 룩 - 미니스커트 - 바지 매치 |
| 매니시 (Mannish) | 블랙, 화이트, 그레이 | - 덜(dull) | - 직선적 드레스 셔츠, 정장 슈트 - 테일러드 재킷 |
| 밀리터리 (Military) | - 주조색: 카키, 브라운 - 보조색: 화이트, 그레이, 블랙 | - 스트롱(strong) - 딥(deep) | - 제복 - 밀리터리 슈트 및 코트 |
| 히피 (Hippie) | 레드, 옐로우, 오렌지, 레드 | - 딥(deep) - 덜(dull) | - 롱 드레스 - 청바지, 페인트 블라우스 - 케이프 - 라인을 드러내지 않는 여유로운 실루엣 |
| 유니섹스 (Unisex) |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스카이 블루, 핑크, 레드, 블루, 베이지, 카키 | - 내추럴(natural) - 브라이트(bright) - 비비드(vivid) | - 세미 웨입(semi shape)의 티셔츠, 체크 셔츠, 슬림 팬츠 - 세미 루즈 웨입(semi-loose shape)의 한 후드티, 집업 점퍼 - 루즈 웨입(loose-semi shape)의 티셔츠, 니트, 배기 팬츠 |
| 핑크 (Punk) | 블랙, 화이트, 원색 | - 다크(dark) - 비비드(vivid) | - 과도한 신체노출, 망사 스타킹 - 피트되는 미니스커트 - 라이더 재킷, 스킨 가죽 바지 |
| 앤드로지너스 (Androgynous) | 그레이, 블랙, 님베이지 | - 라이트 그레이시(light grayish) - 페일(pale) - 파스텔(pastel) | - 피트 앤 슬림 - 레깅스 - 스킨 팬츠 - I-형 실루엣 |
| 젠더리스 (Genderless) | 블랙, 그레이, 레드, 옐로우, 퍼플 | - 다크(dark) - 브라이트(bright) - 비비드(vivid) | - 테일러드 슈트, 넥타이 - 품이 넉넉하고 각진 어깨재킷 - 프린지 스커트 - 플라워 패턴 |
| 메트로섹슈얼 (Metrosexual) | 핑크, 블루, 그린, 옐로우 | - 비비드(vivid) - 브라이트(bright) - 라이트(light) | - 피트 앤 슬림 - 밑 위 길이가 짧은 바지 - 곡선형 어깨 |
| 콘트라섹슈얼 (Contrasexual) | 블랙, 화이트, 블루, 퍼플, 그레이 | - 스트롱(strong) - 다크(dark) | - H-라인: 스트레이트 실루엣 - Y-라인 |
| 크로스섹슈얼 (Crosssexual) | 퍼플, 블루, 옐로우, 레드, 핑크 | - 라이트 그레이시(light grayish) - 다크 그레이시(dark grayish) | - I-라인: 밀착형 - H-라인: 슬림, 편한 핏 - 아방가르드형 실루엣 - 랩 스커트 - 배기 팬츠 |
| 이모 보이 (Emo boy) | - 주조색:블랙 - 액센트 컬러: 레드, 옐로우, 실버, 화이트 | - 다크(dark) - 딥(deep) | - 이너: 피트 앤 슬림 - 아우터: 여유로운 핏 - 캐주얼 룩, 찢어진 스킨 진 |
| 엠니스 (M-ness) |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핑크, 오렌지, 마젠타, 블루, 와인, 옐로우 | - 다크(dark) - 비비드(vivid) - 파스텔(pastel) | - 피트 앤 슬림 - 아워클래스 - 클리비치 룩 |

3. 젠더리스 패션의 표현 특성

젠더 패션의 변천에서 중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13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젠더의 중성 이미지들의 범주를 더욱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가장 대중적이고 화제성이 강한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중성 이미지들의 재배치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젠더 이미지의 범주를 설정하고자 패션 분야에서 젠더리스의 연구가 도드라진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선행 연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젠더리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권하진(2019)⁶⁵⁾은 ‘팔로모 스페인(Paloma Spain)’의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현대 남성 패션의 젠더 복합성 특성과 내적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복합적 젠더의 표현 특성으로는 정형화된 여성적 장식의 직접 사용, 패션 에티튜드의 모호성, 섹슈얼리티의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젠더 조형성의 해체를 통한 수행적 젠더 복합성의 내적가치로는 다면적 가치성, 위반의 재구성으로 나타났다.

안광숙(2018)⁶⁶⁾의 연구에서는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표현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남성복에 여성적 이미지가 공존하는 복합적 의복의 형태인 양성성과 실루엣은 남성복이지만 여성적인 소재와 디자인을 절충하여 혼합한 절충성, 그리고 신체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여 관능적인 부위를 강조하는 관능성, 마지막으로 즐거움과 재미를 본질로 삼아 규칙을 변화하고 형태를 왜곡한 유희성으로 나타났다.

임민정(2018)⁶⁷⁾은 현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표현 경향을 분

65) 권하진(2019). 팔로모 스페인(Paloma Spain)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 복합성. 한국 과학예술훈학협회, 37(2), pp.1-17.

66) 안광숙(2018). op.cit., pp.1543-1556.

석한 후 형성된 이미지를 성 정체성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젠더 플루이드 이미지와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패션 컬렉션의 페미니즘 표현 특성으로는 디자이너들의 견해가 담긴 슬로건과 같은 메시지를 레터링과 그래픽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퍼포먼스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적 디자인의 요소를 여성의 패션에, 여성적 디자인의 요소를 남성 패션에 적용하거나 양성의 모델에게 같은 디자인의 의상을 입힘으로서 성 정체성을 해체시켰다. 마지막으로 인종, 나이, 성별, 신체 사이즈의 개별화를 부각시켜 정형화된 미의 기준을 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미니즘 패션 컬렉션에 표현된 젠더 플루이드 이미지로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이미지, 에이젠더(Agender) 이미지, 합리적(Rational) 이미지, 프로섹시즘(Proswxism) 이미지이다.

정수진, 임은혁, 서승희(2018)⁶⁸)는 남성복에 나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을 정상성을 벗어나 이질적 공간을 의미하는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에 근거하여 젠더리스 패션 특성을 분류하였다. 헤테로토피아에서 도출한 전이, 일탈, 모순, 위기, 혼재의 이론을 패션과 연결하여 젠더리스 패션의 사례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이는 여성 패션의 영향으로 인하여 남성 패션의 아이템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했으며 남성들에게 금기시된 스커트와 핫팬츠와 같은 아이템을 과감하게 착용한 일탈의 시도와 함께 남성의 몸에서 표현되는 여성의 외양인 모순이 드러났고 생물학적인 성의 위기를 과감하게 드러낸 호모 섹슈얼리티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양성의 공존과 성적 특성을 교차한 혼재의 양성성을 나타냈다.

김지혜, 이연희(2016)⁶⁹)의 연구는 2006 S/S ~ 2016 S/S 시즌까지 발표된 컬렉션에서 젠더리스적 요소가 나타난 10개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대상으로 표현

67) 임민정(2018). 페미니즘 테마 패션 컬렉션에 표현된 젠더 플루이드 이미지, 한국의상디자인학회, 20(3), pp.63-78.

68) 정수진, 임은혁, 서승희(2018).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으로 본 남성복의 젠더리스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42(4), pp.626-638.

69) 김지혜, 이연희(2016). 현대 여성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의 표현특성, 패션문화연구, 24(6), pp.903-919.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절충성, 유의성, 과장성, 관능성, 역사성으로 분류했다. 절충성은 형태나 소재와 같은 디자인 요소 중 이질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반대의 조합을 의미하며 유희성은 경계를 허물고 조화를 이루게 한 재형성을 뜻한다고 하였으며 과장성은 형태의 확대, 축소에 의한 왜곡과 변형으로 설명하였으며 관능성은 간접적, 직접적 노출로 관능적인 부위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사성은 과거의 패션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재해석하여 재창조한 역사적 사실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정, 임은혁(2015)⁷⁰⁾의 연구는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의 남성복에 나타난 젠더 표현 방식을 분석하였으며 선별기준은 저항적, 해체적 경향을 가진 디자이너의 컬렉션이다. 그 결과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의 특성으로는 전통적 남성성과 저항적 남성성, 해체적 남성성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남성성은 지배적 권력을 갖는 강한 남성적 이미지이며 디자인은 수트가 대표적이나 해체주의적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적인 컬러와 소재, 디테일을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항적 남성성의 마초적 남성성은 패션의 비례를 파괴함과 동시에 과대하게 강조함으로써 남성중심주의적 사고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나타냈고 관능성 남성성은 전통적인 수트에서 벗어나 캐주얼화된 패션을 나타냈다. 반면 여성성을 도입한 패션의 표현방식으로는 성을 중성화한 무성성과 제 3의 성을 나타내는 양성성으로 분석했다.

유홍식(2007)⁷¹⁾의 연구는 국내의류업체의 패션상품에 나타난 젠더리스의 특성을 뱀의 분류에 의해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성성은 남성과 여성의 특질을 모두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스티뷰티와 미즈 스트롱으로 규정하여 남성 역시 화장품을 비롯한 화려한 의류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은 반대성의 표식을 차용하며 대표적 패션

70) 김현정, 임은혁(2015).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주디스 버틀러의 정체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패션학회, 65(3), pp.47-61.

71) 유홍식(2007). op.cit., pp.57-72.

아이템은 재킷과 바지이며 핏이 되는 직선적인 실루엣을 나타낸다. 여성성은 여성의 긍정적 사회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세련되고 강인한 여성상과 쉬크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미분화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모두 낮은 유니섹스를 나타내며 보수적이고 획일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감성과 감각이 반영된 트렌드 볼륨 캐주얼로 분석되었다.

최나리, 우주형(2007)⁷²⁾은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을 통하여 신체적 성과 젠더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여성성, 남성성, 중성성, 양성성 순의 빈도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중성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여성성 표현방법으로는 신체특성의 노출과 장식이며 남성성, 중성성 표현 방법은 신체특성 은폐이고 양성성은 과장된 장식과 혼합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남성성 표현방법은 강조이며 여성성은 장식과 노출, 양성성은 장식과 과장 그리고 혼합이다. 중성성은 혼합과 변형으로 나타났다.

김주영(2002)⁷³⁾는 걸 파워(girl power) 의상에 표현된 3세대 페미니즘 여성성의 미적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관능미, 양성미, 기괴미, 혼성미, 탈인체미, 퇴폐미로 분류했다. 관능미는 과시된 섹슈얼리티를 활용한 성적 권력을 주체임을 나타냈으며 양성미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초월한 통합의 제 3의 성을 의미하며 독립성, 자율성, 여성 주체성을 나타냈다. 기괴미는 남근중심주의에 대한 위협을 제시함과 동시에 강인성, 해방성, 전복성, 유희성, 충격효과, 카타르시스를 나타냈다. 혼성미는 다문화주의와 반인종주의의 관점으로 흑인성과 원시성을 나타냈다. 탈인체미는 기계와 인간, 유기체와 인간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통해 인체의 한계를 벗어난 주체성, 가상성, 환성성의 미적 가치를 나타냈다. 퇴폐미는 젠더 정체성의 유희를 통해 유동적, 다형적 여성을 나타냈다.

72) 최나리, 우주형(2007).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성별에 따른 젠더 이미지 표현, 한국패션학회, 57(2), pp.143-154.

73) 김주영(2002), 걸 파워 의상에 표현된 3세대 페미니즘 여성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07.

이와 같이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은 성별과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되어졌으며 20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남성성과 여성성의 부각, 또는 미분화로 분류하여 남성과 여성의 성이 이분법적으로 나뉜 형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 넘어올수록 양성의 특성에 관한 부각과 미분화의 형태가 젠더리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을 띠는 양성성과 절충성으로 대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의 이분법적 해체의 관점 뿐 아니라 시·공간적 요소로 분류한 역사성, 탈 인체미를 나타낸 과장성, 유희적 요소가 첨가된 유희성, 섹슈얼리티의 직접적인 표현의 관능성으로 나타났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3>과 같으며 본 선행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 유형은 양성성, 절충성, 역사성, 과장성, 유희성, 관능성으로 분석된다.

<표 3> 젠더리스 패션 디자인 표현 특성 선행연구

| 연구자 | 주제 | 성별 | 특성 | |
|-----------------------------|----------------------------------|----|--|--|
| 권하진 (2019) | 팔로모 스페인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 복합성 | 남성 | 표현 특성 | - 정형화된 여성적 장식의 직접적 적용 - 패션 에티튜드의 모호성 - 섹슈얼리티의 표현 |
| | | | 내적 가치 | - 다면적 가치성 - 위반의 재구성 |
| 안광숙 (2018) |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표현된 젠더리스 특성연구 | 남성 | 양성성, 절충성, 관능성, 유희성 | |
| 임민정 (2018) | 페미니즘 테마 패션 컬렉션에 표현된 젠더 플루이드 이미지 | 여성 | 표현 특성 | - 레터링과 그래픽을 이용한 직접적 표현 - 퍼포먼스를 활용한 페미니즘 표현 - 남성컬렉션과 여성컬렉션의 결합 - 다양성과 신체공정의 표현 |
| | | | 이미지 | - 임파워먼트 이미지 - 에이젠더 이미지 - 합리적 이미지 - 프로섹시즘 이미지 |
| 정수진 임은혁 서승희 (2018) | 헤테로피아 개념으로 본 남성복의 젠더리스 스타일 | 남성 | - 전이: 여성패션의 영향으로 남성패션 아이템의 변화 - 이탈: 여성전유 패션의 착용 - 모순: 남성의 몸에서 표현되는 여성의 외향 - 위기: 호모섹슈얼리티 - 혼재: 양성의 공존 | |
| 김지혜 (2016) | 현대 여성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의 표현특성 | 여성 | 절충성, 유희성, 과장성, 관능성, 역사성 | |
| 김현정 임은혁 (2015) |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 남성 | - 전통적 남성성 - 저항적 남성성: 마초적 남성성, 관능성 남성성, 무성성, 양성성 - 해체적 남성성: 동성애적 표현 | |
| 유홍식 (2007) | 국내의류업체의 패션상품에 나타난 젠더리스 연구 | 여성 |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 |
| 최나리 우주형 (2007) |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성별에 따른 젠더 이미지 표현 | 여성 | 여성성(노출·장식), 남성성, 중성성(은폐), 양성성(과장된·혼합) | |
| | | 남성 | 남성성(강조), 여성성(장식·노출), 양성성(장식·과장·혼합), 중성성(혼합·변형) | |
| 김주영 (2002) | 걸 파워 의상에 표현된 3세대 페미니즘 여성성 | 여성 | 관능미, 양성미, 기괴미, 혼성미, 탈인체미, 퇴폐미 | |

4. I.R.I 이미지 스케일

I.R.I(Image Research Institute)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Hue & Tone 898 color system을 기조로 색채 심리와 색채의 이미지적 해석을 근거한 디자인의 색채 문제 해결의 도구를 개발하는 1992년에 국내에 설립된 색채연구소이다⁷⁴⁾.

이미지 스케일은 1990년도 일본의 고바야시(Kobayashi)에 의해 색과 언어의 관계를 ‘부드러운(soft)/딱딱한(hard)’, ‘따뜻한(warm)/시원한(cool)’의 두 개의 축으로 구성하여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로 사용되어졌다. 이후 I.R.I사는 한국 특유의 이미지 스케일을 색채 감성 연구를 통하여 제작하였으며 x, y 축을 ‘부드러운(soft)/딱딱한(hard)’, ‘동적인(dynamic)/정적인(static)’으로 재설정하여 이미지 스케일을 개발하였다⁷⁵⁾. I.R.I 이미지 스케일은 색채와 이미지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분석하는 대상에 따라 단색 이미지 스케일, 배색 이미지 스케일,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로 나누어 규격화한 색채 이미지 공간을 제공한다.

<그림 34>의 단색 이미지 스케일은 각각의 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시한 것으로 색의 이미지를 판단하는 심리적 기준점인 x, y축(동적인(dynamic)/정적인(static), 부드러운(soft)/딱딱한(hard)) 위에 단색별로 색채를 올려서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감성 공간이다. 단색 이미지 스케일에서는 색채의 거리에 따라 이미지의 차이가 커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처럼 색에서 느껴지는 공간상의 거리의 차이는 색채의 이미지의 차이를 나타냄으로 두 색상이 스케일 상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상반된 이미지이며 가까울수록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의 변수의 요인은 색상보다 색조가 크게 작용한다⁷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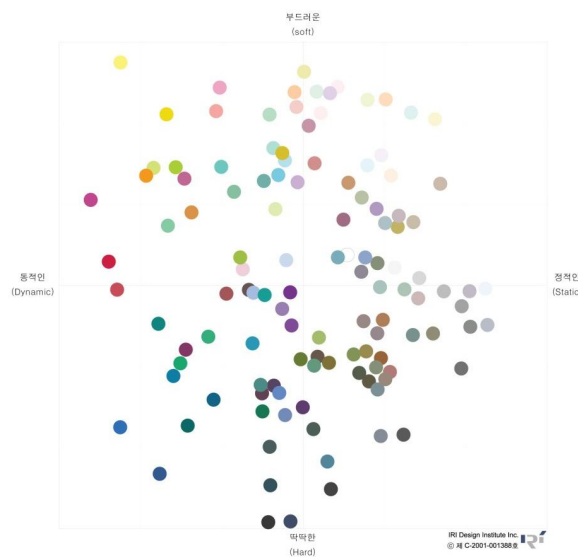
74) IRI색채연구소(2003). Color Combination 어떤색이 좋을까?, (주)영진닷컴, p.1.

75) 윤현경, 신원선(2017). 대학생이 선호하는 간호사의 메이크업이미지에 대한 연구: IRI이미지스케일을 중심으로,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8(3), p.44.

76) IRI색채연구소(2004). op.cit.,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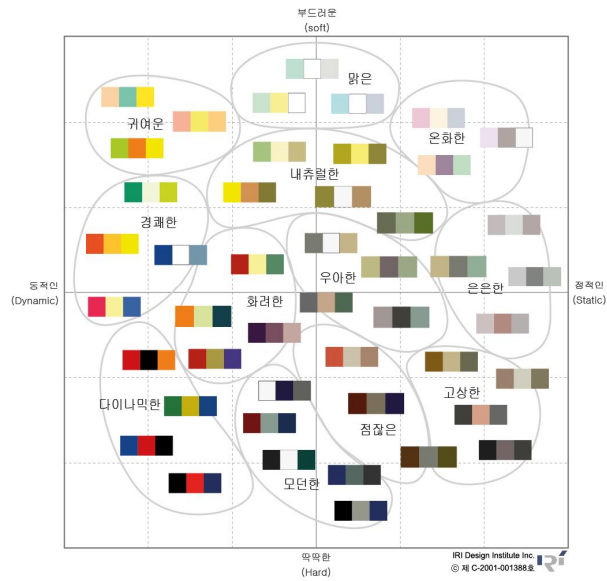
<그림 35>의 배색 이미지 스케일은 단색 이미지 스케일 보다 더욱 세밀한 색의 이미지 차이를 나타내며 3가지 이상의 컬러의 배치로 유사 배색칩이 나타내는 대표 이미지와 세부 이미지를 나열하여 제작한 것으로 배색이 가진 특징과 이미지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에 활용된다⁷⁷⁾.

<그림 36>과 같이 축에 따라 나누어진 색채 이미지 공간에 단색, 또는 3속성 유사 배색칩을 대입하여 12개의 형용사 이미지의 기본 영역과 106개의 세부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따라서 이미지를 구체적인 색채로 규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추상적 색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전환하고 해석하여 컬러 플래닝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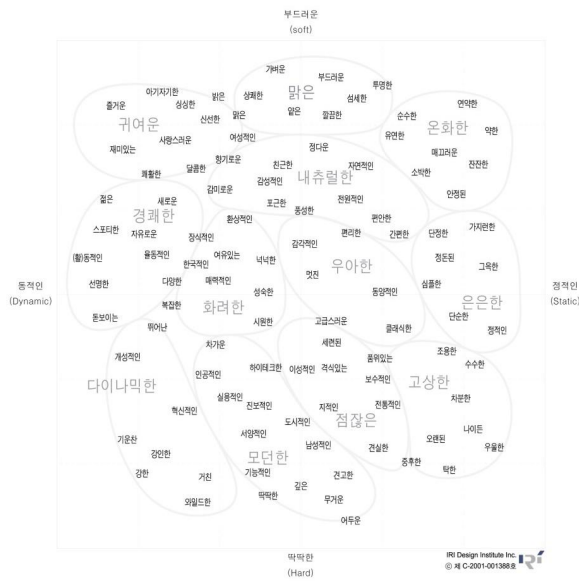


<그림 34> I.R.I 단색 이미지 스케일
출처: <http://www.iricolor.com/> (검색일: 2020.07.04)

77) IRI색채연구소(2004). op.cit., p.30.



<그림 35>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
 출처: <http://www.iricolor.com/> (검색일: 2020.07.04)



<그림 36>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
 출처: <http://www.iricolor.com/> (검색일: 2020.07.04)

Ⅲ. 젠더리스 패션 표현 특성과 색채 분석

젠더리스에 관한 색채를 분석하기에 앞서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분류하였으며 그에 따른 특징은 <표 4>와 같다. 따라서 컬렉션의 의상을 젠더리스 표현 특성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한국표준색 색채분석 프로그램 KSCA(Korea Standard Color Analysis)를 통해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별 색채를 분석하였다.

<표 4> 젠더리스 표현 특성

| 표현 특성 | 특징 |
|-------|---|
| 절충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된 이미지의 아이템 코디네이션 - 상이한 견해, 이론, 사상의 영역 교류를 통한 새로운 방향 모색 - 부조화 대상의 이미지 병치 - 정해진 배색의 형식이 없는 다양한 색채 사용 - 문양이나 질감에 따른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 전통과 현대적인 의복 디자인의 결합 -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조화 |
| 양성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과 여성의 특질을 모두 혼재하는 의복 - 성을 초월하는 ‘제 3의 성’의 이미지로 독립성, 자율성, 여성 주체성 내포 - 남성복에서는 남성 신체에 여성적 장식인 모피와 깃털, 꽃, 스카프 등을 가미하여 표현 - 여성복에서는 남성적인 실루엣의 미니멀한 매니시 룩, 신체에 제약을 주지 않는 박시한 디자인 활용 - 양성의 디자인적 요소의 교차로 남녀의 모호성 부각 및 공존과 융·복합 표출 |
| 유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와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자유를 의미 - 반고전주의적 경향으로 사회적 성 역할에서의 해방과 일탈의 쾌감, 유희 충동의 발산 - 웨곡, 과장, 축소와 같은 부조화 및 이질적 재료의 사용 - 성인복에 유아적 요소 도입 - 남·녀복의 혼용 |
| 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체로서의 성적 대상화 이미지, 주체로서의 자유로우며 독립적인 강인한 여성 이미지 - 직접적인 신체의 노출로 인한 관능적인 부위 강조 - 동적인 노출로 인한 시각적 인지와 연상 심리작용 유발 - 신체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시스루 등의 소재 활용 - 속옷의 노출 및 겹옷화 |

| | |
|-----|---|
| 과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의 구조나 형상을 극대화하여 원래의 모습을 강조, 확대하는 것 - 형태의 확장과 축소 및 변형 의한 왜곡적 과장 - 신체의 제약을 주는 물리적인 과장 - 선과 색의 배열로 인한 착시효과 - 길이의 확대에 의한 수직적 과장 및 부피와 면적의 확대에 의한 수평적 과장 |
| 역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고주의 패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재해석을 통한 재창조된 의복 - 동서양의 민족적이며 토속적인 패션 - 변형된 역사적 사실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 특정 시대적 배경이 표현된 의상 |

1. 절충성

여러 예술 분야에서 반영되는 절충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 표현 기법 중 하나로 다양한 양식의 혼합을 의미하며 패션을 착용하는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범주와 시대적 맥락을 포괄한다. 이는 패션에서 단순히 상반된 이미지의 아이টে를 코디네이션 하는 것은 물론, 상이한 견해나 이론, 사상 등과 같은 본질을 뛰어넘은 두 영역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모색을 의미한다. 이처럼 절충성은 무원칙적으로 짜 맞춘 다양성 속에서 스타일의 경계와 구분이 흐려지는 것이 아닌 결합과 대조를 통한 병치에서 오는 불확정적인 의미로 표현되어지는 재치 있는 스타일의 혼합이다⁷⁸⁾.

1) 표현 특성

절충성의 표현 특성으로는 형태나 소재와 같은 다양한 디자인적 요소 중 이질적인 아이টে를 도입하여 조화시키는 것으로써 부조화 대상의 이미지의 병치, 정해진 배색 형식이 없이 다양한 색상과 톤의 사용, 문양이나 질감에 따른

78) 임은혁(2003). 21세기 전환기 하이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핑크룩을 중심으로, 한국패션학회, 53(2), p.81.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전통과 현대적인 의복 디자인의 결합, 하위문화와 고급 문화의 조화로 나타낼 수 있다⁷⁹⁾. 이와 같이 사회, 문화, 시 공간, 동 서양, 남녀를 넘나드는 복합적 절충성은 경계의 해체와 혼성의 도치 통하여 풍부하고 독특한 젠더리스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진다.

<그림 37>의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서로 다른 소재와 실루엣을 활용하였으며 상의는 울 소재의 직선의 실루엣이 담긴 매니시한 테일러드 재킷과 하체는 워싱이 들어간 빈티지하며 캐주얼한 이미지의 세미 와이드 데님 팬츠를 매치하여 부조화 대상의 이미지를 병치하였다. 반면에 색채는 그레이쉬 톤의 블루 색상으로 통일감을 주어 상·하의 이질감의 격차를 조화롭게 중재하였다.

샤넬(Chanel)의 트위드 재킷(tweed jacket)은 여성의 우아함은 유지하되 활동성에 제약을 줄이려 만들어진 캐주얼 자켓으로 자체에서의 절충미가 느껴지는 대표적인 의상이다. 이를 중성이며 활동적인 조거 팬츠 수트에 매치함으로써 여성적인 우아미와 함께 개성적인 중성미의 상반된 이미지의 절충성을 나타냈다. 또한 문양이 단조로운 블랙 소재에 트위드 재킷의 플래드(plaid) 격자무늬를 매치함으로써 기품 있는 이미지와 보이시한 이미지의 상반된 격차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어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젠더리스적 가치를 재해석하여 보다 과감한 디자인을 탄생시켰다(그림 38).

폴 스미스(Paul Smith)는 <그림 39>와 같이 편안한 실크 소재의 스트라이프 무늬의 블루 나이트 셔츠와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페이즐리 패턴(paisley pattern)의 핫핑크의 팬츠를 함께 매치하여 절충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었으며 타이가 아닌 실크 스카프를 착용하여 전체적인 매니시한 착장에 여성적인 이미지를 절충하여 나타냈다.

토미 힐피커(Tommy Hilfiger)는 무채색인 라이트 그레이쉬 톤의 테일러드

79) 김지혜, 이연희(2016). op.cit., pp.909.

수트(tailored suit)에 래쉬가드(rash guard) 소재로 많이 활용되는 스판덱스(spandex)를 재킷 안에 이너로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차분하고 중성인 매니시한 이미지에 스포티 룩이 결합되어 활동적이면서도 격식 있는 하이테크 이미지의 수트로 표현 되어졌다. 또한 허리에 나타난 곡선의 절개선은 여성미를 드러내어 다소 미니멀한 수트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그림 40).



<그림 37>

Maison Martin
Margiela
2011 S/S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5)



<그림 38>

Chanel
2011 F/W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5)



<그림 39>

Paul Smith
2014 F/W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5)



<그림 40>


Tommy Hilfiger
2014 S/S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5)

2) 색채

2011 S/S 메종 마르틴 마르지엘라는 <표 5>와 같이 퍼플블루(PB)의 색채가 7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어서 22.06%의 비율로 나타난 퍼플이 두 번째로 높은 색채 분포도를 보였다. 그 중 KS 8.75PB 7/4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증명도, 저채도의 남색계통이 주조색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추출 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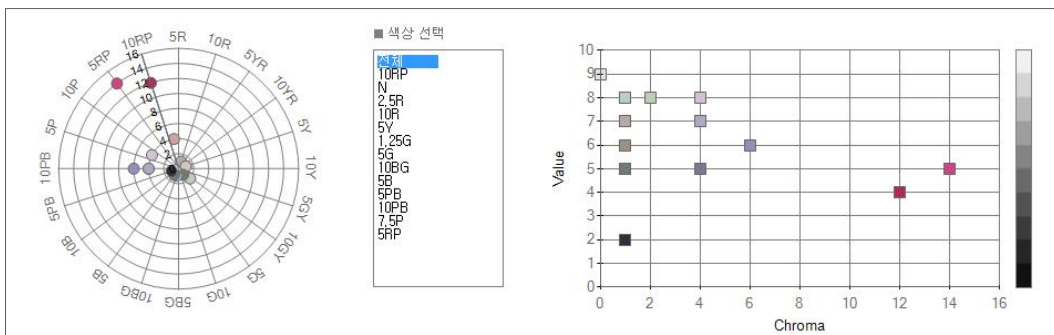
는 중·고명도와 저채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6).

<표 5> Maison Martin Margiela 2011 S/S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8.75PB 7/4 | 169 | 172 | 199 | 36.2 |
| | | KS 8.75PB 6/6 | 141 | 144 | 187 | 18.39 |
| | | KS 8.75PB 5/6 | 116 | 118 | 161 | 13.9 |
| | | KS 1.25P 8/2 | 200 | 199 | 209 | 13.34 |
| | | KS 5P 3/1 | 75 | 70 | 78 | 7.14 |
| | | KS 7.5PB 6/6 | 135 | 146 | 187 | 6.24 |
| | | KS 5P 8/4 | 208 | 195 | 220 | 1.58 |
| | | KS 8.75PB 8/4 | 195 | 199 | 225 | 1.55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07.)


<표 6> Maison Martin Margiela 2011 S/S 추출색상분포



<표 7>의 2011 F/W 샤넬은 블루그린(BG)이 79.2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청록색의 기미가 있는 그린 컬러의 베이스를 띠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N4의 무채색 컬러가 15.48%로 높게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옐로우레드(YR) 계열이 1.83%로 가장 미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조색은 전체 색채의 63.06%를 차지한 KS 10BG 2/1이며 명도와 채도가 가장 낮은 범주인 최저 명도, 최저 채도의 청록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도 <표 8>의 추출색상분포도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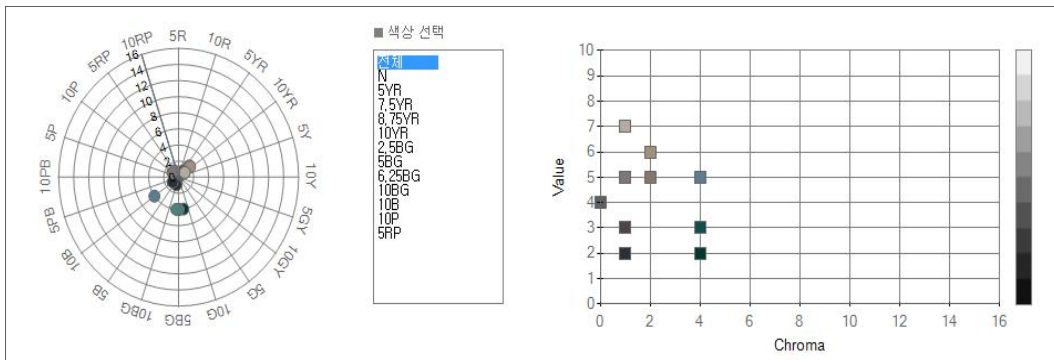
면 알 수 있듯이 이 의상의 전체적인 색조는 저명도, 저채도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명도와 채도가 낮은 그린, 옐로우 계열의 따뜻한 기조의 톤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샤넬의 기존의 의상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캐주얼하고 빈티지한 젠더리스의 절충성이 드러난 의상으로 분석된다.

<표 7> Chanel 2011 F/W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10BG 2/1 | 42 | 50 | 52 | 63.06 |
| | | KS N4 | 96 | 96 | 96 | 15.48 |
| | | KS 5BG 3/4 | 18 | 80 | 78 | 14.93 |
| | | KS 10B 2/1 | 43 | 50 | 55 | 2.65 |
| | | KS 10YR 7/1 | 181 | 172 | 161 | 1.63 |
| | | KS 2.5BG 2/4 | 4 | 56 | 51 | 0.98 |
| | | KS 6.25BG 5/4 | 75 | 131 | 129 | 0.28 |
| | KS 5YR 3/1 | 81 | 69 | 64 | 0.2 |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07.)


<표 8> Chanel 2011 F/W 추출색상분포



<표 9>의 2014 F/W 파울 스미스의 추출색상표를 살펴보면 퍼플(P)이 79.83%, 레드퍼플(RP)이 15.37%, 퍼플블루(PB)가 4.25%, 레드(R)가 0.38% 순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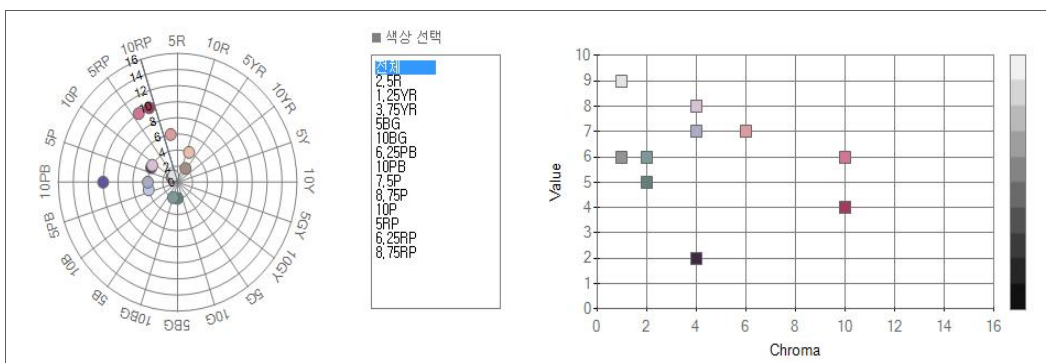
나 푸른빛을 띠는 보라와 붉은색을 함유한 자주빛의 보라색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미지 색채를 동시에 드러내어 양성성의 이미지를 절충하여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R,G,B가 64, 41, 66의 범주에 있는 KS 7.5P 2/4는 79.3%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 주조색은 레드퍼플과 퍼플의 경계선 상에 있는 컬러로 푸른 기조와 붉은 기조를 동시에 품고 있으며 저명도와 중채도의 톤으로 비교적 차분한 느낌의 안정적인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0>에 서처럼 톤의 분포도는 비교적 다양한 편에 속하나 주조색들만으로 분석했을 경우에는 저명도, 고채도의 특징을 나타낸다.

<표 9> Paul Smith 2014 F/W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7.5P 2/4 | 64 | 41 | 66 | 79.3 |
| | | KS 8.75RP 4/10 | 162 | 59 | 92 | 11.18 |
| | | KS 10PB 4/10 | 98 | 86 | 158 | 4.19 |
| | | KS 6.25RP 6/10 | 213 | 117 | 149 | 2.57 |
| | | KS 5RP 9/1 | 231 | 226 | 227 | 1.62 |
| | | KS 10P 6/1 | 152 | 145 | 150 | 0.53 |
| | | KS 2.5R 7/6 | 221 | 156 | 158 | 0.38 |
| | | KS 10PB 7/4 | 172 | 171 | 198 | 0.06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07.)

<표 10> Paul Smith 2014 F/W 추출색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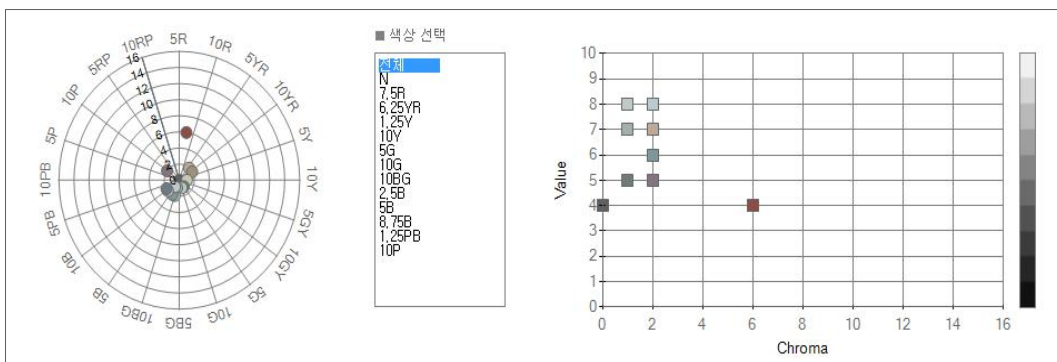
<표 11>의 토미 힐피거는 블루그린(BG) 80.63%, 블루(B) 5.94%, 레드(R) 1.75%, 옐로우(Y) 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조색인 KS 10BG 7/1의 비율은 5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니시한 느낌의 모던한 수트와 스포티한 레쉬가드 형식의 이너와 같이 의상의 상반된 이미지는 색채에서도 나타났으며 그레이톤을 기조로한 블루그린(BG)에 명도와 채도에 차이를 두어 의상에서 느껴지는 상반된 절충성의 이미지를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색조의 분포도는 중·고명도와 저채도로 분포되어 있어 차분하면서도 스포티하고 활동성이 활발하게 느껴지는 룩으로 분석되어 진다.

<표 11> Tommy Hilfiger 2014 S/S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10BG 7/1 | 163 | 176 | 176 | 79.3 |
| | | KS 10BG 8/2 | 177 | 206 | 206 | 11.18 |
| | | KS N4 | 96 | 96 | 96 | 4.19 |
| | | KS 8.75B 8/2 | 186 | 203 | 210 | 2.57 |
| | | KS 7.5R 4/6 | 143 | 77 | 70 | 1.62 |
| | | KS 2.5B 6/2 | 127 | 152 | 155 | 0.53 |
| | | KS 5B 8/1 | 192 | 202 | 203 | 0.38 |
| | | KS 1.25Y 6/2 | 160 | 145 | 124 | 0.06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07.)

<표 12> Tommy Hilfiger 2014 S/S 추출색상분포



다음으로 <표 13>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총 10년간의 젠더리스 컬렉션에 나타난 절충성의 의상 중 20개의 이미지를 선정하여 4개의 주조 색채를 추출하였으며 총 80개의 색채 데이터로 표식화한 것이다. 이어서 <표 14>와 <표 15>는 주조 색채를 색상과 색조로 분류하여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13> 젠더리스 절충성에 나타난 주조색 팔레트

| 이미지 | 주조색 | | | | 이미지 | 주조색 | | | |
|-----|---------------|----------------|---------------|----------------|-----|---------------|---------------|---------------|---------------|
| | KS 10BG 2/1 | KS 10BG 2/1 | KS 5BG 3/4 | KS 10B 2/1 | | KS 10PB 2/1 | KS 10YR 9/1 | KS 5YR 7/1 | KS 10YR 8/1 |
| | KS N2 | KS 10R 9/1 | KS 5YR 8/1 | KS 2.5R 4/8 | | KS 3.75R 4/10 | KS 5R 2/2 | KS N7 | KS 5YR 9/1 |
| | KS 8.75PB 7/4 | KS 8.75PB 6/6 | KS 8.75PB 6/6 | KS 8.75PB 6/6 | | KS 5B 2/1 | KS 6.25PB 2/4 | KS 7.5PB 3/4 | KS 6.25BG 3/4 |
| | KS N4 | KS 7.5R 4/8 | KS 10YR 6/2 | KS 3.75YR 7/4 | | KS 5P 8/1 | KS 5PB 2/1 | KS 10PB 4/1 | KS 10PB 2/1 |
| | KS 7.5P 2/4 | KS 8.75RP 4/10 | KS 10PB 4/10 | KS 6.25RP 6/10 | | KS 5GY 9/4 | KS N2 | KS 3.75GY 9/2 | KS 8.75Y 7/6 |
| | KS 8.75RP 6/2 | KS 8.75RP 7/2 | KS 5RP 4/1 | KS 8.75RP 8/2 | | KS N7 | KS 5PB 4/1 | KS N2 | KS 10B 5/1 |
| | KS 10BG 7/1 | KS 10BG 8/2 | KS N4 | KS 8.75B 8/2 | | KS 5PB 2/1 | KS N9 | KS 10RP 4/12 | KS 10R 7/1 |
| | KS 5YR 8/2 | KS 7.5YR 3/2 | KS 10YR 6/4 | KS 7.5YR 5/4 | | KS 10RP 9/1 | KS 6.25PB 6/2 | KS 6.25PB 5/4 | KS 6.25PB 7/2 |
| | KS N9 | KS 10RP 2/4 | KS 10P 7/1 | KS 7.5P 8/2 | | KS 10PB 2/1 | KS 7.5YR 4/2 | KS 5RP 3/1 | KS 2.5PB 7/8 |
| | KS N2 | KS 2.5R 8/2 | KS 6.25PB 4/8 | KS 6.25PB 2/6 | | KS 10B 7/1 | KS 1.25PB 3/2 | KS 6.25PB 9/2 | KS 1.25PB 6/4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07.)

<표 14> 절충성의 색상 빈도 분포

| 색상 단위 | R | YR | Y | GY | G | BG | B | PB | P | RP | N | 합계 (%) |
|-----------|-------------|------------|-------------|------------|-----------|------------|-------------|---------------|----------|--------------|--------------|--------------|
| 1.25 | 0 | 0 | 0 | 0 | 0 | 0 | 0 | 2 | 0 | 0 | 0 | 2 (2.5) |
| 2.5 | 2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3 (3.75) |
| 3.75 | 1 | 1 | 0 | 1 | 0 | 0 | 0 | 0 | 0 | 0 | 0 | 3 (3.75) |
| 5 | 1 | 4 | 0 | 1 | 0 | 1 | 1 | 5 | 1 | 2 | 0 | 16 (20) |
| 6.25 | 0 | 0 | 0 | 0 | 0 | 1 | 0 | 7 | 0 | 1 | 0 | 9 (11.25) |
| 7.5 | 1 | 3 | 0 | 0 | 0 | 0 | 0 | 1 | 2 | 0 | 0 | 7 (8.75) |
| 8.75 | 0 | 0 | 1 | 0 | 0 | 0 | 1 | 4 | 0 | 4 | 0 | 10 (12.5) |
| 10 | 2 | 4 | 0 | 0 | 0 | 4 | 3 | 3 | 1 | 3 | 0 | 20 (25) |
| 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12.5) |
| 합계 (%) | 7 (8.75) | 12 (15) | 1 (1.25) | 2 (2.5) | 0 (0%) | 6 (7.5) | 5 (6.25) | 23 (28.75) | 4 (5) | 10 (12.5) | 10 (12.5) | 80 (100%) |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 중 절충성에 나타난 색상의 분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색상에서는 퍼플블루(PB)가 2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옐로우레드(YR)가 15%, 레드퍼플(RP)과 무채색(N)이 각각 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색과 난색이 적절하게 배색된 것으로 살펴본 결과 상반된 이미지의 병치에서 오는 다양한 색상을 활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처럼 정해진 배색이 아닌 다채로운 색상의 사용은 상이한 디자인 영역을 절충하여 융합하는 시도로 분석할 수 있다. 색상을 단위로 살펴보면 10단위의 색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단위가 20%로 나타났고 8.75단위와 무채색이 12.5%, 이어서 6.25단위가 1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색상은 KS 6.25 PB이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색상은 KS 5 PB이다.

<표 15> 절충성의 색조 빈도 분포

| 채도 명도 | 0 | 1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N | 합계 (%) |
|-----------|-----------|--------------|---------------|---------------|-------------|----------|----------|-------------|-----------|-----------|--------------|---------------|
| 2 | 0 | 9 | 1 | 3 | 1 | 0 | 0 | 0 | 0 | 0 | 0 | 14 (17.5) |
| 3 | 0 | 1 | 2 | 3 | 0 | 0 | 0 | 0 | 0 | 0 | 0 | 6 (7.5) |
| 4 | 0 | 3 | 1 | 0 | 0 | 3 | 3 | 1 | 0 | 0 | 0 | 11 (13.75) |
| 5 | 0 | 1 | 0 | 2 | 0 | 0 | 0 | 0 | 0 | 0 | 0 | 3 (3.75) |
| 6 | 0 | 0 | 3 | 2 | 3 | 0 | 1 | 0 | 0 | 0 | 0 | 9 (11.25) |
| 7 | 0 | 5 | 2 | 2 | 1 | 1 | 0 | 0 | 0 | 0 | 0 | 11 (13.75) |
| 8 | 0 | 3 | 6 | 0 | 0 | 0 | 0 | 0 | 0 | 0 | 0 | 9 (11.25) |
| 9 | 0 | 4 | 2 | 1 | 0 | 0 | 0 | 0 | 0 | 0 | 0 | 7 (8.75) |
| 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12.5) |
| 합계 (%) | 0 (0%) | 26 (32.5) | 17 (21.25) | 13 (16.25) | 5 (6.25) | 4 (5) | 4 (5) | 1 (1.25) | 0 (0%) | 0 (0%) | 10 (12.5) | 80 (100%) |

다음 <표 15>는 젠더리스 표현 특성 중 절충성의 색조를 분석한 것이다. 절충성의 채도 중 가장 높은 분포수를 나타낸 것은 32.5%를 보인 1단위의 저채도이며 이어서 21.25%를 차지한 2단위, 16.25%로 나타난 3단위 순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절충성의 채도는 저채도의 범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명도의 경우 2단위가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4와 7단위가 13.7%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8이 11.25% 순으로 나타나 한 쪽에 편중되지 않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무채색의 경우 N2가 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4, N7, N9이 각각 2.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한색과 난색의 배색을 하나의 의상 안에 동시에 담으로써 서로 상이한 개념을 절충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저채도를 베이스로한 고명도와 저명도의 색조 배색을 통하여 상반된 사상의 영역을 교류하고 융합하는 젠더리스의 절충성의 색채로 분석된다.

2. 양성성

남성(andro-)과 여성(gyne)의 합성어인 양성성(androgyny)은 하나의 신체에 두 가지의 성이 결합된 것을 뜻하며 여성의 양성성과 남성의 양성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성 패션에서의 양성성은 ‘제 3의 성’으로 존재하는 양성화된 여성, 즉 프로이드의 남근상징 여성(phallic woman)을 의미하며 여성의 젠더의 한계를 뛰어넘어 젠더를 구분하는 것 자체를 초월한 것을 뜻하고 남성화된 이미지,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이미지, 양성 모두를 느낄 수 없는 중성 이미지 구분된다. 이와 같이 성의 명백한 구분이 해체된 양상을 띠며 여성스러움과 남성다움을 초월하는 통합에 의한 제 3의 성 이미지를 제시함과 동시에 독립성, 자율성, 여성 주체성을 내포하고 있다⁸⁰⁾.

1) 표현 특성

남성 패션에 나타나는 양성성은 대개 남성 신체에 여성적인 장식을 더함으로써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부드러움, 화려함의 이미지를 유발하며 이에 활용되어지는 소재는 모피와 깃털과 같은 풍성함의 아이템이 주로 사용되어 진다. 이 외에 꽃과 스카프 등 여성성이 강한 소품을 착용함으로써 여성성과 남성성의 조화를 이끌어 낸다.

이처럼 양성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잘 융합된 복합적인 양상으로 기존의 성 고정관념을 없애고 남성과 여성이 가진 특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각자의 디자인 요소를 자유로이 교차하는 것으로 남, 녀의 모호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하나의 패션 안에 남성과 여성의 특질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⁸¹⁾. 또한 본래의 성별을 시한 의복을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80) 김주영(2002). 걸 파워 의상에 표현된 3세대 페미니즘 여성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4-77.

생물학적 성에서 사회적인 성으로 양면가치를 표출한다⁸²⁾.

<그림 41>의 모스키노(Moschino)는 전형적인 남성의 턱시도 룩을 여성에게 착용하여 남성성을 부각하는 매니시함을 표현한다. 화이트 색상의 정장에 솔 피크트 라펠(shawl peaked lapel)과 보 타이(bow tie), 그리고 커머 벨트(cummer belt)를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어 무채색의 강한 대비 효과로 인해 군더더기 없는 모던하고 깔끔한 여성의 턱시도 스타일로 나타났다. 또한 소매와 바지의 옆선을 골드도 장식하여 고급스러움을 표현한다.

에르메스(Hermès)는 올 레더 룩(all leather look)을 선보였으며 헐렁한 실루엣의 끝이 좁아지는 타입인 멘즈-웨어 팬츠(men's-wear pants)를 착용하여 남성스러운 느낌의 룩을 나타냈다. 거기에 지퍼까지 실버나 골드가 아닌 블랙을 매치하여 여성을 더욱 남성스럽게 표현한 양성성이 나타났다(그림 42).

크리스토퍼 케인(Christopher Kane)은 <그림 43>과 같이 재킷의 솔 칼라를 올려 잡아서 목선을 감싼 것과 같은 디자인으로 마치 차이나 넥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하여 여성의 쇄골과 목선을 가린 실루엣을 나타냄과 동시에 플라워 장식을 재킷의 라인을 잡는데에 활용하여 여성의 신체적 라인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여성의 신체에서 최소한의 부분만을 노출하고 그 외의 영역을 감춤으로써 성을 초월한 의복의 '제 3의 성'이 나타났다.

밀리터리 룩에서 유래된 패션은 견장과 훈장, 군화, 군모, 금속 단추 등과 같은 액세서리의 활용으로도 군대의 옷차림을 표현하는데⁸³⁾ <그림 44>의 발렌티노 (Valentino)는 어깨의 견장과 대칭으로 장식된 단추를 이용한 코트와 군화의 실루엣과 유사하게 발목까지 감싼 부츠의 착용으로 남성적인 이미지의 밀리터리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다. 별도의 팔 부분은 없애고 세로로 직선의 절개선을 깊게 넣은 망토로 인해 곡선을 없앤 미니멀한 직사각형의 라인으로 여성의 카리스

81) 안광숙(2018). op.cit., p.1550.

82) 유홍식(2007). op.cit., p.64.

83) 김지혜, 이연희(2016). op.cit., p.206.

마와 주체성을 내포하는 룩을 연출했다.



<그림 41>

Moschino
2011 F/W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5)



<그림 42>

Hermès
2014 F/W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5)



<그림 43>

Christopher Kane
2014 S/S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5)




<그림 44>

Vallentino
2015 F/W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5)

2)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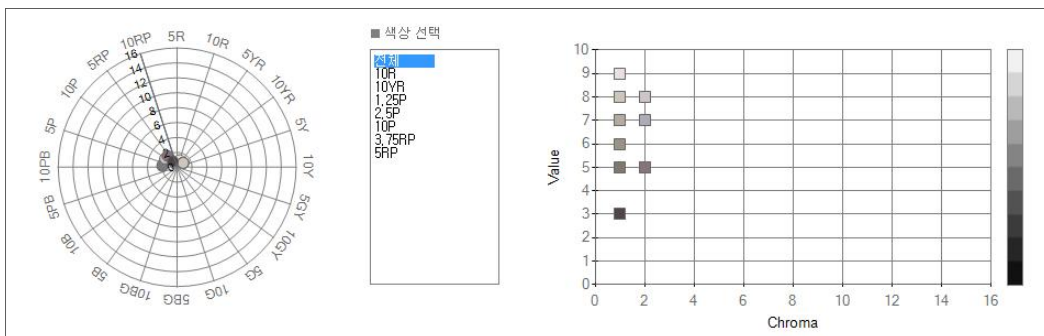
2011 F/W 모스키노의 추출색상은 <표 16>과 같이 레드(R) 64.47%, 옐로우레드(YR) 30.16% , 레드퍼플(RP) 5.36%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높은 64.47% 비율을 차지한 색상은 KS 10R 9/1으로 주황색의 명도가 9단위 수준의 매우 밝은 워 톤 베이지 컬러이다. 반면 이 컬러의 채도는 1단계로 가장 낮은 채도를 띠고 있으나 밝은 톤으로 인하여 탁하기보다는 화사한 느낌을 주는 클래식 텍시도이며 여성의 신체에 남성적 의상 디자인을 대입하여 보다 강인한 이미지의 젠더리스적 양성성을 나타내는 의상으로 분석된다(표 17). 또한 명암의 극명한 대비로 인하여 칼라 및 보우타이 등에 KS 5RP 3/1의 색채를 사용하여 보다 상이함이 강조되는 또렷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Moschino 2011 F/W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10R 9/1 | 233 | 225 | 223 | 64.47 |
| | | KS 10YR 7/1 | 181 | 172 | 161 | 20.37 |
| | | KS 5RP 3/1 | 80 | 69 | 73 | 5.32 |
| | | KS 10YR 8/1 | 207 | 199 | 187 | 3.17 |
| | | KS 10YR 8/1 | 207 | 199 | 187 | 2.51 |
| | | KS 10YR 6/1 | 155 | 146 | 136 | 2.14 |
| | | KS 10YR 5/1 | 129 | 120 | 111 | 1.97 |
| | | KS 3.75RP 5/2 | 135 | 117 | 123 | 0.04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17> Moschino 2011 F/W 추출색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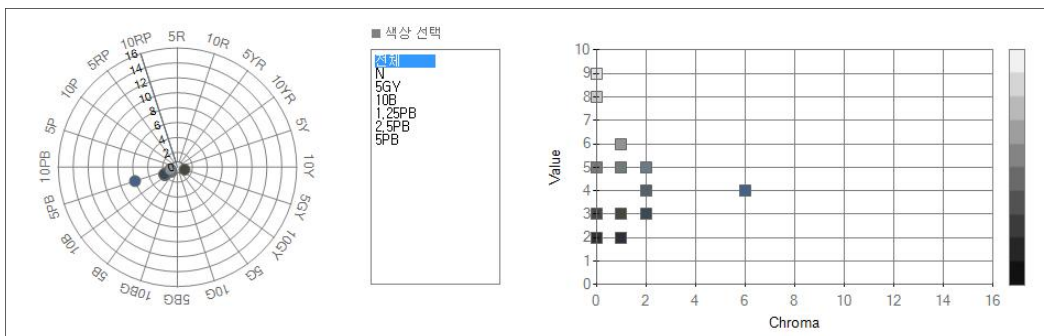
<표 18>의 2012 F/W 에르메스 추출 색상은 무채색(N) 64.41%, 퍼플블루(PB) 29.35%, 블루(B) 4.57% 순으로 나타나 무채색의 비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1.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KS N2는 명암과 채도가 가장 낮은 블랙을 띠고 있어 화이트 셔츠를 제한 수트의 다크한 색상으로 색의 경연감 상에서 볼 때 가장 단단하고 강한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기존의 여성의 이미지를 보다 더욱 보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표 19>에서처럼 의상의 전체적인 톤은 저명도, 저채도의 다크 톤, 딥톤, 덜톤 등과 같이 어두운 계열의 범주에 해당된다.

<표 18> Hermès 2012 F/W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N2 | 49 | 49 | 49 | 61.82 |
| | | KS 5PB 6/1 | 144 | 148 | 153 | 12.72 |
| | | KS 1.25PB 4/2 | 84 | 98 | 109 | 7.44 |
| | | KS 10B 5/1 | 115 | 123 | 127 | 4.57 |
| | | KS 1.25PB 5/2 | 110 | 123 | 134 | 3.88 |
| | | KS N9 | 227 | 227 | 227 | 3.59 |
| | | KS 5PB 2/1 | 46 | 49 | 56 | 2.83 |
| | | KS 2.5PB 3/2 | 60 | 73 | 86 | 2.48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19> Hermès 2012 F/W추출색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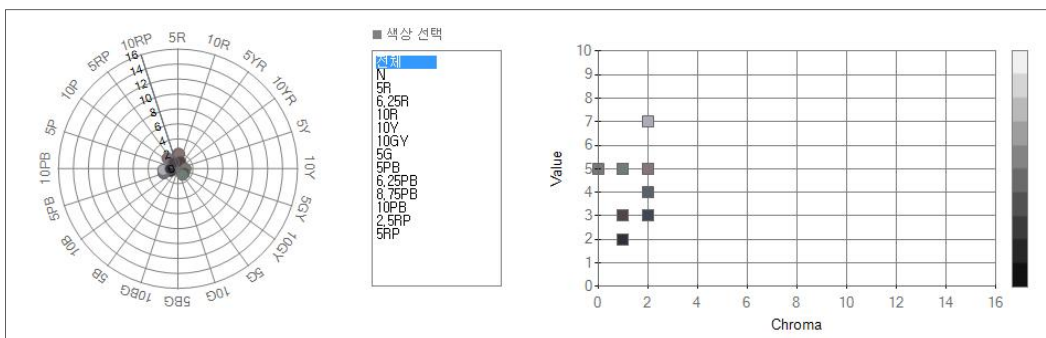
<표 20>에 나타난 2014 S/S 크리스토퍼 케인의 추출색상은 퍼플블루(PB) 99.52%, 레드(R) 0.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에서처럼 수트의 전체 색조는 중·저명도, 저채도의 범주에 집중되어 단조로우며 모던한 수트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81.35%의 높은 비율로 나타난 주조색 KS 5PB 2/1, 역시 명도와 채도의 수치가 2/1를 띠고 있어 의상의 전체적인 색조는 다크하고 딱딱한 이미지의 남성적인 의상으로 젠더리스적 양성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20> Christopher Kane 2014 S/S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5PB 2/1 | 46 | 49 | 56 | 81.35 |
| | | KS 8.75PB 7/2 | 172 | 173 | 184 | 7.88 |
| | | KS 6.25PB 4/2 | 91 | 96 | 110 | 6.87 |
| | | KS 6.25PB 5/2 | 117 | 121 | 134 | 1.81 |
| | | KS 5PB 5/2 | 115 | 122 | 134 | 0.82 |
| | | KS 10PB 2/1 | 50 | 48 | 56 | 0.5 |
| | | KS 6.25PB 3/2 | 66 | 71 | 87 | 0.29 |
| | | KS 6.25R 5/2 | 138 | 116 | 114 | 0.27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21> Christopher Kane 2014 S/S 추출색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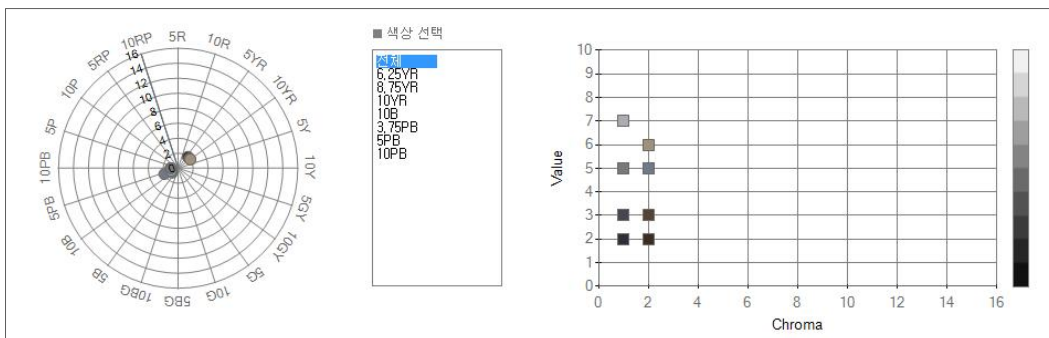
<표 22>와 같이 2015 F/W 발렌티노의 추출 색상은 퍼플블루(PB)가 99.77%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블루(B)가 0.8%, 옐로우레드(YR) 0.05%의 비율의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87.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주조색 KS 5PB 2/1은 쿨 톤의 남색을 기조로 한 매우 다크닝한 컬러로 색조는 명도와 채도가 모두 가장 낮은 단계인 저명도, 저채도를 띠고 있어 여성 인체의 곡선을 모두 가린 직각형의 실루엣 디자인에 남성성을 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23).

<표 22> Valentino 2015 F/W 추출 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5PB 2/1 | 46 | 49 | 56 | 87.47 |
| | | KS 5PB 2/1 | 46 | 49 | 56 | 7.43 |
| | | KS 5PB 3/1 | 68 | 72 | 79 | 2.77 |
| | | KS 5PB 3/1 | 68 | 72 | 79 | 1.4 |
| | | KS 5PB 7/1 | 170 | 174 | 178 | 0.59 |
| | | KS 3.75PB 5/2 | 113 | 122 | 134 | 0.11 |
| | | KS 10B 5/1 | 115 | 123 | 127 | 0.08 |
| | KS 10YR 5/2 | 135 | 119 | 100 | 0.05 |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23> Valentino 2015 F/W 추출 색상분포



다음 <표 24>는 젠더리스 컬렉션에 나타난 양성성의 의상 중 20개의 이미지를 선정하여 4개의 주조색채를 추출한 총 80개의 색채데이터이다. 이어서 <표 25>와 <표 26>은 양성성의 주조 색채를 색상과 색조로 구분지어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24> 젠더리스 양성성에 나타난 주조색 팔레트

| 이미지 | 주조색 | | | | 이미지 | 주조색 | | | |
|-----|-------------|---------------|---------------|---------------|-----|-------------|---------------|---------------|---------------|
| | | | | | | | | | |
| | KS 10R 9/1 | KS 10YR 7/1 | KS 5RP 3/1 | KS 10YR 8/1 | | KS 2.5P 9/2 | KS 10PB 2/2 | KS 5P 6/2 | KS 7.5YR 6/4 |
| | | | | | | | | | |
| | KS 5PB 2/1 | KS 5PB 9/1 | KS 5P 7/1 | KS 7.5P 8/2 | | KS 5R 6/1 | KS 10R 4/1 | KS 1.25YR 5/2 | KS 2.5YR 6/2 |
| | | | | | | | | | |
| | KS N2 | KS 5PB 6/1 | KS 1.25PB 4/2 | KS 10B 5/1 | | KS 10P 9/1 | KS 5YR 7/1 | KS 5YR 4/2 | KS 3.75YR 5/2 |
| | | | | | | | | | |
| | KS N3 | KS 10B 8/1 | KS 2.5YR 7/2 | KS 1.25YR 7/2 | | KS 5Y 2/1 | KS 8.75YR 2/2 | KS 1.25Y 3/2 | KS 10YR 4/1 |
| | | | | | | | | | |
| | KS N2 | KS 5PB 4/1 | KS 10BG 3/1 | KS 5B 3/1 | | KS N9 | KS 5PB 8/4 | KS 5GY 7/1 | KS 1.25PB 2/2 |
| | | | | | | | | | |
| | KS 10B 2/1 | KS N9 | KS N4 | KS 10YR 5/1 | | KS 10PB 9/1 | KS 5PB 2/1 | KS 8.75R 5/4 | KS 8.75RP 6/2 |
| | | | | | | | | | |
| | KS 5PB 2/1 | KS 8.75PB 7/2 | KS 6.25PB 4/2 | KS 6.25PB 5/2 | | KS 10PB 2/1 | KS 10P 7/1 | KS 7.5YR 5/2 | KS 10YR 6/1 |
| | | | | | | | | | |
| | KS N2 | KS 5PB 4/1 | KS 10BG 3/1 | KS 5B 3/1 | | KS 5PB 2/1 | KS 5RP 7/1 | KS 5R 5/2 | KS 6.25PB 5/4 |
| | | | | | | | | | |
| | KS N2 | KS N9 | KS N4 | KS 6.25YR 6/4 | | KS 10PB 2/1 | KS 5PB 9/1 | KS 10PB 7/1 | KS 5R 5/14 |
| | | | | | | | | | |
| | KS 10YR 9/1 | KS 7.5YR 4/4 | KS 10YR 8/1 | KS 5YR 5/4 | | KS 5PB 2/1 | KS 5RP 9/1 | KS 10P 7/1 | KS 2.5R 7/4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25> 양성성의 색상 빈도 분포

| 색상 단위 | R | YR | Y | GY | G | BG | B | PB | P | RP | N | 합계 (%) |
|-----------|-------------|------------|------------|-------------|-----------|------------|-------------|--------------|-------------|----------|--------------|---------------|
| 1.25 | 0 | 2 | 1 | 0 | 0 | 0 | 0 | 2 | 0 | 0 | 0 | 5 (6.25) |
| 2.5 | 1 | 2 | 0 | 0 | 0 | 0 | 0 | 0 | 1 | 0 | 0 | 4 (5) |
| 3.75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1.25) |
| 5 | 3 | 3 | 1 | 1 | 0 | 0 | 2 | 11 | 1 | 3 | 0 | 25 (31.25) |
| 6.25 | 0 | 1 | 0 | 0 | 0 | 0 | 0 | 3 | 1 | 0 | 0 | 5 (6.25) |
| 7.5 | 0 | 2 | 0 | 0 | 0 | 0 | 0 | 0 | 1 | 0 | 0 | 3 (3.75) |
| 8.75 | 1 | 2 | 0 | 0 | 0 | 0 | 0 | 1 | 0 | 1 | 0 | 5 (6.25) |
| 10 | 2 | 7 | 0 | 0 | 0 | 2 | 3 | 5 | 3 | 0 | 0 | 22 (27.5) |
| 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12.5) |
| 합계 (%) | 7 (8.75) | 20 (25) | 2 (2.5) | 1 (1.25) | 0 (0%) | 2 (2.5) | 5 (6.25) | 22 (27.5) | 7 (8.75) | 4 (5) | 10 (12.5) | 80 (100%) |

<표 25>에 나타난 양성성의 색상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5단위가 31.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단위가 27.5%, 1.25와 6.25 그리고 8.75단위가 6.2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색상의 경우에는 퍼플블루(PB)가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옐로우레드(YR)가 25%, 무채색(N)이 12.5%, 레드(R)와 8.75%, 퍼플(P)이 8.75%로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 색상은 13.75%의 KS 5 PB이며 다음으로는 25%를 나타낸 KS 10 YR으로 분석됐다.

<표 26>은 양성성의 색조 빈도 분포를 나타낸 결과이다. 채도의 경우 저채도의 1단위가 52.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2단위가 23.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4단위가 8.75%로 나타남으로 저채도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명도의 경우에는 2단위가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단위가 15%, 5단위가 13.7%, 4와 9단위가 각각 12.5%의 순으로 나타나 저명도와 중명도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무채색(N)의 경우 N2가 5%, N9가 3.75%, N4가 2.5%, N3가 1.25순으로 나타나 그레이스케일은 다양한 명도의 범주에 고르게 분포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양성성의 색채는 다양한 컬러의 활용이 나타났지만

저채도와 저명도, 중명도의 탁한 색조가 주를 이루어서 전체적인 배색이 차분하고 정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접 색조로 구성된 톤온톤 배색을 주로 하여 조화로우며 안정적인 이미지가 느껴지는 컬러 팔레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양성성의 색채는 양성의 특질을 모두 혼재하는 의복의 형태임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탈피하고 남성적 디자인의 요소를 대입하여 성의 모호성과 새로운 공존의 시도를 행함으로 색채 또한 모호성이 큰 저채도와 저명도의 탁한 색조를 사용하여 색채의 뚜렷한 구분이 없이 무채색에 가까운 톤의 배색을 주로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26> 양성성의 색조 빈도 분포

| 채도 명도 | 0 | 1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N | 합계 (%) |
|-----------|-----------|--------------|---------------|-------------|-------------|-----------|-----------|-----------|-------------|-----------|--------------|---------------|
| 2 | 0 | 9 | 3 | 1 | 1 | 0 | 0 | 0 | 0 | 0 | 0 | 14 (17.5) |
| 3 | 0 | 5 | 1 | 0 | 0 | 0 | 0 | 0 | 0 | 0 | 0 | 6 (7.5) |
| 4 | 0 | 5 | 3 | 0 | 0 | 0 | 0 | 0 | 0 | 0 | 0 | 8 (10) |
| 5 | 0 | 2 | 5 | 3 | 0 | 0 | 0 | 0 | 0 | 0 | 0 | 11 (13.75) |
| 6 | 0 | 3 | 2 | 1 | 0 | 0 | 0 | 0 | 0 | 0 | 0 | 6 (7.5) |
| 7 | 0 | 8 | 3 | 1 | 0 | 0 | 0 | 0 | 0 | 0 | 0 | 12 (15) |
| 8 | 0 | 3 | 1 | 1 | 0 | 0 | 0 | 0 | 0 | 0 | 0 | 5 (6.25) |
| 9 | 0 | 7 | 1 | 0 | 0 | 0 | 0 | 0 | 0 | 0 | 0 | 8 (10) |
| 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12.5) |
| 합계 (%) | 0 (0%) | 42 (52.5) | 19 (23.75) | 7 (8.75) | 1 (1.25) | 0 (0%) | 0 (0%) | 0 (0%) | 1 (1.25) | 0 (0%) | 10 (12.5) | 80 (100%) |

3. 유희성

유희성의 사전적 의미는 오락과 유희처럼 그 자체로서 흥미를 가지게 되는 활동을 총칭하나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에서는 실제하거나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 자유를 의미한다. 이처럼 유희성은 즐거움과 재미를 본질로 삼아 반고전주의적 경향에 힘입어 성, 연령, 사회적 역할에서의 해방과 일탈의 쾌감, 자유의 감정, 유희 충동의 발산을 표출한다⁸⁴).

1) 표현 특성

현대 패션에서 유희성의 조형적 특성으로는 의복 형태의 왜곡, 과장, 축소와 같은 부조화와 직물 이외의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 그리고 성인복에 유아적 요소의 도입, 마지막으로 남녀복의 혼용이 있다. 이들은 일상적 규칙의 위반을 통하여 외설을 강조하고 모순의 부조화로 인한 놀라움과 쾌감, 그리고 우월감을 느끼도록 하여 재미와 쾌락적 요소를 표현한다⁸⁵).

폼데가르송(Comme des Garçons)은 테일러드 코트를 세로로 절개하여 이너로 착용한 원피스를 반쪽만 드러내고 어깨와 허리선을 끈으로 묶어서 코트와 고정하여 기존의 의복에서는 볼 수 없던 의외성으로 유희 충동을 발산하였다(그림 45).

<그림 46>의 메종 마르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는 테일러드 수트의 팔을 제외한 몸통 부분을 홀터 탑으로 대처하여 실제 수트의 실루엣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주는 동시에 상의에 그려진 말과 자연에서 온 사물들의 이미지로 수트와는 이질적인 유아틱한 색채와 이미지를 통해 성인복에서의 유아적인 유희성을 나타냈다.

84) 김지혜, 이연희(2016). op.cit., pp.910.

85) 김정은, 이재정(2004). 현대 패션에 표현된 키덜트적 유희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4(1), p.94.

자크 뤼스(Jacquemus) 역시 테일러스 수트에 단면을 전부 없애고 가슴과 골반을 포장하듯 매듭지어서 마치 사탕처럼 표현하였으며 정장 바지 위에 한쪽 면만 짧은 미니스커트를 매치함으로써 남성성과 함께 반고전주의적 성 역할을 거부하는 일종의 자유의 감정을 발산하는 시도로 나타났다(그림 47).

언더 커버(Undercover)는 <그림 48>과 같이 체크무늬의 고전적인 트렌치 코트를 변형하여 몸통 부분을 과감하게 없애고 백팩의 스트링을 활용하여 여성의 가슴을 가려 상의의 뒷면과 연결하여 고정하는 역할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전통적인 것을 거부함으로써 풍자적 요소를 담아 해방과 일탈의 쾌감을 표현했다.



<그림 45>

Comme des
Garçons 2011 F/W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5)



<그림 46>

Maison Martin
Margiela 2014 S/S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5)



<그림 47>

Jacquemus
2015 F/W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5)



<그림 48>

Undercover
2016 S/S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5)

2) 색채

<표 27>의 2011 F/W 콤 데 가르송의 추출색상표를 살펴보면 블루(B) 88.07%, 옐로우레드(YR) 10.53%, 퍼플블루(PB) 0.74% 순으로 나타난 것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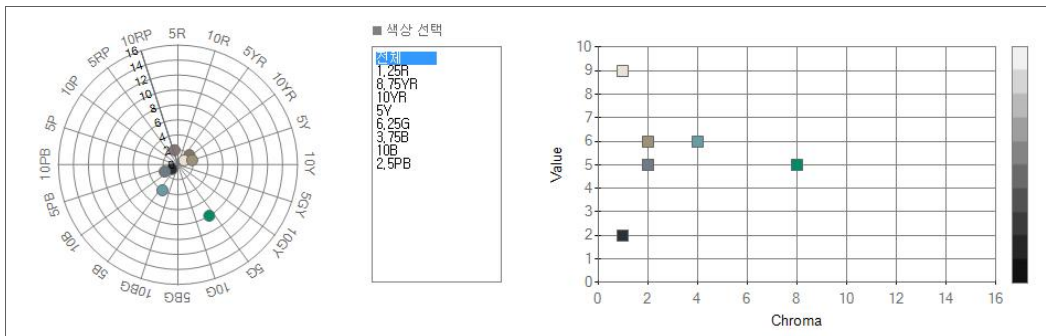
수 있다. 주조색인 KS 10B 2/1는 전체 색상의 8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파랑색을 기조로한 저명도, 저채도의 컬러로 그레이 톤에 가까운 색채를 띠고 있으며 비대칭적 유희성의 의상에 색채의 단조로움을 주어 젠더리스적인 디자인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표 28).

<표 27> Comme des Garçons 2011 F/W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10B 2/1 | 43 | 50 | 55 | 87.67 |
| | | KS 10YR 9/1 | 234 | 226 | 213 | 10.38 |
| | | KS 2.5PB 5/2 | 112 | 123 | 134 | 0.74 |
| | | KS 5Y 6/2 | 156 | 147 | 121 | 0.65 |
| | | KS 3.75B 6/4 | 104 | 156 | 166 | 0.4 |
| | | KS 8.75YR 5/2 | 136 | 118 | 102 | 0.15 |
| | | KS 6.25G 5/8 | 0 | 140 | 102 | 0 |
| | | KS 1.25R 5/2 | 137 | 116 | 118 | 0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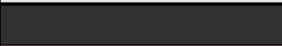







<표 28> Comme des Garçons 2011 F/W 추출색상분포



<표 29>의 2014 S/S 메종 마르틴 마르지엘라의 추출색상은 다음과 같다. 무채색의 블랙이 7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포인트 컬러로 활용된 퍼플(P) 14.05%, 레드퍼플(RP) 5.95% 퍼플블루(PB) 2.3%, 레드(R) 1.01% 순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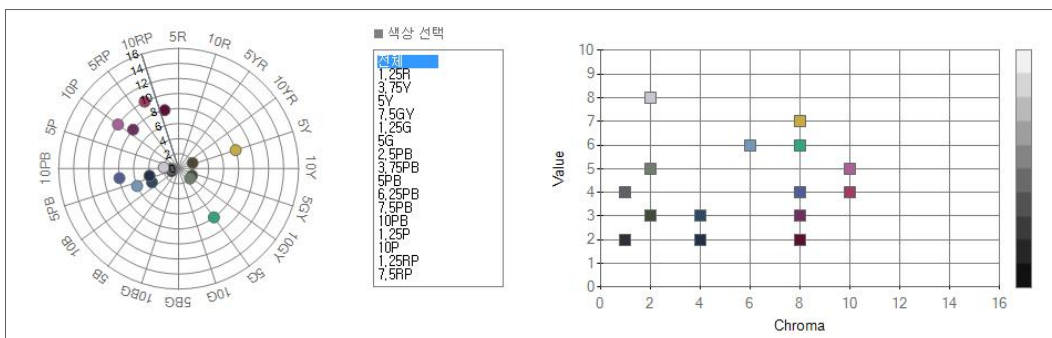
났다. <표 30>과 같이 색채분포도를 살펴보면 양성성 중 남성성을 나타내는 아이템인 수트에는 중·저명도와 저채도가 쓰이고 유희성을 나타내는 자수의 색채에는 다소 높은 채도와 증명도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유희적인 요소에는 I.R.I 이미지 스케일의 동적인 범주와 가까운 ‘경쾌한’ 이미지에 해당하는 색채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고 실제 메종 마르틴 마르지엘라의 의상에서 KS 10P 7/8의 색채를 살펴보면 고명도의 고채도, 그리고 동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난색계열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 29> Maison Martin Margiela 2014 S/S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N2 | 49 | 49 | 49 | 74.79 |
| |  | KS 10P 7/8 | 214 | 155 | 199 | 10.92 |
| |  | KS 10P 4/1 | 102 | 94 | 100 | 3.13 |
| |  | KS 2.5RP 6/12 | 214 | 112 | 173 | 2.92 |
| |  | KS 10PB 2/1 | 50 | 48 | 56 | 2.03 |
| |  | KS 1.25RP 3/2 | 85 | 66 | 79 | 1.54 |
| |  | KS 10RP 5/6 | 167 | 103 | 113 | 1.49 |
| |  | KS 8.75R 2/2 | 65 | 43 | 42 | 1.01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30> Maison Martin Margiela 2014 S/S 추출색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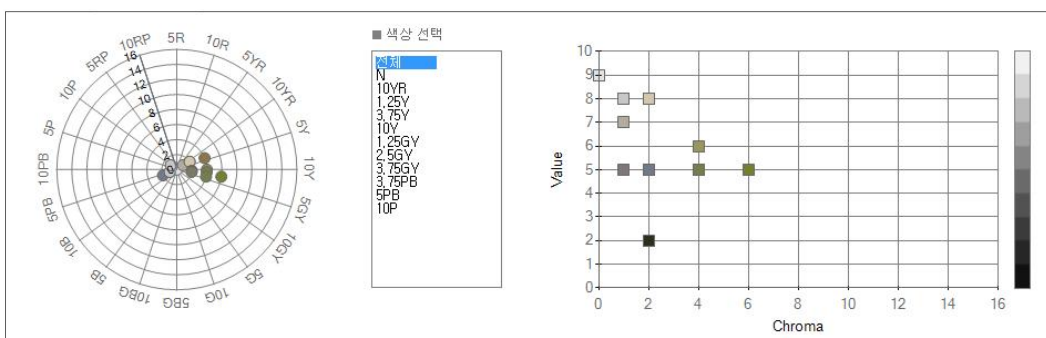
2015 F/W 자크뫼스의 추출 색상은 <표 31>과 같으며 그린옐로우(GY) 89.21%, 무채색(N) 8.86%, 옐로우(Y) 1.7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톤의 그린옐로우를 기조로한 의상으로 내추럴한 색채를 띠지만 의상의 실루엣은 과격적인 의외성을 담고 있어 유희적인 요소를 전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표 32). 이는 유희성에서 젠더리스의 여성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비교적 가벼운 색채의 사용은 지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반고전주의의 탈피를 시도한 유희적인 의상에 내추럴한 컬러를 활용함으로써 재미와 오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성의 해방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 Jacquemus 2015 F/W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1.25GY 2/2 | 46 | 47 | 31 | 89.12 |
| | | KS N9 | 227 | 227 | 227 | 8.86 |
| | | KS 10Y 6/4 | 153 | 150 | 96 | 1.33 |
| | | KS 1.25Y 8/2 | 213 | 198 | 174 | 0.24 |
| | | KS 10YR 7/1 | 181 | 172 | 161 | 0.18 |
| | | KS 2.5GY 5/6 | 119 | 127 | 48 | 0.09 |
| | | KS 1.25Y 8/2 | 213 | 198 | 174 | 0.09 |
| | | KS 3.75Y 5/4 | 139 | 119 | 74 | 0.05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32> Jacquemus 2015 F/W 추출색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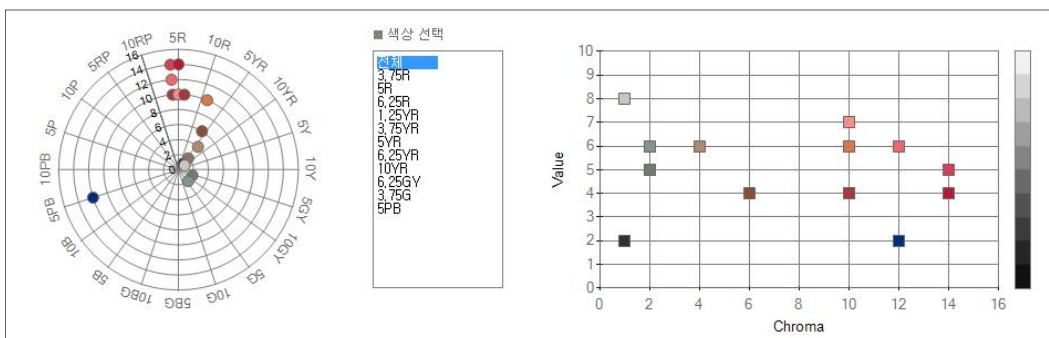
<표 33>의 2016 S/S 언더커버의 색채를 살펴보면 옐로우레드(YR)가 94.45%, 레드(R)가 5.4%로 난색의 색채가 주를 이룬다. 60.63%의 비율을 차지한 KS 10YR 8/1는 노랑을 기조로 한 고명도, 저채도의 베이지 색상으로 은은하고 편안한 이미지의 색채이며 고채도의 레드 계열을 사용하여 상반된 이미지를 더했다. <표 34>의 추출색상분포에서 보면, 실제와 일상에 가까운 아이템의 색채는 증명도와 저채도의 분포를, 왜곡을 나타낸 아이템에서는 증명도와 고채도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순색의 사용 여부에 따라 율동성이 더해지고 유희적인 자극에 관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3> Undercover 2016 S/S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10YR 8/1 | 207 | 199 | 187 | 60.63 |
| | | KS 5YR 2/1 | 57 | 47 | 43 | 22.43 |
| | | KS 6.25YR 6/4 | 178 | 139 | 111 | 6.21 |
| | | KS 3.75R 6/12 | 235 | 105 | 111 | 4.9 |
| | | KS 6.25YR 5/2 | 138 | 117 | 104 | 4.65 |
| | | KS 3.75YR 4/6 | 138 | 81 | 51 | 0.53 |
| | | KS 5R 7/10 | 252 | 141 | 136 | 0.38 |
| | | KS 6.25R 4/10 | 166 | 59 | 58 | 0.12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34> Undercover 2016 S/S 추출색상분포



다음 <표 35>는 젠더리스 컬렉션에 나타난 유희성의 의상 중 20개의 이미지를 선정하여 4개의 주요 색채를 추출한 총 80개의 색채 데이터이다. 이어서 <표 36>과 <표 37>은 유희성의 주요 색채를 색상과 색조로 구분지어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35> 젠더리스 유희성에 나타난 주조색 팔레트

| 이미지 | 주조색 | | | | 이미지 | 주조색 | | | |
|-----|---------------|----------------|---------------|---------------|-----|---------------|---------------|---------------|---------------|
| | KS 10B 2/1 | KS 10YR 9/1 | KS 2.5PB 5/2 | KS 5Y 6/2 | | KS 10YR 8/1 | KS 5YR 2/1 | KS 6.25YR 6/4 | KS 3.75R 6/12 |
| | KS 10YR 9/1 | KS N2 | KS N4 | KS 2.5Y 7/6 | | KS 5R 5/6 | KS 5R 7/6 | KS 1.25R 3/4 | KS 2.5RP 8/6 |
| | KS 5YR 2/1 | KS 5B 9/1 | KS 7.5R 5/8 | KS 3.75Y 8/8 | | KS 10PB 9/1 | KS 10P 7/1 | KS N2 | KS 10PB 8/1 |
| | KS 7.5PB 2/4 | KS 8.75PB 4/10 | KS 10R 9/1 | KS 6.25P 6/2 | | KS N9 | KS N7 | KS 5YR 8/1 | KS 10R 4/1 |
| | KS N2 | KS 5R 9/2 | KS 5R 4/10 | KS 10P 4/2 | | KS 6.25YR 3/4 | KS 6.25YR 5/4 | KS 7.5YR 6/4 | KS 8.75YR 7/2 |
| | KS N2 | KS 10P 7/8 | KS 10P 4/1 | KS 2.5RP 6/12 | | KS 1.25Y 8/12 | KS 5P 2/1 | KS 7.5PB 7/8 | KS 7.5YR 5/10 |
| | KS 7.5PB 2/2 | KS 10R 8/1 | KS 1.25R 4/12 | KS 5PB 2/2 | | KS N9 | KS N2 | KS 10YR 7/1 | KS 1.25Y 8/2 |
| | KS 7.5PB 2/2 | KS 10R 8/1 | KS 1.25R 4/12 | KS 5PB 2/2 | | KS 5PB 9/1 | KS 5Y 9/4 | KS 3.75PB 8/4 | KS 5PB 7/4 |
| | KS 5PB 2/1 | KS 1.25P 8/2 | KS 10PB 4/1 | KS 10P 5/10 | | KS N2 | KS 8.75YR 7/4 | KS 10YR 6/4 | KS 10YR 7/1 |
| | KS 6.25PB 2/2 | KS N8 | KS 7.5PB 2/2 | KS 10PB 4/1 | | KS 10PB 2/1 | KS 5P 7/1 | KS 10P 9/1 | KS 5R 5/4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36> 유희성의 색상 빈도 분포

| 색상 단위 | R | YR | Y | GY | G | BG | B | PB | P | RP | N | 합계 (%) |
|-----------|--------------|------------|------------|-----------|-----------|-----------|------------|---------------|--------------|------------|---------------|---------------|
| 1.25 | 3 | 0 | 2 | 0 | 0 | 0 | 0 | 1 | 1 | 0 | 0 | 7 (8.75) |
| 2.5 | 0 | 0 | 1 | 0 | 0 | 0 | 0 | 1 | 0 | 2 | 0 | 4 (5) |
| 3.75 | 1 | 0 | 1 | 0 | 0 | 0 | 0 | 1 | 0 | 0 | 0 | 3 (3.75) |
| 5 | 5 | 3 | 2 | 0 | 0 | 0 | 1 | 4 | 2 | 0 | 0 | 17 (21.25) |
| 6.25 | 0 | 3 | 0 | 0 | 0 | 0 | 0 | 1 | 1 | 0 | 0 | 5 (6.25) |
| 7.5 | 1 | 3 | 0 | 0 | 0 | 0 | 0 | 6 | 0 | 0 | 0 | 9 (11.25) |
| 8.75 | 0 | 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2.5) |
| 10 | 4 | 6 | 0 | 0 | 0 | 0 | 1 | 5 | 6 | 0 | 0 | 22 (27.5) |
| 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 | 11 (13.75) |
| 합계 (%) | 14 (17.5) | 16 (20) | 6 (7.5) | 0 (0%) | 0 (0%) | 0 (0%) | 2 (2.5) | 19 (23.75) | 10 (12.5) | 2 (2.5) | 11 (13.75) | 80 (100%) |

<표 36>에 나타난 유희성의 색상 빈도수를 살펴보면, 색상의 단위 중 10단위가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단위가 21.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비교적 기본 색상 중 원색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은 퍼플블루(PB)가 23.75%로 가장 높게 출현했고 그 다음으로는 옐로우레드(YR)가 2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레드(R)가 17.5%, 무채색(N)이 13.75%, 퍼플(P)이 12.5% 순으로 나타나 유희성의 주조색으로는 푸른색 기조와 붉은색 기조를 다양하게 가진 퍼플 컬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일반적이지 않으며 특별함을 나타내는 색채의 이미지를 가진 보라색의 출현은 젠더리스 유희성에서 나타난 성 역할에서의 해방과 일탈의 쾌감 및 자유의 감정을 대신하는 컬러로 분석 할 수 있다. 또한 밝고 가벼운 유아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대표 컬러인 옐로우 색채는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이는 연령과 사회적 역할에서의 해방을 나타내는 반고전주의적 사상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37> 유희성의 색조 빈도 분포

| 채도 명도 | 0 | 1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N | 합계 (%) |
|-----------|-----------|--------------|--------------|------------|----------|----------|----------|-------------|-----------|-----------|---------------|---------------|
| 2 | 0 | 6 | 6 | 1 | 0 | 0 | 0 | 0 | 0 | 0 | 0 | 13 (16.25) |
| 3 | 0 | 0 | 0 | 2 | 0 | 0 | 0 | 0 | 0 | 0 | 0 | 2 (2.5) |
| 4 | 0 | 4 | 1 | 0 | 0 | 0 | 2 | 2 | 0 | 0 | 0 | 9 (11.25) |
| 5 | 0 | 0 | 1 | 2 | 1 | 1 | 2 | 0 | 0 | 0 | 0 | 7 (8.75) |
| 6 | 0 | 0 | 2 | 3 | 0 | 0 | 0 | 2 | 0 | 0 | 0 | 7 (8.75) |
| 7 | 0 | 4 | 1 | 2 | 2 | 2 | 0 | 0 | 0 | 0 | 0 | 11 (13.75) |
| 8 | 0 | 5 | 2 | 1 | 1 | 1 | 0 | 1 | 0 | 0 | 0 | 11 (13.75) |
| 9 | 0 | 7 | 1 | 1 | 0 | 0 | 0 | 0 | 0 | 0 | 0 | 9 (11.25) |
| 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 | 11 (13.75) |
| 합계 (%) | 0 (0%) | 26 (32.5) | 14 (17.5) | 12 (15) | 4 (5) | 4 (5) | 4 (5) | 5 (6.25) | 0 (0%) | 0 (0%) | 11 (13.75) | 80 (100%) |

유희성의 색조 빈도 분포는 <표 37>과 같이 2단계의 명도가 1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7, 8단위가 13.75%, 4, 9단위가 11.2%순으로 나타났다. 채도는 1단위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17.5%의 2단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4단위가 15%, 이 후의 중채도와 고채도는 약 10%씩의 비율로 나타나 의상의 바탕 컬러는 저채도로, 의상의 포인트 컬러는 고채도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채색의 경우는 N2가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의 영역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위의 색조와 색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젠더리스 유희성의 색채는 원색의 비율이 높은 퍼플과 옐로우 계열을 활용하여 악센트 컬러로 나타냈고 베이스의 색채인 무채색을 비롯하여 저채도, 저명도와 함께 포인트 컬러와 배색하여 색채의 대조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유희적 충동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됐다.

4. 관능성

관능성은 에로티시즘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표현⁸⁶⁾이며 인간의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본능적 쾌락에 의해 의복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왔다. 또한 관능미는 자기 대상화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몸을 욕망과 소비의 대상으로 하는 나르시즘적 쾌락에 의해 성적 대상화된 이미지를 표출하며 객체로서 성적 대상화된 이미지와 주체로서 자유로우며 독립적인 강인한 여성 인체 이미지로 나타난다⁸⁷⁾.

1) 표현 특성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관능성의 표현 특성으로는 직접적으로 신체를 노출하여 관능적인 부위를 강조하는 방법,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의 라인을 강조하여 시각적인 인지와 연상 심리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방법, 신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시스루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은밀하게 나타내는 방법⁸⁸⁾, 속옷을 노출시키거나 겹옷화하는 방법⁸⁹⁾ 등을 통해 성적 상징을 노출했다.

<그림 49>의 에르메스(Hermès)는 테일러드 수트에 상의가 깊게 파인 브이넥의 속이 비치는 쉬폰 소재를 매치하여 여성의 가슴이 그대로 비치도록 하였으며 허리 부분의 코르셋을 연상하게 하는 가죽을 덧대고 이중으로 벨트를 사용하여 허리를 조임으로써 굴곡진 상체 실루엣을 관능적으로 드러냈다.

장 폴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그림 50>과 같이 테일러드 자켓 안에 얇고 신축성이 좋은 특수 섬유인 라이크라(lycra) 섬유에 다양한 이미지를 프

86) 김주영(2002). op.cit., p.72.

87) 김소영(2001).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이상적 신체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9.

88) 안광숙(2018). op.cit., p.1552.

89) 김주영(2002). op.cit., p.72.

린트한 티를 매치하여 마치 맨 몸에 문신을 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 대상화의 이미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주체로서의 자유로우며 독립적인 강인한 여성성을 나타낸다.

라코스테(Lacoste)는 테일러스 수트의 봉제선과 주머니 부분을 제한 나머지를 비치는 오간자(organza) 소재를 사용하여 수트 안의 여성의 인체를 과감하게 노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성 실루엣의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여성을 매니시한 이미지로 포장하여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성을 강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체를 노출함으로써 여성의 신체의 아름다움은 물론 억압된 성 역할에 관한 자유로움을 표출하여 더욱 당당한 여성의 이미지가 나타난다(그림 51).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는 더블 버튼의 클래식 테일러스 수트를 가로로 절개한 듯 디자인하여 상의는 배꼽이 보이도록 짧게 하고 하의는 바지 위에 치마를 겹쳐 입은 듯이 자켓이 반으로 잘려나간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나타냈다. 그 결과 여성의 허리 라인과 힙 라인이 더욱 부각되는 관능성이 나타났다(그림 52).



<그림 49>

Hermès
2011 S/S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5)



<그림 50>

Jean Paul Gaultier
2012 S/S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5)



<그림 51>

Lacoste
2014 S/S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5)



<그림 52>

Salvatore
Ferragamo 2014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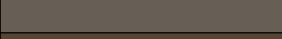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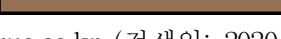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5)

2) 색채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 중 관능성의 색상 추출은 스킨 컬러의 데이터를 일정 포함하여 도출하였다. 이유는 관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노출의 정도가 다른 표현 특성보다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루나 레이스와 같은 의상의 디자인 영역에서의 노출은 컬러 추출에 포함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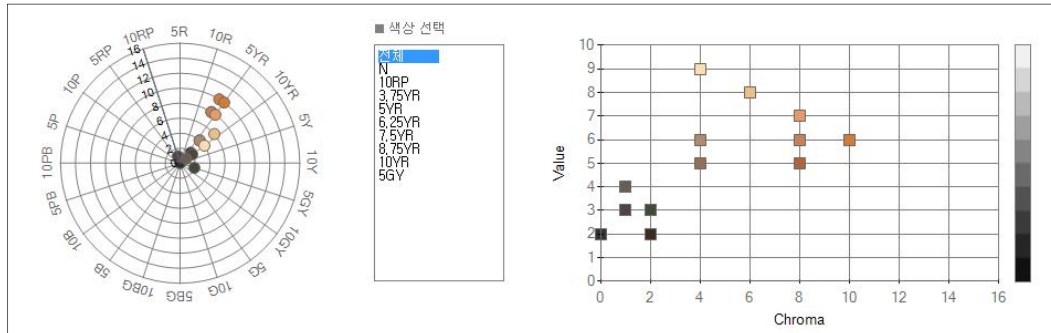
<표 38>과 같이 2011 S/S 에르메스에 나타난 추출색상은 무채색(N)이 78.92%, 옐로우레드(YR)가 19.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조색은 명도가 2단위인 KS N2로 블랙 컬러를 띠고 있어 테일러스 수트의 모던하고 딱딱한 이미지의 형성을 돕는다. 반면 가슴부위의 깊은 절개와 가슴을 채우는 쉬폰으로 약 8% 정도의 스킨의 비침이 나타나 비교적 옐로우레드 계열의 색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표 39).

<표 38> Hermès 2011 S/S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N2 | 49 | 49 | 49 | 78.92 |
| |  | KS 10YR 9/4 | 254 | 222 | 175 | 5.45 |
| |  | KS 10YR 4/1 | 103 | 95 | 85 | 4.57 |
| |  | KS 10YR 3/2 | 84 | 69 | 53 | 2.55 |
| |  | KS 5YR 7/8 | 230 | 156 | 100 | 2.55 |
| |  | KS 7.5YR 2/2 | 62 | 45 | 35 | 2.18 |
| |  | KS 3.75YR 5/8 | 177 | 102 | 55 | 1.2 |
| |  | KS 6.25YR 5/4 | 151 | 113 | 86 | 1.15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39> Hermès 2011 S/S추출색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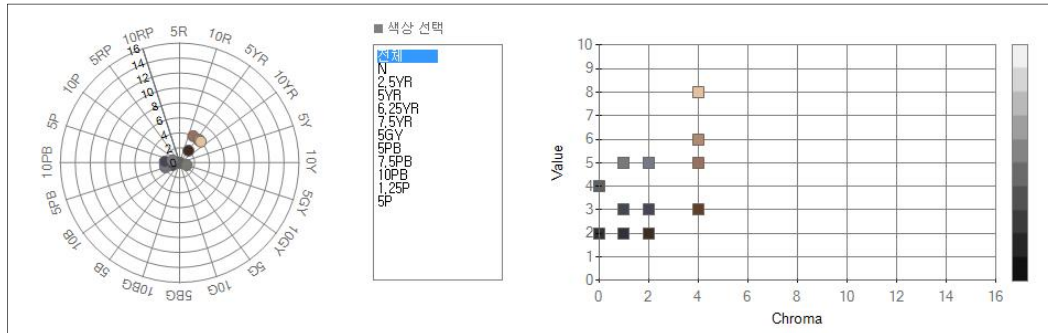
<표 40>, <표 41>의 2012 S/S 장 폴 고티에의 추출색상은 다음과 같으며 옐로우레드(YR)는 스킨색상을 포함하여 하의의 컬러에서 추출된 것으로 사료되어 비율은 56.83%로 나타났으며, 무채색(N)은 41.91%로 나타났다. 자켓을 제외한 상의는 라이크라 섬유로 투명한 재질감을 나타냈으며 하의도 8레벨의 밝은 톤을 띠어 블랙 자켓과 대조되게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0> Jean Paul Gaultier 2012 S/S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7.5YR 8/4 | 230 | 193 | 158 | 50.45 |
| | | KS N2 | 49 | 49 | 49 | 33.77 |
| | | KS N4 | 96 | 96 | 96 | 8.14 |
| | | KS 6.25YR 6/4 | 178 | 139 | 111 | 2.92 |
| | | KS 2.5YR 5/4 | 154 | 112 | 94 | 1.77 |
| | | KS 5YR 2/2 | 63 | 44 | 37 | 1.05 |
| | | KS 10PB 2/1 | 50 | 48 | 56 | 0.78 |
| | | KS 6.25YR 3/4 | 98 | 63 | 40 | 0.64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41> Jean Paul Gaultier 2012 S/S 추출색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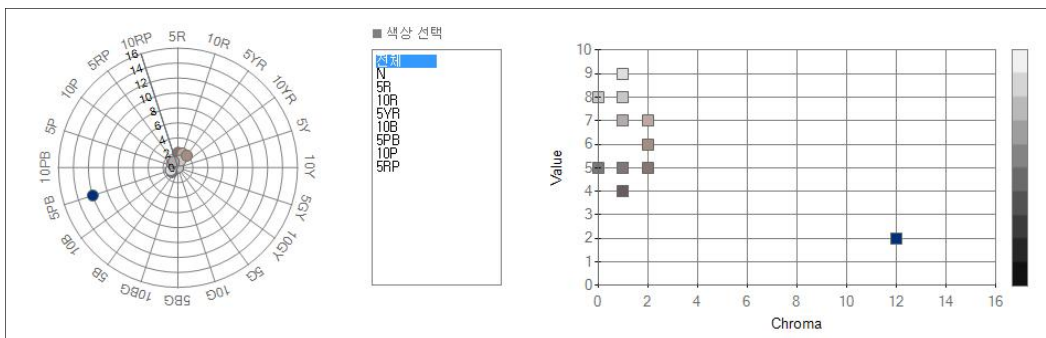
<표 42>의 2014 S/S 라코스테의 추출 색상은 52.9%를 차지한 KS 5RP 7/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퍼플블루(PB)가 40.28%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스킨 컬러가 약 2.55% 순으로 나타났다. 모던하고 깔끔한 화이트 톤의 매니시한 수트에 속이 비치는 오간자 소재를 활용하여 젠더리스적 관능성을 더한 이 의상은 <표 43>에서도 보듯 전체적인 명도의 단위가 7~9사이의 고명도 레벨을 띠고 있으나 반면 채도는 1~2 단위의 매우 낮은 저채도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순색의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젠더리스의 관능성이 나타난 의상의 경우 컬러의 이미지보다는 비치는 소재의 활용으로 신체의 직·간접적인 노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자인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 Lacoste 2014 S/S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5RP 7/1 | 179 | 171 | 174 | 52.9 |
| |  | KS 5PB 9/1 | 220 | 223 | 228 | 35.94 |
| |  | KS 5R 4/1 | 106 | 93 | 93 | 3.72 |
| |  | KS 5PB 8/1 | 197 | 200 | 204 | 2.53 |
| |  | KS 5PB 8/1 | 197 | 200 | 204 | 1.81 |
| |  | KS 5YR 6/2 | 165 | 143 | 130 | 1.07 |
| |  | KS 5R 5/2 | 138 | 116 | 115 | 0.97 |
| |  | KS 10R 7/2 | 191 | 169 | 162 | 0.51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43> Lacoste 2014 S/S 추출색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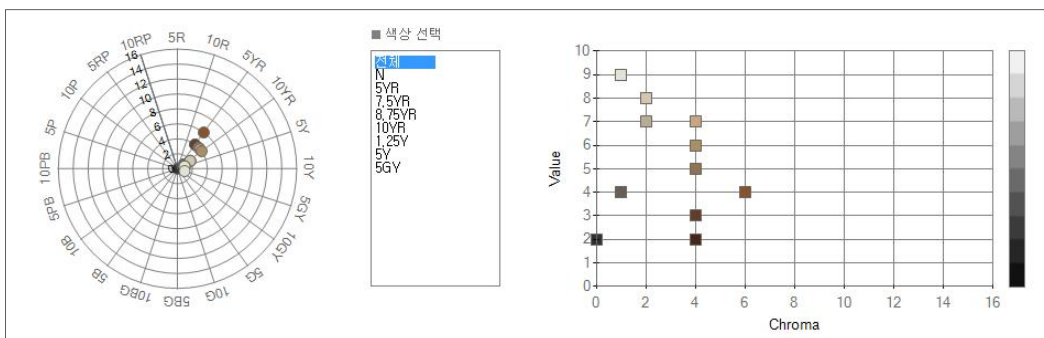
2014 S/S 살바토르 페레가모의 추출색상은 <표 44>와 같이 옐로우(Y)가 93.5%, 무채색(N)이 2.26%, 옐로우레드(YR)가 1.41% 순으로 나타났다. 주조색인 KS 5Y 9/1는 명도 9단계, 채도 1단계의 밝고 탁한 아이보리 계열로 수트의 전체 이미지를 내추럴하고 맑은 색채로 나타내고 있다(표 45). 반면 의상의 디자인은 허리선에서 수평으로 절개를 주어 허리 라인을 관능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의상의 색채 이미지와 상반된 연출을 하였으며 이러한 상이한 요소는 서로 다른 이미지의 부각을 시도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44> Salvatore Ferragamo 2014 S/S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5Y 9/1 | 232 | 227 | 210 | 37.55 |
| | | KS 5Y 9/1 | 232 | 227 | 210 | 20.83 |
| | | KS 5Y 9/1 | 232 | 227 | 210 | 19.41 |
| | | KS 1.25Y 8/2 | 213 | 198 | 174 | 10.91 |
| | | KS 1.25Y 8/2 | 213 | 198 | 174 | 2.82 |
| | | KS N2 | 49 | 49 | 49 | 2.26 |
| | | KS 1.25Y 7/2 | 186 | 172 | 149 | 1.98 |
| | KS 10YR 6/4 | 172 | 142 | 103 | 1.41 |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45> Salvatore Ferragamo 2014 S/S 추출색상분포



다음 <표 46>은 젠더리스 컬렉션에 나타난 관능성의 의상 중 20개의 이미지를 선정하여 4개의 주요 색채를 추출한 총 80개의 색채 데이터이다. 이어서 <표 47>과 <표 48>은 관능성의 주요 색채를 색상과 색조로 구분지어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46> 젠더리스 관능성에 나타난 주조색 팔레트

| 이미지 | 주조색 | | | | 이미지 | 주조색 | | | |
|-----|---------------|---------------|---------------|---------------|-----|---------------|---------------|---------------|---------------|
| | KS N2 | KS 1.25YR 9/2 | KS 2.5YR 8/4 | KS 1.25YR 7/4 | | KS 7.5PB 2/2 | KS 2.5Y 8/2 | KS 10YR 9/1 | KS 7.5PB 4/8 |
| | KS N2 | KS 10YR 9/4 | KS 10YR 4/1 | KS 10YR 3/2 | | KS 10PB 2/1 | KS 7.5PB 2/6 | KS 5RP 4/1 | KS 7.5YR 2/2 |
| | KS N2 | KS 2.5YR 7/4 | KS 10R 4/1 | KS 5YR 3/1 | | KS N4 | KS N2 | KS 5YR 7/1 | KS 5B 5/1 |
| | KS 7.5YR 8/4 | KS N2 | KS N4 | KS 6.25YR 6/4 | | KS N2 | KS 10R 8/1 | KS 1 10R 7/1 | KS 3.75YR 8/2 |
| | KS 5PB 2/1 | KS 10B 7/1 | KS 2.5YR 7/4 | KS 2.5YR 8/4 | | KS 6.25PB 2/2 | KS 8.75PB 9/2 | KS 6.25YR 7/2 | KS 10P 7/1 |
| | KS N2 | KS 5B 7/1 | KS 7.5R 7/4 | KS 3.75YR 9/2 | | KS 10RP 2/2 | KS 2.5YR 7/4 | KS 7.5YR 5/2 | KS 6.25YR 6/4 |
| | KS 8.75RP 2/2 | KS N9 | KS 1.25YR 5/4 | KS 5YR 7/1 | | KS N3 | KS 5RP 7/1 | KS N8 | KS 10R 5/2 |
| | KS 5RP 7/1 | KS 5PB 9/1 | KS 5R 4/1 | KS 5PB 8/1 | | KS 5PB 2/1 | KS 10R 7/2 | KS 10B 4/1 | KS 10B 3/1 |
| | KS 5Y 9/1 | KS 1.25Y 8/2 | KS 1.25Y 7/2 | KS N2 | | KS 10PB 9/1 | KS 10PB 7/1 | KS 10YR 2/1 | KS 10PB 8/1 |
| | KS 1.25P 2/2 | KS N9 | KS 10PB 4/8 | KS 1.25YR 5/4 | | KS 5PB 2/1 | KS 5R 7/1 | KS 8.75Y 6/2 | KS 6.25YR 5/2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47> 관능성의 색상 빈도 분포

| 색상 단위 | R | YR | Y | GY | G | BG | B | PB | P | RP | N | 합계 (%) |
|-----------|-----------|--------------|-------------|-----------|-----------|-----------|-------------|---------------|------------|-------------|--------------|---------------|
| 1.25 | 0 | 4 | 3 | 0 | 0 | 0 | 0 | 0 | 1 | 0 | 0 | 7 (8.75) |
| 2.5 | 0 | 5 | 1 | 0 | 0 | 0 | 0 | 0 | 0 | 0 | 0 | 6 (7.5) |
| 3.75 | 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2.5) |
| 5 | 2 | 3 | 1 | 0 | 0 | 0 | 2 | 5 | 0 | 3 | 0 | 16 (20) |
| 6.25 | 0 | 4 | 0 | 0 | 0 | 0 | 0 | 1 | 0 | 0 | 0 | 5 (6.25) |
| 7.5 | 1 | 3 | 0 | 0 | 0 | 0 | 0 | 2 | 0 | 0 | 0 | 6 (7.5) |
| 8.75 | 0 | 0 | 1 | 0 | 0 | 0 | 0 | 2 | 0 | 0 | 0 | 3 (3.75) |
| 10 | 5 | 5 | 0 | 0 | 0 | 0 | 3 | 5 | 1 | 2 | 0 | 21 (26.25) |
| 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4 | 14 (17.5) |
| 합계 (%) | 8 (10) | 26 (32.5) | 5 (6.25) | 0 (0%) | 0 (0%) | 0 (0%) | 5 (6.25) | 15 (18.75) | 2 (2.5) | 5 (6.25) | 14 (17.5) | 80 (100%) |

관능성의 색상 빈도는 <표 47>과 같이 10단위가 2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단위가 20%, 무채색이 17.5% 순으로 나타났다. 색상의 경우에는 옐로우 레드(RY)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퍼플블루(PB)가 18.75%, 레드(R)가 10%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린에 포함된 그린옐로우(GY)와 그린(G), 블루그린(BG)의 컬러는 도출이 되지 않았다. 이것으로 보아 소박하고 내추럴한 이미지의 초록색 계열은 주체적이며 독립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있는 색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붉은색을 기조로 한 레드와 옐로우레드는 성욕과 식욕을 유발하는 본능적인 컬러로 젠더리스의 관능성을 표현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표 48> 관능성의 색조 빈도 분포

| 채도 명도 | 0 | 1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N | 합계 (%) |
|-----------|-----------|--------------|------------|---------------|-------------|------------|-----------|-----------|-----------|-----------|--------------|--------------|
| 2 | 0 | 5 | 6 | 0 | 1 | 0 | 0 | 0 | 0 | 0 | 0 | 12 (15) |
| 3 | 0 | 2 | 1 | 0 | 0 | 0 | 0 | 0 | 0 | 0 | 0 | 3 (3.75) |
| 4 | 0 | 5 | 0 | 0 | 0 | 2 | 0 | 0 | 0 | 0 | 0 | 7 (8.75) |
| 5 | 0 | 1 | 3 | 2 | 0 | 0 | 0 | 0 | 0 | 0 | 0 | 6 (7.5) |
| 6 | 0 | 0 | 1 | 2 | 0 | 0 | 0 | 0 | 0 | 0 | 0 | 3 (3.75) |
| 7 | 0 | 10 | 3 | 5 | 0 | 0 | 0 | 0 | 0 | 0 | 0 | 18 (22.5) |
| 8 | 0 | 3 | 3 | 3 | 0 | 0 | 0 | 0 | 0 | 0 | 0 | 9 (11.25) |
| 9 | 0 | 4 | 3 | 1 | 0 | 0 | 0 | 0 | 0 | 0 | 0 | 8 (10) |
| 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4 | 14 (17.5) |
| 합계 (%) | 0 (0%) | 30 (37.5) | 20 (25) | 13 (16.25) | 1 (1.25) | 2 (2.5) | 0 (0%) | 0 (0%) | 0 (0%) | 0 (0%) | 14 (17.5) | 80 (100%) |

<표 48>에서처럼 관능성의 명도는 7단위가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단위가 15%, 8단위가 1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명도의 범주에 포함된 4, 5, 6단위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비교적 고명도와 저명도의 범주가 높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채도는 1단위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단위는 20%, 3단위는 16.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채도인 10~16단위의 범주에는 색상이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색과 같은 비비드한 톤의 순색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채색은 전체 색조의 17.5%로 나타나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이는 스킨 컬러와 대조되는 톤다운 된 어두운 컬러로 신체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대조 배색과 함께 독립적인 강한 여성성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5. 과장성

과장적 표현은 물체의 구조나 형상을 극대화함으로써 사실주의 회화나 조각에서처럼 물체의 색이나 형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미의식을 통하여 원래의 모습을 강조,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⁹⁰⁾. 조형적인 측면에서의 과장은 사물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으로 사물의 구조나 형태를 변형하여 주관적이고 창조적으로 재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형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1) 표현 특성

패션에서는 형태의 확장과 축소에 의한 왜곡적인 과장을 시작으로 변형에 의한 과장, 신체의 제약을 주는 물리적인 과장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통하여 시각적인 위압감을 주거나 선과 색의 배열로 인한 착시효과를 나타내는 패션의 형태도 과장형 표현 특성으로 볼 수 있다⁹¹⁾. 또한 길이의 확대에 의한 수직적 과장과 부피 및 면적의 확대에 의한 수평적 과장으로도 나타난다⁹²⁾.

<그림 53>의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는 정장 바지를 극대화하고 확대하여 표현했다. 이에 상의는 얇은 소재의 미니멀한 목티를 착용하여 여성의 신체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여성의 신체는 더욱 연약하고 가냘프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 부위를 강조하여 확대함으로써 반대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더욱 축소되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극적으로 표현되며 융합의 양성성보다는 부조

90) 이기열, 강병석(2007). 현대 패션의 과장된 인체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8(1), p.401.

91) 한승수(2010). 과장형 패션이 신체에 미친 영향에 관한연구: 유행의 강제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p.7.

92) 박선욱(2019). op.cit., p.40.

화의 양성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하이넥의 H-라인의 평면성이 강한 테일러드 코트에 기하학적인 무늬를 넣어 착시현상을 나타냈다. 이처럼 의상에 입체적 요소를 대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다각도화 하고 분절된 것과 같은 형상으로 표현하였으며 곡선의 요소를 감추고 직선화하여 더욱 견고해 보이도록 하였다(그림 54).

<그림 55>의 톰 브라운(Thom Browne)은 팔 길이를 확대하여 수직적 과장을 나타냈으며 이에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하여 밴드를 팔 위쪽 부위에 끼워 겨드랑이 아래쪽의 팔의 기장을 비정상적으로 길어보이도록 과장하였다. 그 결과 정상적인 의복의 형태를 벗어나서 기형적인 형태로 신체를 왜곡하여 기존의 관념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젠더리스적 디자인 표현 특성이 나타났다.

폼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은 <그림 56>과 같이 전체적으로 다크한 무드의 ‘몬스터’를 형상화한 느낌의 비정상적이고 드라마틱한 극단성을 나타냈으며 테일러드 재킷의 부피와 면적을 확대하여 수평적 과장과 함께 로퍼 슈즈를 매치해 베이직 하면서도 과장된 멋스러움을 표현했다.



<그림 53>

Maison Martin
Margiela 2011 S/S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8.)



<그림 54>

Issey Miyake
2011 F/W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8.)



<그림 55>

Thom Browne
2012 S/S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8.)



<그림 56>

Comme des Garçons
2014 F/W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8.)


2) 색채

2011 S/S 메종 마르틴 마르지엘라의 추출 색상은 <표 49>와 같이 퍼플(P)이 99.27%, 퍼플블루(PB)가 0.5%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이 의상에 사용된 주된 색채는 퍼플로 나타났다.

주조색 KS 1.25P 9/2을 살펴보면 색채의 데이터가 1.25p이므로 퍼플블루(PB)와 블루(B)의 경계 선상에 있는 푸른 기조의 보라색이며 명도는 9단계, 채도는 2단계에 있는 베리 페일(Vp) 톤의 푸른 보라색으로 나타났다. 하의의 경우 보다 다운된 라이트 그레이시(Ltg) 톤의 퍼플컬러로 나타나 수평형 과장을 하여 남성다움의 강인함을 부각한 하의는 경연감이 보다 높은 톤을, 여성성이 강조된 스키니한 상의는 경연감이 낮은 밝은 톤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50>과 같이 전체 추출색상분포는 중·고명도의 비교적 밝은 톤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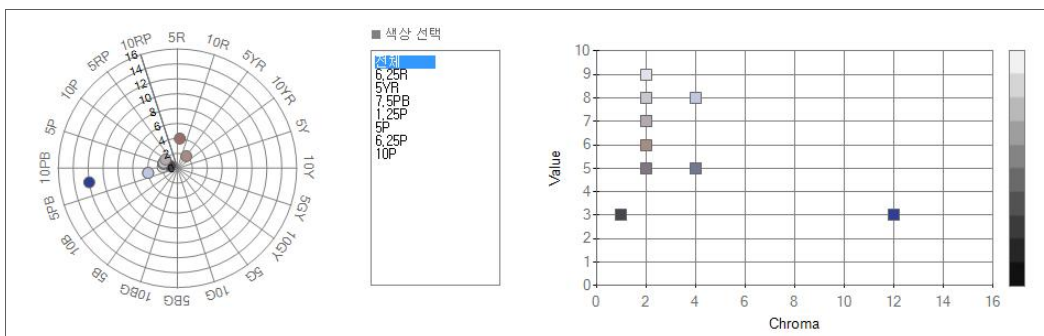
이 주를 이루며 채도 역시 4단계의 이하의 낮은 저채도를 사용하여 차분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표 49> Maison Martin Margiela 2011 S/S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1.25P 9/2 | 227 | 226 | 236 | 49.78 |
| | | KS 5P 7/2 | 177 | 171 | 182 | 25.68 |
| | | KS 6.25P 8/2 | 204 | 198 | 206 | 11.12 |
| | | KS 5P 3/1 | 75 | 70 | 78 | 6.86 |
| | | KS 5P 7/2 | 177 | 171 | 182 | 4 |
| | | KS 6.25P 5/2 | 128 | 118 | 130 | 1.47 |
| | | KS 7.5PB 3/12 | 48 | 63 | 149 | 0.5 |
| | | KS 10P 7/2 | 182 | 170 | 178 | 0.36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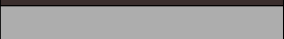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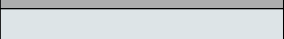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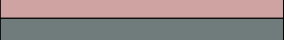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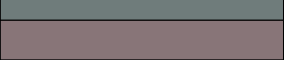
<표 50> Maison Martin Margiela 2011 S/S 추출색상분포



<표 51>에서 나타난 2011 F/W 이사이 미야케의 추출색상은 레드(R)가 73.85%, 무채색(N)이 21.53%, 블루(B)가 4.2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색상의 44.06%를 차지한 주조색 KS 7.5R 4/14는 순색의 빨강에서 주황색의 기미가 포함된 색채로 더욱 따뜻함이 느껴지는 워 톤의 레드이며 명도는 중명도, 채도는 16단계 중 14단계에 해당하는 순색에 가까운 고채도를 띄고 있어 강렬함이 나타난다. 이러한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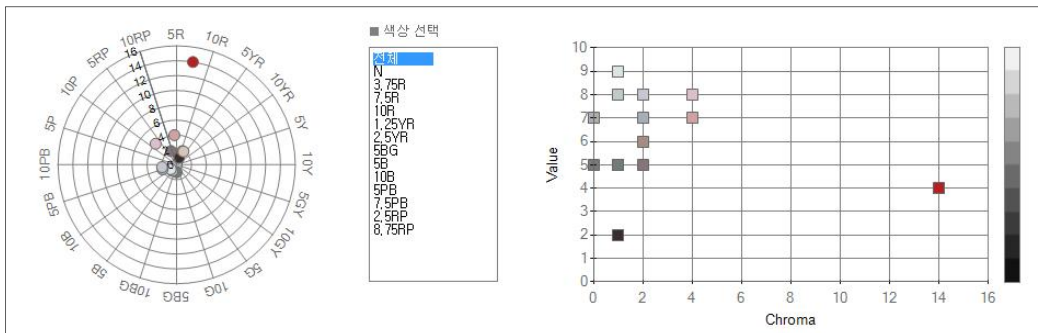
성이 강한 컬러는 여성의 신체를 다각도화하여 분절한 형태로 직선적 과장성을 나타내는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보조색의 KS 10R 2/1 경우 붉은색 계통의 저명도와 저채도를 사용하여 기하학적인 모양의 음각화를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상의 추출색상의 분포 <표 52>는 주조색의 레드를 제외한 모든 컬러는 저채도의 범주에 해당되며, 기하학적 패턴의 모양에 따라 음각화, 양각화가 이루어진 부분은 각각 저명도, 저채도로 분석된다.

<표 51> Issey Miyake 2011 F/W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7.5R 4/14 | 185 | 32 | 33 | 44.06 |
| |  | KS 10R 2/1 | 58 | 46 | 45 | 29.65 |
| |  | KS N7 | 173 | 173 | 173 | 21.53 |
| |  | KS 10B 9/1 | 221 | 228 | 231 | 4.24 |
| |  | KS 1.25YR 6/2 | 166 | 142 | 134 | 0.22 |
| |  | KS 3.75R 7/4 | 206 | 163 | 161 | 0.14 |
| |  | KS 5BG 5/1 | 111 | 124 | 123 | 0.05 |
|  | KS 8.75RP 5/2 | 136 | 117 | 120 | 0.05 |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52> Issey Miyake 2011 F/W 추출색상분포



<표 53>의 2012 S/S 톰 브라운의 추출색상은 무채색(N)이 75.2%, 옐로우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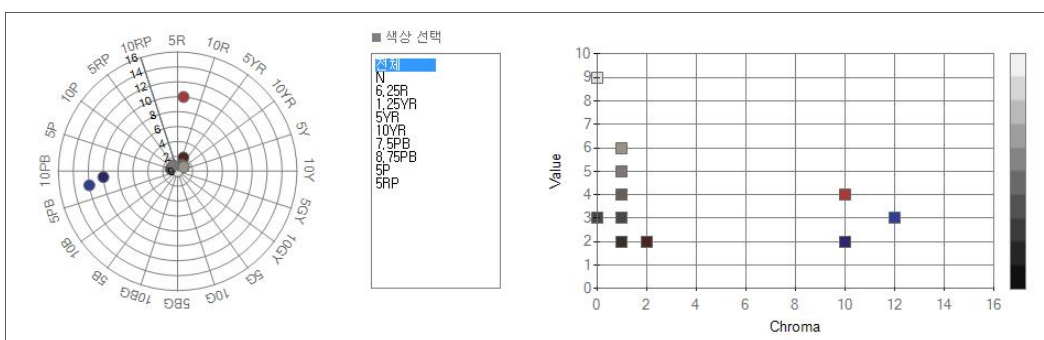
드(YR)가 21/83%, 레드(R)가 2.9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색상의 75.2%의 비율을 차지한 주조색 KS N9은 명도가 9단계인 매우 밝은 고명도의 무채색으로 라이트 그레이시(Ltg)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톱브라운의 상징컬러인 레드와 옐로우레드 계열이 5.25%로 나타나 포인트 컬러로 활용되어 팔 길이의 수직상승의 과장성을 더한 요소로 나타났다. <표 54>의 전체색상분포를 살펴보면 포인트 컬러는 고채도에, 베이스 컬러들은 저채도에 분포되어 있고 명도는 주조색을 제외한 나머지 컬러들이 중·저명도에서 나타났다.

<표 53> Thom Browne 2012 S/S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N9 | 227 | 227 | 227 | 75.2 |
| | | KS 5YR 2/1 | 57 | 47 | 43 | 13.25 |
| | | KS 5YR 4/1 | 105 | 94 | 88 | 4.51 |
| | | KS 6.25R 4/10 | 166 | 59 | 58 | 2.91 |
| | | KS 1.25YR 2/2 | 76 | 38 | 32 | 2.34 |
| | | KS 10YR 3/1 | 79 | 70 | 62 | 1.03 |
| | | KS 10YR 6/1 | 155 | 146 | 136 | 0.7 |
| | | KS 5RP 5/1 | 128 | 119 | 122 | 0.03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54> Thom Browne 2012 S/S 추출색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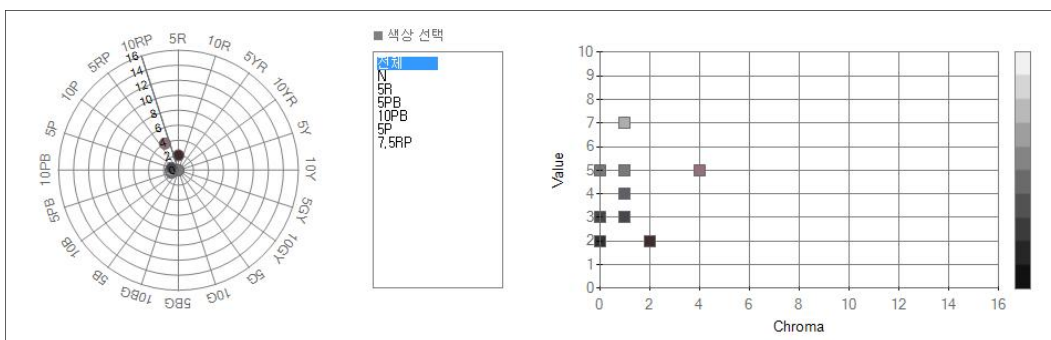
꿈 데 가르송의 2014 F/W 추출색상은 <표 55>와 같으며 퍼플블루가 83.19%로 나타났고 이어서 무채색 16.3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의 추출색상분포에도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조를 띠는 저명도와 탁한 계열인 저채도를 띄고 있으며 무채색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컬러는 퍼플블루를 기조로 한 저채도의 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각도의 절개로 형태적 과장미를 더한 다크한 무드의 디자인 표현을 위하여 푸른 기조의 어두운 색조를 사용하여 무겁고 탁한 이미지를 더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55> Comme des Garçons 2014 F/W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10PB 7/1 | 173 | 173 | 178 | 49 |
| | | KS 10PB 4/1 | 96 | 95 | 103 | 29.34 |
| | | KS N2 | 49 | 49 | 49 | 16.31 |
| | | KS 10PB 5/1 | 121 | 121 | 128 | 2.84 |
| | | KS 5PB 3/1 | 68 | 72 | 79 | 1.24 |
| | | KS 10PB 5/1 | 121 | 121 | 128 | 0.77 |
| | | KS 5P 3/1 | 75 | 70 | 78 | 0.21 |
| | | KS 5R 2/2 | 65 | 43 | 45 | 0.09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56> Comme des Garçons 2014 F/W 추출색상분포



다음 <표 57>은 젠더리스 컬렉션에 나타난 과장성의 의상 중 20개의 이미지를 선정하여 4개의 주요 색채를 추출한 총 80개의 색채 데이터이다. 이어서 <표 58>과 <표 59>는 과장성의 주요 색채를 색상과 색조로 구분지어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57> 젠더리스 과장성에 나타난 주조색 팔레트

| 이미지 | 주조색 | | | | 이미지 | 주조색 | | | |
|-----|---------------|-------------|--------------|---------------|-----|---------------|----------------|---------------|---------------|
| | KS N9 | KS N7 | KS N2 | KS N4 | | KS N3 | KS 7.5PB 8/2 | KS 3.75YR 4/8 | KS 3.75YR 5/4 |
| | KS 7.5R 4/14 | KS 10R 2/1 | KS N7 | KS 10B 9/1 | | KS 10P 2/1 | KS 5RP 9/1 | KS 2.5R 5/6 | KS 8.75RP 6/2 |
| | KS 1.25P 9/2 | KS 5P 7/2 | KS 6.25P 8/2 | KS 5P 3/1 | | KS 6.25R 4/12 | KS 7.5R 2/8 | KS 5YR 2/1 | KS 10YR 4/1 |
| | KS 7.5PB 8/2 | KS 5PB 2/1 | KS 5PB 6/8 | KS 5PB 4/8 | | KS 10PB 2/1 | KS 2.5YR 7/2 | KS 3.75YR 7/2 | KS 2.5YR 6/4 |
| | KS N2 | KS 10YR 9/1 | KS 5GY 7/1 | KS 10Y 8/1 | | KS 7.5P 2/4 | KS 6.25RP 4/12 | KS 10PB 9/1 | KS 10PB 4/12 |
| | KS N9 | KS 5YR 2/1 | KS 5YR 4/1 | KS 6.25R 4/10 | | KS N2 | KS N9 | KS 3.75YR 5/4 | KS 3.75YR 7/4 |
| | KS 10PB 7/1 | KS 10PB 4/1 | KS N2 | KS 10PB 5/1 | | KS 10PB 2/1 | KS 5PB 9/1 | KS 5YR 7/1 | KS 5B 8/1 |
| | KS 5PB 2/1 | KS 10PB 3/1 | KS 7.5PB 2/6 | KS 5P 8/1 | | KS 5YR 4/1 | KS 10PB 9/1 | KS 5R 6/1 | KS 1.25YR 5/2 |
| | KS 8.75YR 4/2 | KS 5YR 5/4 | KS 10YR 2/1 | KS 8.75YR 3/2 | | KS 5RP 9/1 | KS 5P 7/1 | KS 2.5R 7/2 | KS 3.75RP 8/2 |
| | KS 3.75R 5/14 | KS 7.5R 2/8 | KS 10P 6/1 | KS 1.25R 6/12 | | KS 10B 2/1 | KS 10PB 4/1 | KS 2.5YR 7/2 | KS 5PB 3/1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12.)

<표 58> 과장성의 색상 빈도 분포

| 색상 단위 | R | YR | Y | GY | G | BG | B | PB | P | RP | N | 합계 (%) |
|-----------|--------------|------------|-------------|-------------|-----------|-----------|-------------|---------------|--------------|------------|---------------|---------------|
| 1.25 | 1 | 1 | 0 | 0 | 0 | 0 | 0 | 0 | 1 | 0 | 0 | 3 (37.35) |
| 2.5 | 1 | 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 (5) |
| 3.75 | 1 | 5 | 0 | 0 | 0 | 0 | 0 | 0 | 0 | 1 | 0 | 7 (8.75) |
| 5 | 1 | 6 | 0 | 1 | 0 | 0 | 1 | 6 | 4 | 3 | 0 | 22 (27.5) |
| 6.25 | 2 | 0 | 0 | 0 | 0 | 0 | 0 | 0 | 1 | 1 | 0 | 4 (5) |
| 7.5 | 3 | 0 | 0 | 0 | 0 | 0 | 0 | 2 | 1 | 0 | 0 | 6 (7.5) |
| 8.75 | 0 | 2 | 0 | 0 | 0 | 0 | 0 | 1 | 0 | 1 | 0 | 4 (5) |
| 10 | 1 | 3 | 1 | 0 | 0 | 0 | 2 | 10 | 2 | 0 | 0 | 19 (23.75) |
| 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 | 11 (13.75) |
| 합계 (%) | 10 (12.5) | 20 (25) | 1 (1.25) | 1 (1.25) | 0 (0%) | 0 (0%) | 3 (3.75) | 19 (23.75) | 9 (11.25) | 6 (7.5) | 11 (13.75) | 80 (100%) |

과장성의 색상 빈도는 <표 58>과 같이 5단위가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단위가 23.75%, 무채색(N)이 13.75%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순색의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색상은 옐로우레드(YR)가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퍼플블루(PB)가 23.75%, 레드(R)가 12.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안함을 주는 소프트한 컬러인 그린(G)과 블루그린(BG)의 경우 0%의 빈도수를 나타내어 원래의 모습을 극대화하는 인위적인 과장을 시도하는 과장성의 표현 특성에는 적합하지 않는 컬러로 나타났으며, 순색의 가시성이 좋은 옐로우 기미가 포함된 레드 계열이나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이미지의 퍼플 기미가 있는 블루 계열을 사용하여 물리적인 과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9> 과장성의 색조 빈도 분포

| 채도 명도 | 0 | 1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N | 합계 (%) |
|-----------|-----------|---------------|---------------|------------|------------|-------------|-------------|----------|------------|-----------|---------------|---------------|
| 2 | 0 | 10 | 0 | 1 | 1 | 2 | 0 | 0 | 0 | 0 | 0 | 14 (17.5) |
| 3 | 0 | 3 | 1 | 0 | 0 | 0 | 0 | 0 | 0 | 0 | 0 | 4 (5) |
| 4 | 0 | 5 | 1 | 0 | 0 | 2 | 1 | 3 | 1 | 0 | 0 | 13 (16.25) |
| 5 | 0 | 1 | 1 | 3 | 1 | 0 | 0 | 0 | 1 | 0 | 0 | 7 (8.75) |
| 6 | 0 | 2 | 1 | 1 | 0 | 1 | 0 | 1 | 0 | 0 | 0 | 6 (7.5) |
| 7 | 0 | 4 | 5 | 1 | 0 | 0 | 0 | 0 | 0 | 0 | 0 | 10 (12.5) |
| 8 | 0 | 3 | 4 | 0 | 0 | 0 | 0 | 0 | 0 | 0 | 0 | 7 (8.75) |
| 9 | 0 | 7 | 1 | 0 | 0 | 0 | 0 | 0 | 0 | 0 | 0 | 8 (10) |
| 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 | 11 (13.75) |
| 합계 (%) | 0 (0%) | 35 (43.75) | 14 (18.75) | 6 (7.5) | 2 (2.5) | 5 (6.25) | 1 (1.25) | 4 (5) | 2 (2.5) | 0 (0%) | 11 (13.75) | 80 (100%) |

<표 59>와 같이 과장성의 명도는 2단위가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단위가 16.25%, 7단위가 12.5%, 9단위가 10% 순으로 나타났으며 명도의 분류를 비교적 평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채도의 경우 1단위가 4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단위가 18.75%, 4단위가 7.5% 순으로 나타나 저채도의 범주에 과장성의 색채 빈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의 경우 N2와 N9가 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밝거나 어두운 저명도와 고명도의 그레이 컬러가 동시에 많은 빈도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이 색상과 색조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젠더리스의 과장성의 경우 의상의 형태를 과장하여 신체를 변형하는 기법을 비교적 많이 시도하였으며 명시성이 좋은 색채의 사용의 빈도수는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명시성이 좋은 색채를 사용하더라도 톤이 다운된 저채도의 중·저명도 컬러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젠더리스의 과장성은 형상의 변형에 의한 과장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역사성

역사는 현재와 과거로부터 동시에 작용하고 끊임없이 존재하며 다방면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흔적은 현대적인 새로운 가치와 융합되어 꾸준히 확장됨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유지되어 새로운 현재를 형성하고 인과관계를 남긴다⁹³⁾. 의복에서의 역사성은 복고주의 패션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써 과거의 패션을 재현하거나 응용하는 방식을 착안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정립하여 과거성을 새롭게 나타내는 패션의 유형이다⁹⁴⁾.

1) 표현 특성

패션에서의 역사성은 과거의 시대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의상을 의미하며 동서양의 민족적이며 토속적인 패션을 포함하고 변형된 역사적인 사실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그리고 특정 시대적 배경이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단순히 부분적으로 의복에 변화를 주어 이전 시대의 패션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재해석을 통하여 재창조 하는 것을 의미한다⁹⁵⁾.

<그림 57>의 모스키노(Moschino)는 앤틱한 골드 버튼이 배열되어 있는 테일러드 코트에 목을 감싸는 하이넥 셔츠 칼라의 승마복 패션이다. 반면 하의는 실용적이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판덱스 소재로 색상의 배색을 통하여 각반(knee-gaiter)을 표현하였으며 여성들은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승마와 같은 스포츠 활동에 관한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21세기 젠더리스 룩의 표현 특성 중 역사성의 요소로 자주 등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3) 강숙녀, 권진(2013). 현대 니트웨어에 표현된 앤틱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19(2), p.12.

94) 최해주, 안은경(2003).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패션학회지, 53(2), p.139.

95) 양수현(2015). 다셈 싱(Tarsem Singh) 영화의상에 나타난 매직리얼리즘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75.

모스키노(Moschino)는 영국 스코틀랜드 전통의상인 킬트(kilt)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격자무늬인 타탄 체크(tartan check)에서 착안한 문양을 테일러드 수트의 소재로 활용하여 젠더리스의 전통적인 패션의 아이템으로 재해석하였으며 골드의 페이스리 패턴을 재킷에 넣어 더욱 고급스러운 수트로 나타냈다(그림 58).

랄프 로렌(Ralph Lauren)은 <그림 59>와 같이 블랙 셔츠와 팬츠에 히피룩의 대표적 아이템인 술이 달린 클로셰(cloche)를 어깨에 둘러 자유분방한 보헤미안의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챙이 넓은 빈티지한 중절모의 착용은 젠더리스적 중성성의 이미지를 함께 나타냈다.

<그림 60>의 구찌(Gucci)는 남성성이 부각된 젠더리스적 실루엣의 재킷에 중국 청나라 시대의 전통 의상인 치파오의 색감과 비단과 같은 실크 소재, 오리엔탈적인 꽃 무늬가 수 놓아진 역사성이 반영된 의상들을 선보였다. 또한 동양에서만 볼 수 있는 지우산(紙雨傘)을 들고 런웨이에 등장하여 동양적인 무드를 나타냈다.



<그림 57>

Moschino
2012 F/W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8.)



<그림 58>

Moschino
2013 F/W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8.)



<그림 59>

Ralph Lauren
2016 F/W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8.)




<그림 60>

Gucci
2017 F/W
출처:<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7.28.)

2)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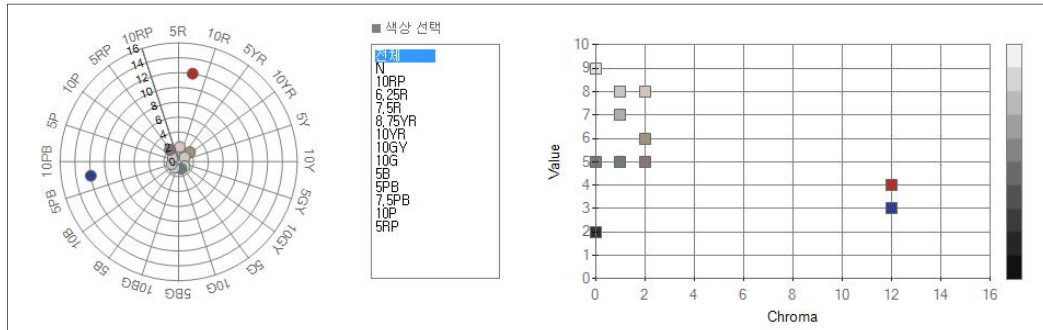
2012 F/W 모스키노의 추출색상은 <표 60>, <표 61>과 같으며 무채색(N)이 86.51%, 레드(R)가 9.06%, 레드퍼플(RP)이 3.74%, 순으로 나타났다. 무채색 간의 극명한 명도 대비로 상·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누고 이에 의상의 소재도 분류하여 격식이 있어 보이는 스포티한 승마복으로 분석됐다. 또한 레드와 블랙, 라이트 그레이의 배색으로 다이내믹한 이미지가 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도와 색채의 배색이 반대 색상의 배색이면 역동적이며 액티브한 이미지의 연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60> Moschino 2012 F/W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N2 | 49 | 49 | 49 | 48.28 |
| | | KS N9 | 227 | 227 | 227 | 38.23 |
| | | KS 7.5R 4/12 | 176 | 49 | 43 | 8.52 |
| | | KS 10RP 7/1 | 180 | 171 | 172 | 3.74 |
| | | KS 6.25R 8/2 | 214 | 196 | 193 | 0.54 |
| | | KS 10YR 8/1 | 207 | 199 | 187 | 0.31 |
| | | KS 8.75YR 6/2 | 163 | 144 | 126 | 0.24 |
| | | KS 10P 8/1 | 203 | 199 | 201 | 0.05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26.)

<표 61> Moschino 2012 F/W추출색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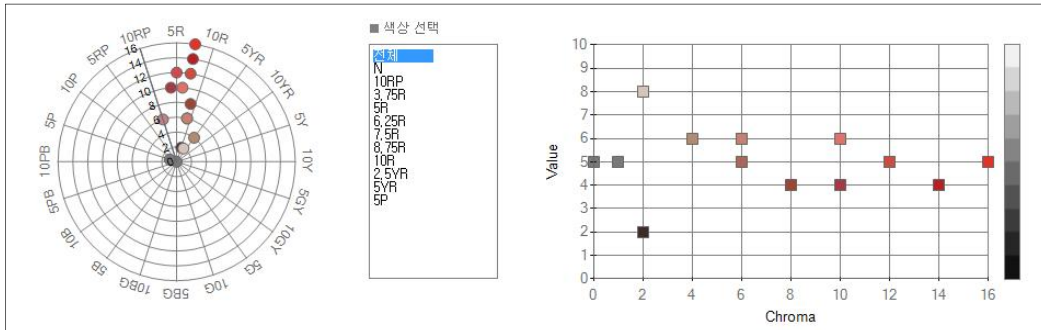
모스키노의 2013 S/S 추출색상표는 <표 62>와 같으며 레드(R)가 84.89%, 옐로우레드(YR)가 12.3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KS 10R 2/2와 KS 7.5R 4/14, 그리고 KS 8.75R 5/6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는 타탄체크의 주조 색채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레드에 명도와 채도 차이를 다르게 하여 배치했을 경우 동일색상, 유사배색으로 분류되어 톤 온 톤 배색에 해당되며 레드계열의 주조색으로 강렬하지만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63>의 추출색상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색채는 다양한 채도를 띠며 명도는 중명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Moschino 2013 F/W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10R 2/2 | 65 | 43 | 41 | 41.49 |
| | | KS 7.5R 4/14 | 185 | 32 | 33 | 20.62 |
| | | KS 8.75R 5/6 | 170 | 104 | 90 | 10.98 |
| | | KS 2.5YR 8/2 | 216 | 196 | 187 | 9.22 |
| | | KS 7.5R 5/16 | 227 | 51 | 42 | 6.9 |
| | | KS 5YR 6/4 | 179 | 139 | 113 | 3.15 |
| | | KS 6.25R 6/10 | 223 | 115 | 105 | 2.99 |
| | | KS 8.75R 4/8 | 155 | 70 | 55 | 2.27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26.)

<표 63> Moschino 2013 F/W 추출색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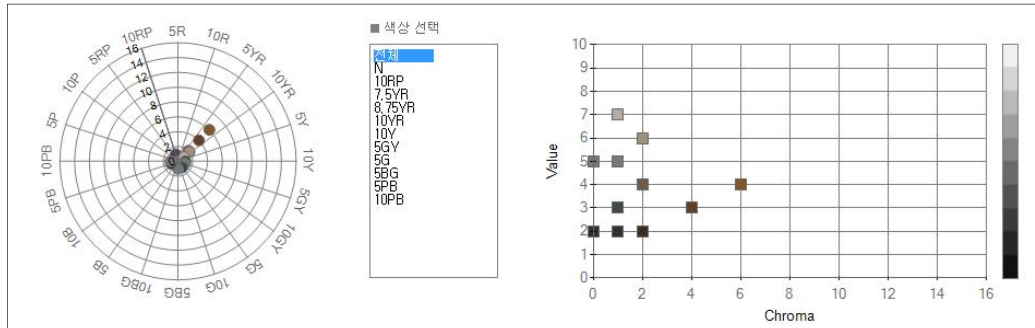
2016 F/W 랄프 로렌의 추출색상표<표 64>를 살펴보면, 무채색(N)은 68.65%, 옐로우레드(YR)는 31.31%, 그린옐로우(GY)는 0.02%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조색을 제외한 보조색들은 차분하고 내추럴한 워 톤 계열에 해당됐다. 깔끔하고 모던한 이미지가 느껴지는 블랙컬러의 셔츠와 팬츠에 역사성이 나타나는 저채도의 옐로우레드 계열의 클로세를 매치하여 상이한 이미지의 부각을 나타냈다. 또한 <표 65>의 추출색상분포에도 알 수 있듯이 블랙에 중·저채도와 명암의 차이를 둔 옐로우레드의 배색은 내추럴하면서도 히피의 이미지가 느껴지는 젠더리스의 역사상의 의상으로 분석된다.

<표 64> Ralph Lauren 2016 F/W 추출색상표

| 이미지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 KS N2 | 49 | 49 | 49 | 68.65 |
| | | KS 7.5YR 4/6 | 132 | 85 | 40 | 7.79 |
| | | KS 10YR 7/1 | 181 | 172 | 161 | 6.86 |
| | | KS 7.5YR 2/2 | 62 | 45 | 35 | 5.37 |
| | | KS 8.75YR 4/2 | 111 | 93 | 76 | 5.23 |
| | | KS 7.5YR 3/4 | 97 | 64 | 38 | 3.86 |
| | | KS 8.75YR 6/2 | 163 | 144 | 126 | 2.2 |
| | | KS 5GY 5/1 | 119 | 123 | 112 | 0.02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26.)

<표 65> Ralph Lauren 2016 F/W 추출색상분포



<표 66>의 2017 F/W 구찌의 추출색상은 옐로우레드(YR)가 52.56%, 옐로우(Y)가 17.63%, 레드(R)는 18.45%, 레드퍼플(RP)는 4.65% 순으로 나타났다. KS 7.5RP 6/12를 제외한 모든 추출 컬러는 옐로우 베이스의 워 톤 계열에 해당되어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풍요로운 이미지의 오리엔탈 룩이 나타났다. 주요한 색채로 사용된 옐로우레드와, 옐로우, 그리고 레드의 조합은 유사색상 배색으로써 통일감과 조화로우미 느껴진다. 반면 의상에 새겨진 꽃의 문양은 레드퍼플, 즉 푸른 기조의 핑크 컬러이므로 같은 난색인데도 불구하고 보색의 워 톤, 쿨 톤으로 분류되어 더욱 동양적인 화려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67>의 추출색상분포도 특정 영역에만 분포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배치되어 색채의 율동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젠더리스 역사성에 나타난 주조색 팔레트

| 이미지 | 주조색 | | | | 이미지 | 주조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http://runway.vogue.co.kr> (검색일: 2020.08.26.)

<표 69> 역사성의 색상 빈도 분포

| 색상 단위 | R | YR | Y | GY | G | BG | B | PB | P | RP | N | 합계 (%) |
|-----------|--------------|------------|--------------|-------------|-------------|------------|-------------|----------|-------------|----------|---------------|---------------|
| 1.25 | 1 | 2 | 1 | 0 | 0 | 0 | 0 | 0 | 0 | 0 | 0 | 4 (5) |
| 2.5 | 0 | 3 | 2 | 0 | 0 | 0 | 0 | 0 | 0 | 0 | 0 | 5 (6.25) |
| 3.75 | 2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 (5) |
| 5 | 2 | 4 | 3 | 0 | 0 | 1 | 0 | 3 | 0 | 1 | 0 | 14 (17.5) |
| 6.25 | 0 | 4 | 2 | 0 | 1 | 0 | 0 | 1 | 0 | 0 | 0 | 8 (10) |
| 7.5 | 5 | 4 | 1 | 1 | 0 | 1 | 0 | 0 | 0 | 0 | 0 | 12 (15) |
| 8.75 | 3 | 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 (7.5) |
| 10 | 5 | 2 | 0 | 0 | 0 | 0 | 1 | 0 | 1 | 3 | 0 | 12 (15) |
| 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5 | 15 (18.75) |
| 합계 (%) | 18 (22.5) | 24 (30) | 9 (11.25) | 1 (1.25) | 1 (1.25) | 2 (2.5) | 1 (1.25) | 4 (5) | 1 (1.25) | 4 (5) | 15 (18.75) | 80 (100%) |

역사성의 색상은 <표 69>와 같으며 5단위가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시에 10단위와 7.5단위가 1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순색의 비율이 높다. 또한 순색들을 이어주는 색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다채로운 색상들의 배색의 중첩을 무난하게 연결하는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무채색의 경우 18.75%로 세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밀리터리 룩과 같이 군복에서 온 색채로 분석되어 젠더리스의 역사성에는 군복을 착안한 의상의 활용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색상의 경우 옐로우레드(YR)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레드(R)가 22.5%, 옐로우(Y)가 11.25% 순으로 나타나 주황색의 따뜻하고 즐거운 이미지에 빨간색의 강렬하고 뜨거운 이미지가 더해져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에스닉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70> 역사성의 색조 빈도 분포

| 채도 명도 | 0 | 1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N | 합계 (100%) |
|-----------|-----------|--------------|---------------|------------|--------------|-------------|-------------|------------|------------|-----------|---------------|---------------|
| 2 | 0 | 3 | 4 | 2 | 2 | 0 | 0 | 0 | 0 | 0 | 0 | 11 (13.75) |
| 3 | 0 | 1 | 3 | 1 | 2 | 0 | 0 | 0 | 0 | 0 | 0 | 7 (8.75) |
| 4 | 0 | 1 | 1 | 1 | 1 | 0 | 0 | 2 | 2 | 0 | 0 | 8 (10) |
| 5 | 0 | 1 | 0 | 4 | 7 | 0 | 2 | 0 | 0 | 0 | 0 | 14 (17.5) |
| 6 | 0 | 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2 (2.5) |
| 7 | 0 | 2 | 3 | 4 | 0 | 3 | 0 | 0 | 0 | 0 | 0 | 12 (15) |
| 8 | 0 | 1 | 3 | 0 | 2 | 2 | 1 | 0 | 0 | 0 | 0 | 9 (11.25) |
| 9 | 0 |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2 (2.5) |
| N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5 | 15 (18.75) |
| 합계 (%) | 0 (0%) | 10 (12.5) | 17 (21.25) | 12 (15) | 14 (17.5) | 5 (6.25) | 3 (3.76) | 2 (2.5) | 2 (2.5) | 0 (0%) | 15 (18.75) | 80 (100%) |

역사성에 나타난 명도는 <표 70>과 같이 5단위가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단위가 13.75%, 8단위가 11.25%, 4단위가 10%로 나타나 중명도의 분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채도의 경우 2단위가 21.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단위가 17.5%, 4단위가 15%, 1단위가 12.5%, 8단위가 6.25%로 나타나 저채도와 중채도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무채색의 경우 N2가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크한 톤의 회색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젠더리스의 역사성에 나타난 색상과 색조를 분석한 결과, 다채로운 원색의 색상이 다소 높게 나타나 색의 연결성과 배색의 중첩을 시도하였고 군복과 같이 시대상을 반영한 매니시한 의상에는 무채색이나 푸른 기조의 다크한 톤을 사용하여 의상의 격식과 전통성, 그리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클래식 이미지의 대표 컬러인 난색 계열을 활용하여 전통적이며 고전적 민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IV. 젠더리스 패션 표현 특성에 따른 색채 이미지 스케일

Ⅲ장에서는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을 6가지(절충성, 양성성, 유희성, 관능성, 과장성, 역사성)로 분류하여 각각 20점의 의상을 선정한 후 4개의 주조색을 추출하여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 별 80가지의 주조 색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번 장에서는 Ⅲ장에서 추출한 각각의 젠더리스의 주조 색채 중 8~16가지의 색을 함축하여 재추출하였으며 이것을 I.R.I 이미지 스케일에 대입하여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에 따른 색채 이미지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Ⅱ장에서 나타난 중성 이미지 유형의 색채를 젠더리스 표현 특성별 이미지 스케일에 대입하여 젠더리스를 기준으로 한 중성 이미지 유형의 범주를 파악하고 중성 이미지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상징적 대표 색채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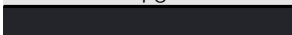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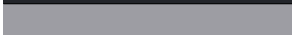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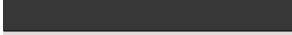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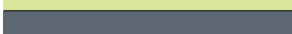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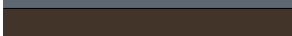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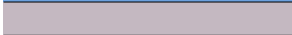


젠더리스 표현 특성에서 추출한 480개의 주조색 컬러를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색상 감소를 통한 재응축을 시도하였으며 이와 같이 추출된 젠더리스 표현 특성 별 대표 컬러를 기준색이라고 칭한다. 여기에서 기준색이란 색채의 조화에서 표현된 이미지의 중심이 되는 상징적인 대표 컬러를 의미한다⁹⁶⁾.

젠더리스 절충성의 기준색은 <표 71>과 같이 총 16가지의 컬러로 추출되었으며 퍼플블루(PB)가 56.05%, 레드(R)가 26.7%, 무채색(N)이 8.68%, 옐로우(Y)가 2.4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색은 26.32%의 KS

96) 박연선(2007). 색채용어사전. 도서출판예림. p.20.

5PB 2/1이며 매우 낮은 저명도, 저채도로 블랙에 가까운 색채를 띠고 있다. 다음으로 16.96%의 KS 10PB 7/1은 고명도의 저채도를 한 퍼플블루(PB)로 푸른색 기조의 그레이 컬러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두 가지의 주조색 모두 무채색에 가까운 절충성의 베이스 컬러로 나타났으며 보조색으로는 중채도의 레드(R)와 퍼플(P)이 쓰여져 따뜻한 컬러와 차가운 컬러의 혼합적 사용이 나타났다. 빈도수가 가장 낮은 포인트 컬러 역시 옐로우(Y)와 그린옐로우(GY), 또는 퍼플블루(PB)와 퍼플(P)을 활용하여 색의 온도감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나타나 상반된 이미지의 코디네이션을 목적으로 한 절충성의 기준색으로 분석된다.

<표 71> 젠더리스 절충성의 기준색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KS 5PB 2/1 | 46 | 49 | 56 | 26.32 |
|  | KS 10PB 7/1 | 173 | 173 | 178 | 16.96 |
|  | KS 5R 4/6 | 143 | 77 | 76 | 9.78 |
|  | KS N3 | 71 | 71 | 71 | 8.68 |
|  | KS 5R 9/1 | 232 | 226 | 225 | 8.58 |
|  | KS 8.75PB 4/6 | 91 | 92 | 135 | 5.95 |
|  | KS 10R 8/2 | 215 | 196 | 190 | 5.91 |
|  | KS 6.25PB 2/4 | 38 | 48 | 75 | 3.3 |
|  | KS 3.75Y 6/4 | 165 | 145 | 98 | 2.45 |
|  | KS 5R 3/4 | 105 | 58 | 59 | 2.43 |
|  | KS 5GY 9/4 | 222 | 233 | 171 | 2.41 |
|  | KS 2.5PB 5/2 | 112 | 123 | 134 | 2.27 |
|  | KS 8.75YR 3/2 | 85 | 68 | 54 | 1.25 |
|  | KS 3.75PB 7/8 | 126 | 178 | 229 | 1.25 |
|  | KS 8.75P 8/2 | 207 | 197 | 204 | 1.23 |
|  | KS 6.25RP 5/10 | 187 | 88 | 125 | 1.21 |

젠더리스 양성성의 기준색은 <표 72>와 같이 총 14가지의 컬러로 추출되었으며 KS N2와 KS N4가 49.9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양성성의 기준색 중 무채색의 범주가 약 절반 가까이 출현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의상에 남성적 디자인 요소를 결합하여 남녀의 모호성 및 공존을 표출한

결과로 분석된다. 유채색의 경우에는 레드(R)가 15.46%, 퍼플블루(PB)가 16.82%, 옐로우레드(YR)가 11.68%, 옐로우(Y)가 3.36% 순으로 나타났고 KS 5R 6/1가 14.2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중명도, 저채도의 레드 컬러가 주조색으로 분석되었으나 전체 색상의 채도의 범주가 KS 6.25R 5/14를 제외하고 모두 1~4단계에 분포되어 있어 어둡고 탁한 저채도로 나타나 색채의 경계는 작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성성에 나타난 난색계열의 색채는 저명도, 저채도의 베이지와 브라운 색상을 띄어 전체적으로 차분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한색의 퍼플블루(PB), 퍼플(P), 블루(B)를 중채도로 한 보조색은 여성의 의상에 남성성이 느껴지는 색채의 이미지를 더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 72> 젠더리스 양성성의 기준색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KS N2 | 49 | 49 | 49 | 30.12 |
| | KS N4 | 96 | 96 | 96 | 18.8 |
| | KS 5R 6/1 | 155 | 145 | 144 | 14.24 |
| | KS 5PB 9/1 | 220 | 223 | 228 | 13.07 |
| | KS 5YR 5/2 | 138 | 117 | 105 | 9.54 |
| | KS 5PB 8/4 | 183 | 202 | 226 | 2.51 |
| | KS 6.25YR 3/2 | 87 | 67 | 56 | 2.14 |
| | KS 5Y 8/1 | 205 | 200 | 185 | 2.1 |
| | KS 1.25Y 2/2 | 59 | 47 | 32 | 1.26 |
| | KS 10B 5/1 | 115 | 123 | 127 | 1.26 |
| | KS 7.5P 8/2 | 206 | 197 | 205 | 1.26 |
| | KS 5PB 4/4 | 81 | 97 | 123 | 1.24 |
| | KS 6.25R 5/14 | 218 | 65 | 64 | 1.22 |
| | KS 3.75P 5/2 | 125 | 119 | 132 | 1.22 |

유희성에 나타난 기준색은 <표 73>과 같이 레드(R)가 34.75%, 퍼플블루(PB)가 33.44%, 레드퍼플(RP)이 13.48%, 퍼플(P)이 8.65%, 옐로우(Y)가 6.03%, 옐로우레드(YR)가 2.51% 순으로 나타났고 총 추출 색상은 15가지의 컬러로 도출되었다.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컬러는 KS 5PB 2/1이며 저명도, 저채도를 띄고 있어 블랙에 가까운 컬러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채색이지만 저채도를 한 탁한 색

조들이 베이스 컬러로 나타남과 동시에 반 고전이며 반사회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유희성의 보조 색채와 포인트 색채는 다른 젠더리스 표현 특성의 색채보다 다소 다채로운 편이다. 그들의 색조 단계는 저(低)에서 고(高)까지 고르게 분포된 편이며 한색과 난색의 사용 범주에도 경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73> 젠더리스 유희성의 기준색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KS 5PB 2/1 | 46 | 49 | 56 | 26.14 |
| | KS 8.75R 4/6 | 143 | 78 | 66 | 15.6 |
| | KS 10R 7/1 | 182 | 171 | 168 | 13.18 |
| | KS 10RP 9/1 | 231 | 226 | 226 | 9.87 |
| | KS 5P 3/1 | 75 | 70 | 78 | 8.65 |
| | KS 8.75R 7/2 | 191 | 169 | 164 | 5.97 |
| | KS 1.25Y 6/8 | 186 | 139 | 50 | 4.81 |
| | KS 6.25PB 8/2 | 195 | 200 | 210 | 3.65 |
| | KS 1.25RP 5/10 | 173 | 94 | 149 | 3.61 |
| | KS 1.25YR 2/2 | 76 | 38 | 32 | 2.51 |
| | KS 7.5PB 3/12 | 48 | 63 | 149 | 1.22 |
| | KS 7.5PB 6/10 | 125 | 144 | 214 | 1.22 |
| | KS 5B 8/1 | 192 | 202 | 203 | 1.22 |
| | KS 6.25Y 9/4 | 240 | 228 | 168 | 1.22 |
| | KS 5PB 3/1 | 68 | 72 | 79 | 1.12 |

다음은 관능성의 기준색이며 <표 74>와 같이 무채색(N)이 29.86%, 옐로우레드(YR)가 22.79%, 레드(R)가 20.61%, 레드퍼플(RP)이 14.67%, 퍼플블루(PB)가 6.05% 순으로 나타나 N2의 다크한 톤의 무채색을 기조로 한 옐로우레드(YR)의 출현은 시스루와 같이 신체의 피부가 그대로 노출되는 소재를 활용한 의상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젠더리스 의상에 나타난 관능성의 색채는 저명도, 또는 고명도의 클린하고 명확한 색상의 의상에 신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하여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강인한 여성의 인체 이미지를 관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74> 젠더리스 관능성의 기준색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KS N2 | 49 | 49 | 49 | 29.86 |
| | KS 5RP 4/1 | 104 | 93 | 97 | 14.67 |
| | KS 2.5YR 7/4 | 208 | 164 | 144 | 12.02 |
| | KS 10R 9/1 | 233 | 225 | 223 | 11.04 |
| | KS 10R 6/1 | 156 | 145 | 142 | 9.57 |
| | KS 3.75YR 5/4 | 153 | 112 | 91 | 4.77 |
| | KS 5PB 6/1 | 144 | 148 | 153 | 3.63 |
| | KS 2.5YR 6/4 | 181 | 138 | 118 | 3.59 |
| | KS 5Y 6/2 | 156 | 147 | 121 | 2.4 |
| | KS N7 | 173 | 173 | 173 | 2.4 |
| | KS 8.75PB 2/6 | 46 | 44 | 85 | 1.21 |
| | KS 10YR 2/2 | 60 | 46 | 33 | 1.21 |
| | KS 10PB 8/1 | 200 | 199 | 204 | 1.21 |
| | KS 10YR 9/4 | 254 | 222 | 175 | 1.21 |
| | KS 7.5PB 3/8 | 57 | 67 | 125 | 1.17 |
| | KS 10Y 3/1 | 73 | 72 | 62 | 0.02 |

젠더리스의 과장성의 기준색은 <표 75>와 같이 레드퍼플(RP)이 82.05%, 레드(R)가 12.74%, 옐로우레드(YR)가 1.3%, 퍼플블루(PB)가 2.81% 순으로 나타나 총 8가지 컬러가 도출되었다. 과장성 역시 색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채도가 낮은 베이스 컬러에 증명도와 중·고채도의 레드(R)와 퍼플블루(PB), 레드퍼플(RP)의 색채를 사용하여 의상의 형상을 극대화하여 강조하고 과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표 75> 젠더리스 과장성의 기준색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KS 10RP 8/1 | 205 | 198 | 199 | 41.32 |
| | KS 5RP 2/1 | 57 | 46 | 51 | 39.68 |
| | KS 5R 4/10 | 166 | 59 | 63 | 12.74 |
| | KS 10PB 4/12 | 99 | 83 | 169 | 1.62 |
| | KS 3.75YR 6/4 | 180 | 138 | 116 | 1.3 |
| | KS 1.25PB 6/8 | 81 | 155 | 200 | 1.19 |
| | KS 5PB 4/10 | 29 | 99 | 163 | 1.1 |
| | KS 8.75RP 6/12 | 230 | 106 | 138 | 1.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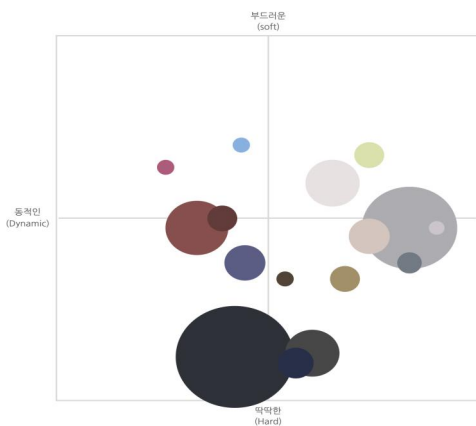
젠더리스 역사성의 기준색은 <표 76>과 같이 베이스 컬러의 무채색(N)을 기준으로 옐로우(Y), 레드(R), 옐로우레드(YR)와 같은 난색과 퍼플블루(PB), 블루그린(BG)의 한색계열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도출된 유채색 KS 1.25Y 7/6은 스트롱한 톤의 골드 컬러로 고풍스럽고 중후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그 외의 난색계열의 컬러들은 과거지향적이며 차분하고 격식있는 이미지를 나타낸다. 반면 보색의 개념으로 퍼플블루(PB)와 블루그린(BG)과 같은 한색계열을 난색의 의상에 동시에 배색함으로써 따뜻한 색채들의 채도를 더욱 높게 나타내 역사성의 미적 효과를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76> 젠더리스 역사성의 기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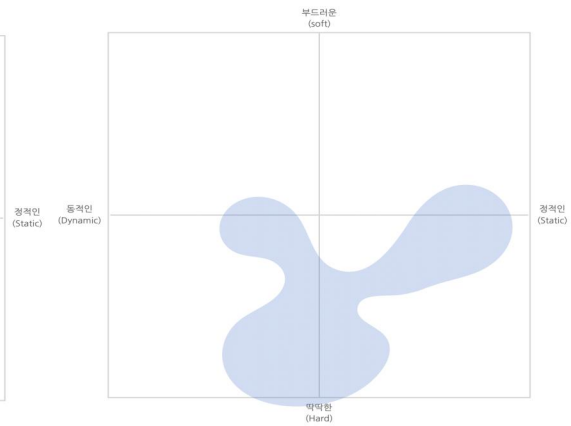
| 색상 | KS | R | G | B | 비율(%) |
|----|---------------|-----|-----|-----|-------|
| | KS N2 | 49 | 49 | 49 | 30.78 |
| | KS 1.25Y 7/6 | 206 | 167 | 102 | 13.27 |
| | KS 6.25R 7/2 | 190 | 169 | 166 | 9.73 |
| | KS 5R 3/1 | 82 | 68 | 68 | 6.13 |
| | KS 3.75YR 7/2 | 191 | 169 | 158 | 6.09 |
| | KS 1.25YR 4/4 | 130 | 85 | 71 | 5.97 |
| | KS 6.25YR 3/4 | 98 | 63 | 40 | 4.89 |
| | KS 8.75R 3/10 | 137 | 30 | 24 | 4.89 |
| | KS N9 | 227 | 227 | 227 | 4.87 |
| | KS 10R 2/2 | 65 | 43 | 41 | 3.74 |
| | KS 2.5YR 4/8 | 150 | 74 | 38 | 3.6 |
| | KS 5PB 2/4 | 33 | 49 | 75 | 1.21 |
| | KS 3.75BG 4/6 | 6 | 109 | 102 | 1.21 |
| | KS 3.75R 4/10 | 166 | 58 | 70 | 1.21 |
| | KS 6.25YR 8/2 | 216 | 196 | 181 | 1.21 |
| | KS 6.25PB 4/4 | 85 | 96 | 124 | 1.19 |

2. 색채 이미지 분포

다음으로는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에 따른 색채에서 도출된 기준색을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에 적용하여 젠더리스 표현 특성에 나타난 색채의 이미지 분포와 범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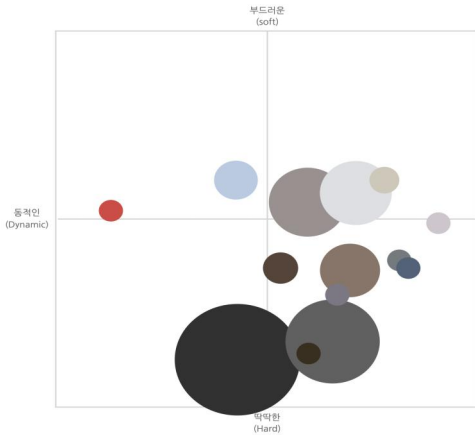
<그림 61> 절충성의 색채 이미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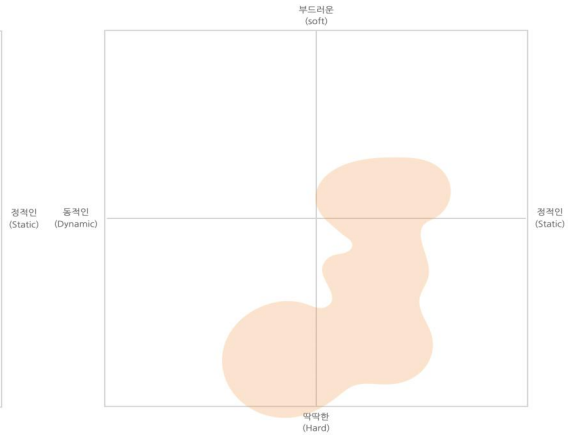
<그림 62> 절충성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

절충성에 나타난 대표적 색채 이미지는 <그림 61>, <그림 62>와 같이 ‘모던한’, ‘화려한’, ‘은은한’, ‘우아한’, ‘내추럴한’, ‘점잖은’ 순의 영역에서 나타났고 그에 따른 세부 색채 이미지는 모던한 이미지의 ‘기능적인’, ‘딱딱한’, ‘깊은’, ‘남성적인’, ‘무거운’, ‘견고한’의 형용사와 은은한 이미지에서는 ‘단순한’과 ‘정적인’, ‘심플한’, ‘정돈된’, ‘그윽한’ 형용사가 도출되었으며 화려한 이미지의 ‘매력적인’, ‘시원한’, ‘장식적인’, ‘환상적인’ 형용사가 도출되었고 우아한 이미지에서는 ‘편리한’ 형용사가, ‘내추럴한’ 이미지에서는 ‘편안한’ 형용사가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젠더리스의 절충성의 색채 이미지는 ‘딱딱한(hard)’과 ‘정적인(static)’ 축에 포괄되어 있으며 대표적 형용사 이미지는 ‘모던한’과 ‘은은한’, 그리고 ‘화려한’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절충성

은 ‘은은한’과 ‘화려한’의 상반된 형용사의 도출로 절충성의 상이한 이미지의 결합에서 오는 부조화의 병치를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방향성 제시와 상충된 이미지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63> 양성성의 색채 이미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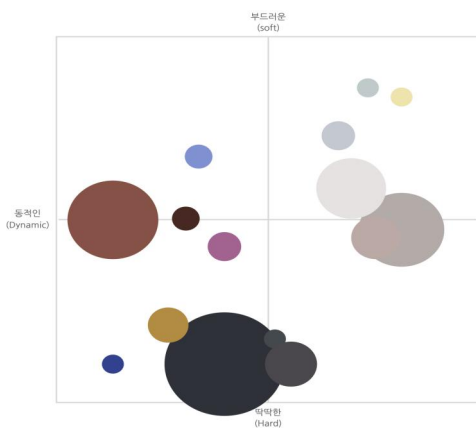
<그림 64> 양성성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

양성성에 나타난 대표 색채 이미지는 <그림 63>, <그림 64>와 같이 ‘모던한’, ‘점잖은’, ‘우아한’, ‘은은한’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상한’과 ‘화려한’, ‘경쾌한’에서는 각각 1개씩의 형용사가 미비하게 도출되었다. 7개의 가장 많은 도출 빈도를 보인 ‘모던함’에서는 ‘딱딱한’, ‘기능적인’, ‘깊은’, ‘무거운’, ‘남성적인’, ‘도시적인’, ‘견고한’의 세부 형용사가 도출되었고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보인 ‘점잖은’에서는 ‘견실한’, ‘절충적인’, ‘보수적인’, ‘격식있는’, ‘이성적인’, ‘품위있는’ 형용사가 도출되었으며 다음으로 ‘은은한’에서는 ‘심플한’, ‘정돈된’, ‘단순한’의 형용사가, ‘우아한’에서는 ‘고급스러운’, ‘멋진’, ‘클래식한’, ‘감각적인’ 형용사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1개씩의 세부 형용사가 도출된 ‘고상한’에서는 ‘차분한’이, ‘화려한’에서는 ‘넉넉한’이, ‘경쾌한’에서는 ‘선명한’ 형용사가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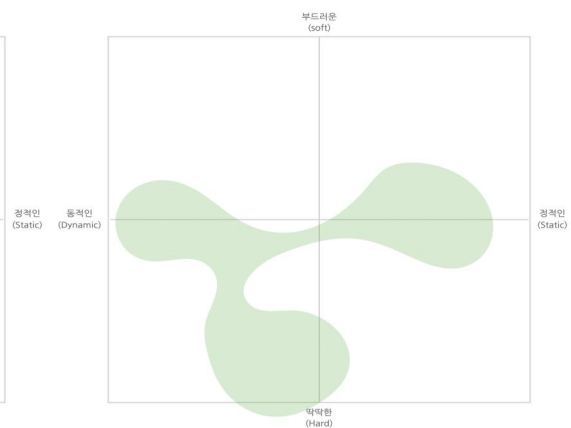
이와 같이 성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제 3의 성을 나타내는 양성성의 색채는 성의 모호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성의 의상에 남성적인 디자인을 대입하는

것을 표현 특성으로 착안하여 ‘모던함’과 ‘점잖은’의 대표적 색채 이미지의 도출로 보여진다. 또한 특정 이미지에 편중되기 보다는 ‘은은한’과 ‘우아한’과 같은 정적인 축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보아 절충성의 의상은 전체적으로 남성스러우며 미니멀한 디자인의 이미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특정의 의상에서 포인트적인 요소로 등장한 아이템으로 인하여 ‘화려한’과 ‘경쾌한’ 등과 같은 이미지가 추가적으로 도출되었으며 ‘화려함’의 ‘넉넉한’ 형용사적 이미지는 신체에 제약을 주지 않는 양성성의 디자인에서 온 결과로 보여진다. ‘경쾌한’의 경우 ‘선명한’의 형용사적 이미지만 도출되어 성적 독립성의 확산성을 부각할 수 있는 색채로 나타났다.



<그림 65> 유희성의 색채 이미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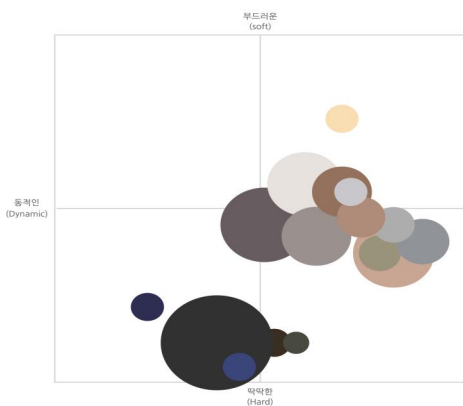


<그림 66> 유희성 색채 이미지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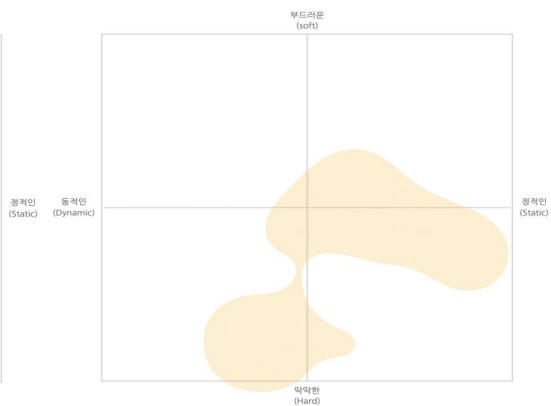
유희성에 나타난 색채의 대표 이미지 분포는 <그림 65>, <그림 66>과 같이 ‘모던함’이 6개, ‘다이나믹함’이 4개, ‘은은한’과 ‘경쾌한’이 3개, ‘온화한’과 ‘화려한’이 2개, ‘우아한’이 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던함’에서는 ‘기능적인’, ‘딱딱한’, ‘깊은’, ‘무거운’, ‘견고한’, ‘서양적인’의 세부 형용사가 도출되었으며 ‘다이나믹함’에서는 ‘강한’, ‘강인한’, ‘거친’, ‘와일드한’으로 도출되었고 ‘은은한’에서는 ‘단순한’, ‘심플한’, ‘정돈된’이 도출되었으며 ‘경쾌한’에서는 ‘활동적인’, ‘선명한’,

‘돋보이는’의 세부 형용사가 도출되었다. 이어서 ‘은화한’에서는 ‘연약함’과 ‘약한’, 그리고 ‘화려한’에서는 ‘매력적인’, ‘환상적인’의 형용사가 도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우아한’에서는 ‘동양적인’의 세부 형용사가 도출되었다. 이처럼 동적(dynamic)이며 반대로 정적(static)이고, 딱딱(hard)하며 부드러운(soft)의 범주에 색채가 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유희성은 개성이 강한 의상의 주류로 이루어져 색채의 이미지가 다양한 영역에서 고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희성은 젠더리스 표현 특성 중에 동적인 축에 속한 ‘다이나믹함’과 ‘경쾌한’과 같은 형용사의 이미지 영역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 반고전주의적 경향으로 다양한 사회적 성 역할에서의 해방과 그로 인한 유희 충동의 발산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양적인’과 ‘서양적인’의 반대되는 세부 형용사의 동시적 취득으로 특정 영역에서의 경계를 탈피한 시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분포지만 ‘은화함’의 ‘연약함’과 ‘약한’의 등장은 성인복에 유아적 요소의 도입에서 오는 유희적 착안으로 분석된다.



<그림 67> 관능성의 색채 이미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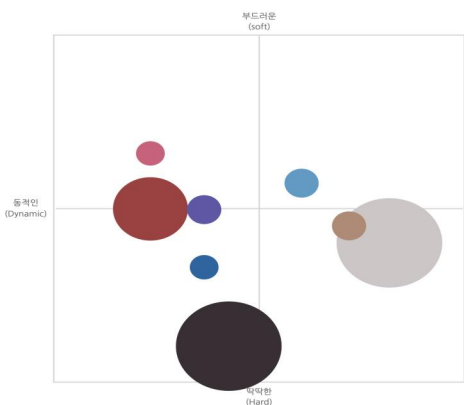


<그림 68> 관능성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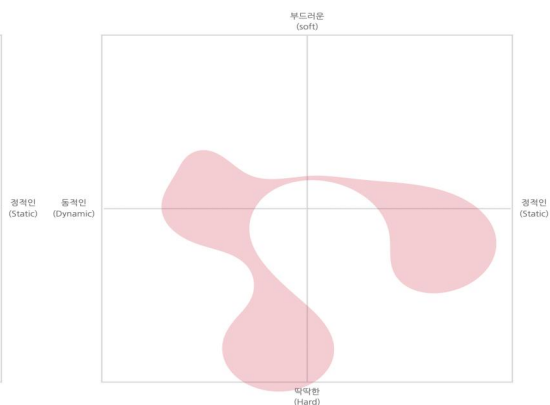
관능성에서 나타난 색채의 대표 이미지 분포는 <그림 67>, <그림 68>과 같으며 ‘모던한’, ‘우아한’, ‘은은한’, ‘내추럴한’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던한’은 ‘서양적인’, ‘기능적인’, ‘딱딱한’, ‘남성적인’, ‘깊은’, ‘무거운’과 같은 6개의 가장 많

은 세부 형용사를 도출했고 ‘우아한’은 ‘멋진’, ‘감각적인’, ‘편리한’, ‘동양적인’, ‘고급스러운’의 5개의 빈도수를 보였으며 ‘은은한’에서는 ‘심플한’, ‘단순한’, ‘정적인’이 3가지로 도출되었고 ‘화려한’에서는 ‘성숙한’의 형용사와 ‘내추럴한’에서는 ‘자연적인’이 세부 형용사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다른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과 동일하게 관능성의 색채 이미지는 ‘모던한’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것이 아닌 주체로서의 자유로우며 독립적인 제 3의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타 패션 디자인의 관능성과는 차별화된 젠더리스의 관능성에서는 테일러드 수트와 같이 남성성이 느껴지는 실루엣의 디자인이 주를 이루어 ‘우아한’의 범주에 다수의 색채 이미지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성적 매력의 어필보다는 여성을 독립적인 성적 주체로 인식하여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분별한 노출이 아닌 가슴과 허리와 같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의 포인트로 지정하여 중성의 이미지 속에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상의 색채는 ‘은은한’의 이미지와 ‘단순한’과 같은 정적인 세부 형용사 이미지가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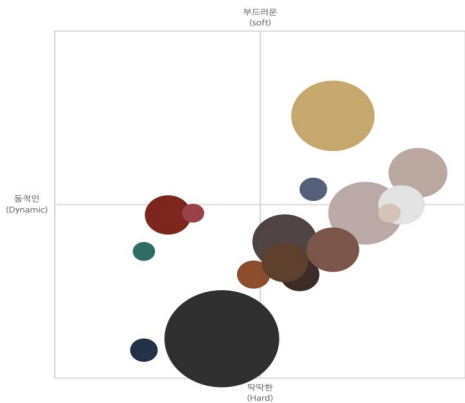
<그림 69> 과장성의 색채 이미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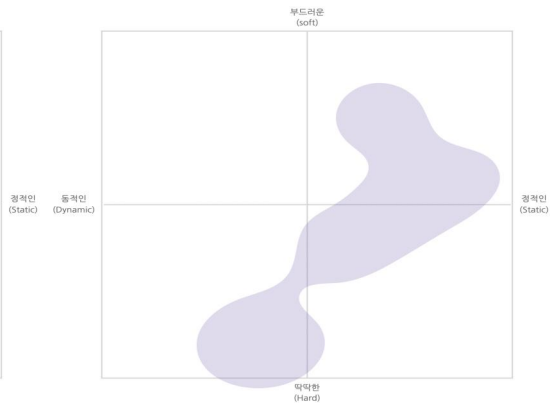
<그림 70> 과장성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

과장성에서 나타난 기준색의 색채 이미지 분포는 <그림 69>, <그림 70>과 같이 ‘모던한’, ‘고상한’, ‘은은한’ 순으로 나타났고 ‘고상한’과 ‘우아한’, ‘화려한’, ‘경쾌한’의 이미지는 각각 2개씩의 세부이미지로 나타났다. ‘모던한’에서는 ‘기능적인’, ‘딱딱한’, ‘깊은’, ‘남성적인’ 세부적 이미지가 드러났으며 ‘은은한’에서는 ‘심플한’, ‘정적인’, ‘단순한’의 세부 형용사가 나타났고 ‘고상한’에서는 ‘조용한’과 ‘수수한’이, ‘우아한’에서는 ‘동양적인’과 ‘클래식’이, ‘화려한’에서는 ‘성숙한’과 ‘매력적인’의 세부 형용사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쾌한’에서는 ‘다양한’과 ‘자유로운’의 세부 형용사가 도출됐다.

과장성은 다른 젠더리스 표현 특성에 나타난 의상 디자인에 비하여 형태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고 변형에 의한 왜곡적인 과장을 시도한 기법을 착안함으로써 다소 과한 장식성과 동적인 색채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조색인 저채도의 라이트 그레이시 톤의 컬러 도출은 ‘은은한’의 영역에 분포하여 젠더리스의 과장된 형태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패션에서의 과장성에 비해 젠더리스의 과장성은 무게감이 있는 정적인 남성스러움을 기조로 하고 있음으로 동적인 영역과 정적인 영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아한’의 ‘동양적인’과 ‘클래식한’의 세부 형용사의 도출은 미래보다는 과거 지향적인 성향을 띠어 과장성의 의상 디자인은 경쾌하고 화려함과 동시에 딱딱하고 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71> 역사성의 색채 이미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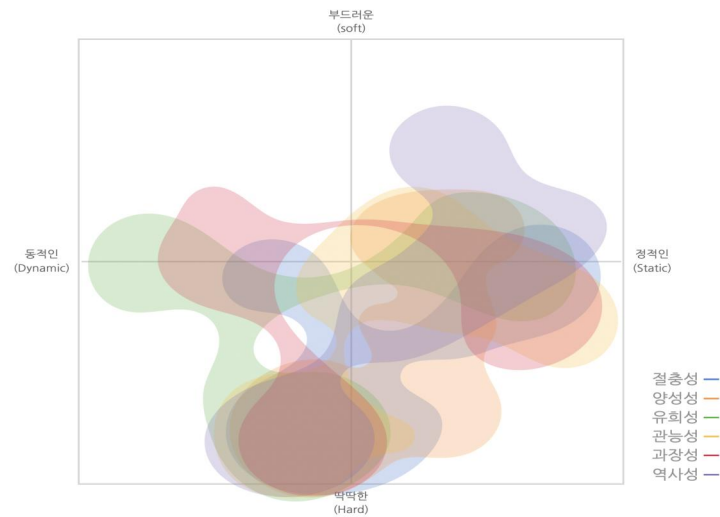
<그림 72> 역사성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

역사성에 나타난 기준색의 색채 이미지 분포는 <그림 71>, <그림 72>와 같이 ‘점잖은’, ‘모던한’, ‘은은한’ 순으로 나타났고 ‘내추럴한’과 ‘우아한’은 동일하게 2개씩의 세부 이미지가 도출되었으며 ‘다이나믹한’과 ‘고상한’ 그리고 ‘화려한’의 이미지도 각각 1개씩의 도출되었다. ‘점잖은’의 경우 ‘지적인’, ‘전통적인’, ‘보수적인’, ‘품위있는’, ‘격식있는’, ‘이성적인’, ‘세련된’, ‘고급스러운’의 8개의 세부 이미지가 나타났으며 ‘모던한’에서는 ‘기능적인’, ‘깊은’, ‘무거운’, ‘남성적인’, ‘딱딱한’, ‘도시적인’과 같은 6개의 세부 이미지가 나타났다. 이어서 ‘은은한’에서는 ‘정적인’, ‘단순한’, ‘그윽한’, ‘심플한’이 나타났고 ‘내추럴한’에서는 ‘자연적인’과 ‘전원적인’의 세부 형용사가, ‘우아한’에서는 ‘동양적인’, ‘클래식한’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한’에서는 ‘와일드한’이, ‘고상한’에서는 ‘조용한’이, ‘화려한’에서는 ‘매력적인’이 도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역사적 사실과 특정의 시대적 배경이 표현된 의상의 기법을 나타내는 역사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던한’의 이미지의 영역이 도출된 이유는 기존의 여성성을 탈피한 젠더리스적인 요소로 파악되며 남성적이고 무거운 딱딱한(hard) 축의 범주에 다수의 중성 이미지의 색채가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색채 이미지 스케일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점잖음’의 영역에서 젠더리

스의 역사성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동서양의 민족적이며 토속적인 패션과 과거에 나타난 복고주의적 패션의 유형으로 ‘전통적’이며 ‘보수적’이고 ‘격식 있는’ 이미지의 도출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역사성의 색채 이미지는 딱딱하고 정적이며 부드러운 영역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젠더리스의 역사성에 나타난 의상은 대부분 밀리터리룩과 같은 군복에서 재창조된 의상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역사성의 색채가 난색 계열의 따뜻한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동적인 이미지보다는 차분하고 정적인 이미지의 색채 분포가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 73>의 젠더리스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을 종합해보면 딱딱한 축의 ‘모던한’ 영역에 젠더리스의 전체 표현 특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드러운 축의 ‘맑은’, ‘귀여운’의 영역에는 단 하나의 표현 특성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I.R.I 이미지 스케일에서 젠더리스의 색채가 차지하는 이미지의 범주는 전체적으로 딱딱하고 동적이거나, 또는 딱딱하고 정적인 축의 영역에 균형감 있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3> 젠더리스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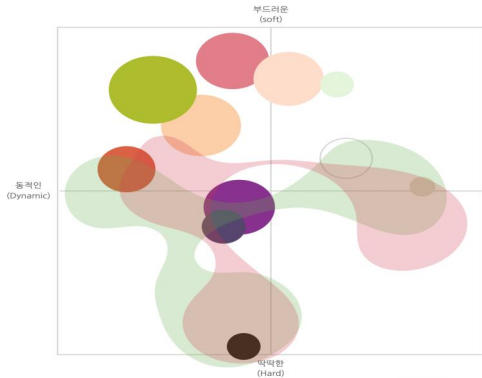
3. 젠더리스 패션 표현 특성별 색채 이미지 스케일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된 12개의 중성 이미지를 LRI 단색 컬러 및 배색 이미지 스케일에 1차 대입하여 중성 이미지의 범주를 규정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성을 초월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을 포괄적으로 통합한 중성 이미지의 상위 개념인 젠더리스 이미지 스케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성 이미지를 2차적인 대입하여 젠더리스 표현 특성에 따른 중성 이미지의 범주를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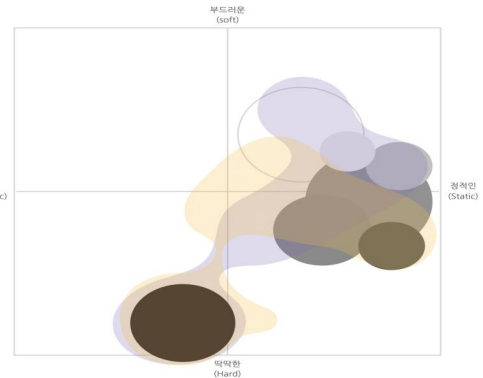
보이시 이미지의 색채는 <그림 74>와 같이 블랙, 화이트, 그린, 퍼플, 핑크, 피치, 코랄의 색상의 비비드 톤과 브라이트와 같은 파스텔 톤이 주를 이루며 중성 이미지의 컬러 중 가장 다양한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동적(dynamic)이고 부드러운(soft) 영역에서의 색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보이시의 형용사적 이미지는 다른 중성 이미지에 비해 ‘귀여운’, ‘깨끗한’, ‘경쾌한’, ‘성숙한’, ‘시원한’, ‘편리한’, ‘모던한’, ‘딱딱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젠더리스 표현 특성과 대조하여 분석해본 결과 유사한 표현 특성 범주는 유희성과 과장성으로 나타났으나 정적이고 딱딱한 축에서 대다수의 영역을 차지하는 젠더리스와는 가장 비유사적인 형태를 띤 중성 이미지로 나타났다.

매니시 이미지는 <그림 75>와 같이 블랙, 화이트, 그레이와 같은 무채색의 텅 톤을 띠고 있으며 이미지의 영역은 ‘모던한’, ‘점잖은’, ‘고상한’, ‘은은한’, ‘우아한’, ‘내추럴한’에 해당되며 세부 형용사 이미지는 ‘기능적인’, ‘딱딱한’, ‘깊은’, ‘품위있는’, ‘보수적인’, ‘전통적인’, ‘조용한’, ‘수수한’, ‘차분한’, ‘단순한’, ‘심플한’, ‘정돈된’, ‘단정한’, ‘간편한’, ‘편안한’에 해당된다. 이처럼 매니시의 형용사 이미지는 딱딱하고 정적이며 부드러운 영역의 관능성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사성의 경우도 딱딱하고 정적인 영역에서의 유사교차가 나타났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매니시의 의상의 주된 아이템과 실루엣이 남성성을 부각시키는 테일러드 재킷이므로 역사성에서 나타난 군복을 기조로 한 재킷과

같이 남성성이 부각된 여성의 강인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74> 젠더리스 이미지가 적용된 보이시 이미지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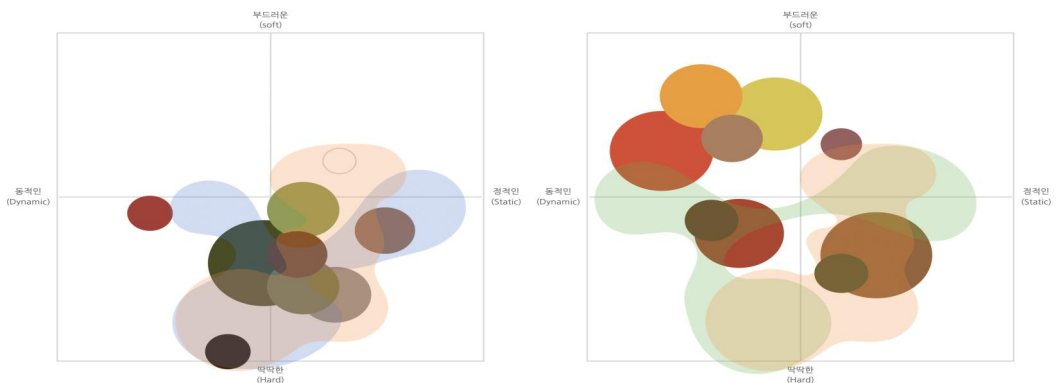


<그림 75> 젠더리스 이미지가 적용된 매니시 이미지 범주

밀리터리는 <그림 76>과 같이 카키와 브라운의 주조색과 화이트, 그레이, 블랙의 보조색을 띠고 있으며 색채 이미지는 모던하고 점잖은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세부 이미지는 ‘하이테크한’, ‘실용적인’, ‘진보적인’, ‘서양적인’, ‘도시적인’, ‘남성적인’, ‘견실한’, ‘지적인’, ‘이성적인’, ‘격식있는’, ‘세련된’, ‘고급스러운’, ‘멋진’, ‘클래식한’의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범주의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은 양성성, 절충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밀리터리 이미지는 군복 형식의 밀리터리 수트가 주된 디자인으로 여성 패션에서의 기존의 성을 탈피한 양성화된 이미지의 미니멀한 중성 룩의 형태인 수트, 재킷, 밀리터리 코트와도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밀리터리 색채 중 포인트 컬러는 이미지 스케일의 영역 중 동적이고 정적인 범주로 분리되어 있어서 젠더리스 절충성의 상반된 이미지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비하게나마 나타났다.

히피 이미지의 색채는 <그림 77>과 같이 레드, 오렌지 레드, 옐로우의 딥톤과 텀톤으로 나타났으며 대표 형용사 이미지는 ‘귀여운’, ‘화려한’, ‘점잖은’으로 나타났다. 세부 이미지는 ‘쾌활한’, ‘재미있는’, ‘달콤한’, ‘향기로운’, ‘여성적인’, ‘신선한’, ‘상쾌한’, ‘얇은’, ‘클래식한’, ‘전통적인’, ‘품위있는’, ‘보수적인’, ‘성

속한’, ‘시원한’, ‘매력적인’으로 나타났다. 젠더리스 표현 특성과 대조하였을 때 유희성과 절충성의 범주가 유사영역으로 나타났으나 보이시 이미지처럼 율동성이 큰 동적이고 부드러운 영역에 색채 이미지가 다수 발생하여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과는 비유사적인 형태를 띤 것으로 젠더리스보다 부드럽고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중성 이미지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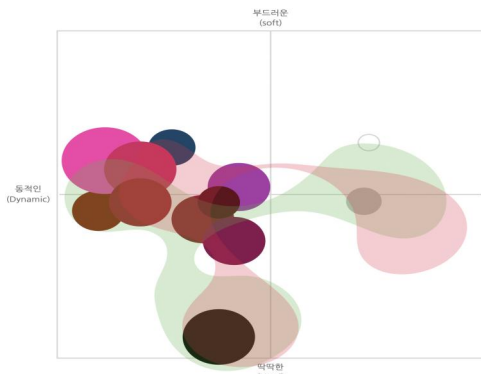
<그림 76> 젠더리스 이미지가 적용된
밀리터리 이미지 범주

<그림 77> 젠더리스 이미지가 적용된
히피 이미지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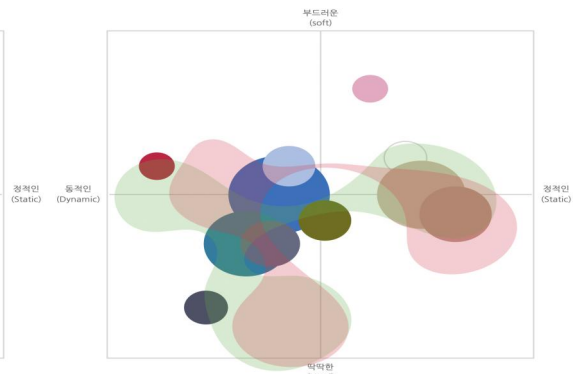
유니섹스 이미지의 색채는 <그림 78>과 같이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스카이 블루, 핑크, 레드, 블루, 베이지, 카키의 내추럴 톤, 브라이트 톤, 비비드 톤으로 나타났으며 화려한, 우아한, 은은한, 모던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세부 이미지로는 ‘성숙한’, ‘넉넉한’, ‘여유있는’, ‘매력적인’, ‘시원한’, ‘편리한’, ‘동양적인’, ‘심플한’, ‘단순한’, ‘정돈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유니섹스의 색채 이미지를 젠더리스 표현 특성과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 유희성과 과장성의 순으로 유사범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반대의 성의 특질을 의상으로 착용하여 양성의 착시를 나타내는 유니섹스는 반고전주의적 성 역할의 해방과 일탈의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유희성과 유사한 범주를 보였으며 신체보다 의상의 구조와 형상을 크게하여 변형한 과장성도 함께 나타나 몸의 실루엣을 최소

화하며 성에 관한 제약이 없는 박시하고 루즈한 유니섹스의 의상 이미지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핑크 이미지의 색채는 <그림 79>와 같이 다크하고 비비드한 톤의 채도가 높은 블랙과 화이트, 레드, 퍼플, 핑크 색상으로 해당 이미지는 ‘경쾌한’, ‘화려한’, ‘다이나믹한’, ‘모던한’의 범주에 나타났다. 세부 이미지로는 ‘젊은’, ‘스포티한’, ‘활동적인’, ‘선명한’, ‘돋보이는’, ‘다양한’, ‘울동적인’, ‘자유로운’, ‘성숙한’, ‘차가운’, ‘하이테크한’, ‘인공적인’, ‘딱딱한’, ‘기능적인’, ‘거친’, ‘와일드한’으로 분석됐다. 또한 과도한 신체노출이 나타나는 의상의 실루엣과 과격적인 룩으로 구성된 핑크의 이미지와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 중 유희성과 과장성이 유사 범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8> 젠더리스 이미지스케일이 적용된 유니섹스 이미지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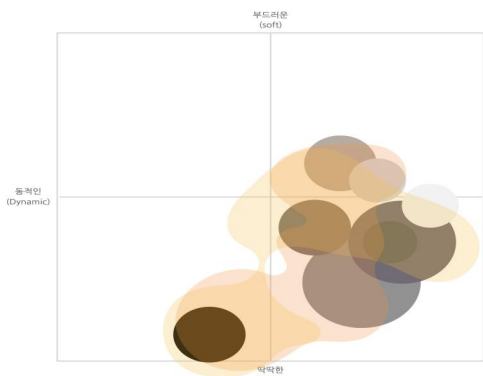


<그림 79> 젠더리스 이미지스케일이 적용된 핑크 이미지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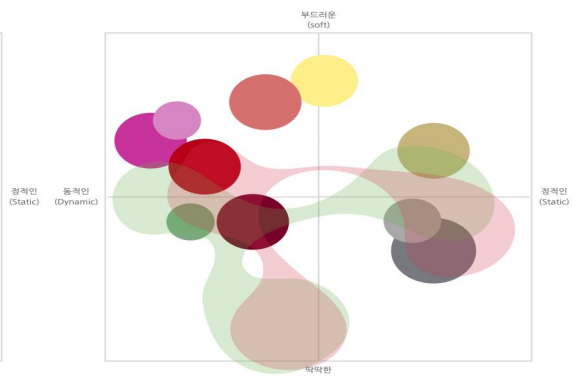
앤드로지너스의 색채 이미지는 <그림 80>과 같이 그레이, 블랙, 닥 베이지의 라이트 그레이시, 페일, 파스텔 톤으로 나타났고 ‘우아한’, ‘고상한’, ‘점잖은’, ‘모던한’, ‘은은한’의 이미지의 영역에 분포되었으며 세부 이미지는 ‘편리한’, ‘동양적인’, ‘클래식한’, ‘단순한’, ‘정적인’, ‘심플한’, ‘조용한’, ‘수수한’, ‘차분한’, ‘나이든’, ‘오래된’, ‘탁한’, ‘중후한’, ‘건실한’, ‘전통적인’, ‘보수적인’, ‘품위있는’, ‘격식있는’, ‘세련된’, ‘지적인’, ‘기능적인’, ‘딱딱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젠더리스와

대조 분석을 통하여 양성성과 관능성이 유사범주로 나타났으며 앤드로지너스의 대표적 실루엣인 I형 실루엣의 테일러드 수트와 같이 중성인 여성의 의상에서 느껴지는 양성성과 자유로우며 독립적 형태를 띤 여성의 이미지인 관능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메트로섹슈얼의 색채 이미지는 <그림 81>과 같이 핑크, 블루, 그린, 옐로우의 비비드 톤, 브라이트 톤, 라이트 톤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이미지는 ‘귀여운’, ‘경쾌한’, ‘깨끗한’, ‘우아한’, ‘고상한’으로 나타났다. 세부 이미지는 ‘재미있는’, ‘쾌활한’, ‘신선한’, ‘상쾌한’, ‘자유로운’, ‘울동적인’, ‘다양한’, ‘정돈된’, ‘단정한’, ‘가지런한’, ‘조용한’, ‘수수한’, ‘차분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을 젠더리스 표현 특성에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 젊고 스포티한 느낌의 동적인 영역의 이미지와 정적인 축의 이미지를 함께 나타내는 유희성과 과장성의 범주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을 기준으로 한 양성성의 메트로섹슈얼 패션 실루엣은 피트 앤 슬림하고 밑 위 길이가 짧은 바지와 곡선형의 어깨를 띠고 있어서 남성의 신체에 여성적 요소를 담아 의외성에서 오는 유희적인 충동과 신체의 직선적 요소를 곡선화하여 변형한 과장성의 이미지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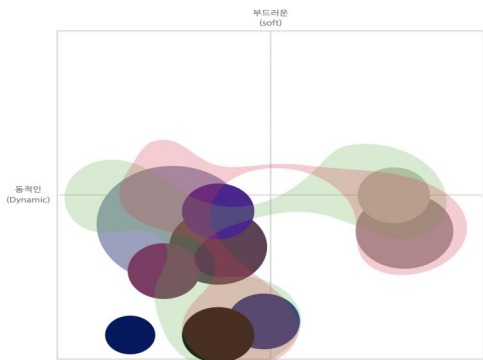
<그림 80> 젠더리스 이미지가 적용된 앤드로지너스 이미지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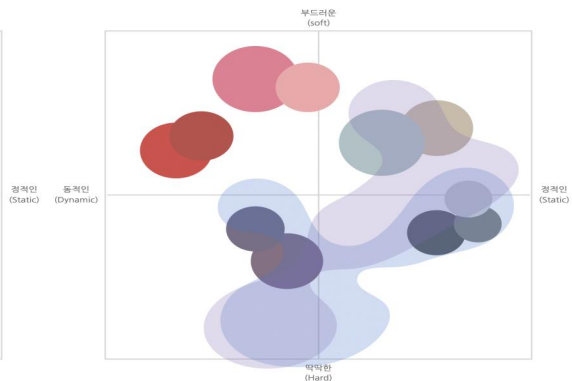
<그림 81> 젠더리스 이미지가 적용된 메트로섹슈얼 이미지 범주

콘트라섹슈얼의 색채는 <그림 82>와 같이 블랙, 화이트, 블루, 퍼플, 그레이 색상의 스트롱하고 다크한 톤으로 ‘모던한’, ‘다이나믹한’, ‘화려한’, ‘경쾌한’, ‘은은한’, ‘우아한’의 이미지를 띠고 있다. 세부 이미지로는 ‘매력적인’, ‘성숙한’, ‘시원한’, ‘한국적인’, ‘다양한’, ‘복잡한’, ‘울동적인’, ‘뛰어난’, ‘개성적인’, ‘혁신적인’, ‘기운찬’, ‘강인한’, ‘기능적인’, ‘딱딱한’, ‘깊은’, ‘심플한’, ‘단순한’을 나타낸다. 콘트라섹슈얼과 유사한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으로는 심플하고 차분하며 딱딱한 이미지의 의상에 어깨나 가슴을 과장하여 여성의 어깨라인을 부각시킨 Y-라인과 같은 실루엣으로 젠더리스의 과장성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어지며 남성적 수트핏의 의상에 깊은 브이넥, 그리고 가슴선의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은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인 관능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로스섹슈얼의 색채 이미지는 <그림 83>과 같이 퍼플, 블루, 옐로우, 레드, 핑크의 색상과 라이트 그레이쉬, 다크 그레이쉬 색조로 나타났다. 형용사 이미지는 크게 ‘은은한’, ‘내추럴한’, ‘깨끗한’, ‘경쾌한’, ‘귀여운’, ‘모던한’으로 나타나며 세부 형용사 이미지는 ‘단순한’, ‘전원적인’, ‘편안한’, ‘간편한’, ‘편리한’, ‘상쾌한’, ‘가벼운’, ‘맑은’, ‘사랑스러운’, ‘달콤한’, ‘쾌활한’, ‘새로운’, ‘자유로운’, ‘스포티한’, ‘차가운’, ‘활동적인’, ‘실용적인’, ‘진보적인’, ‘도시적인’으로 나타났다. 젠더리스 표현 특성과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 절충성과 역사성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의 아이템을 하나의 패션 코드로 여김과 동시에 여성적 취향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크로스섹슈얼은 젠더리스의 상반된 이미지의 코디네이션을 대표하는 절충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해방성을 표출하는 유희성의 범주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2> 젠더리스 이미지가 적용된
콘트라섹슈얼 이미지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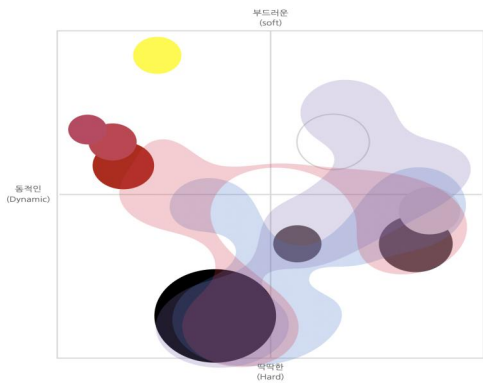


<그림 83> 젠더리스 이미지가 적용된
크로스섹슈얼 이미지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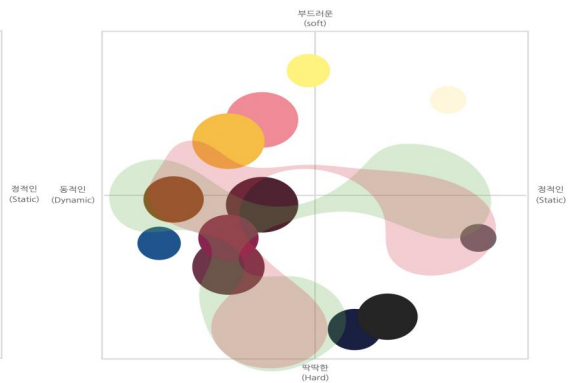
이모보이의 색채는 <그림 84>와 같이 주조색 블랙과 엑센트 컬러인 레드, 옐로우, 실버, 화이트의 다크하고 딥한 색조로 나타났다. 이미지는 ‘모던한’, ‘점잖은’, ‘고상한’, ‘은은한’, ‘우아한’, ‘내추럴한’, ‘경쾌한’에 해당되며 세부 이미지는 ‘서양적인’, ‘기능적인’, ‘딱딱한’, ‘깊은’, ‘이상적인’, ‘격식있는’, ‘정적인’, ‘조용한’, ‘수수한’, ‘차분한’, ‘전원적인’, ‘자연적인’, ‘울동적인’, ‘자유로운’, ‘스포티한’으로 나타났다. 젠더리스 표현 특성 중 절충성, 과장성, 역사성이 유사범주로 나타났으며 딱딱하고 정적인 축에 나타난 이미지 외에는 크게 해당이 되지 않아 젠더리스의 범주와는 비교적 거리가 있으며 부드러우며 동적인 범주와 딱딱하며 정적인 범주에 이미지들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보아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의 배경에 상반된 성과 사상의 아이টে임을 혼합하여 개성의 강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엠니스의 색채 이미지는 <그림 85>와 같이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핑크, 오렌지, 마젠타, 블루, 와인, 옐로우의 다크, 비비드, 파스텔 톤으로 대표형용사 이미지는 ‘깨끗한’, ‘화려한’, ‘내추럴한’, ‘경쾌한’, ‘모던한’이며 세부 이미지는 ‘맑은’, ‘사랑스러운’, ‘쾌활한’, ‘선명한’, ‘돋보이는’, ‘울동적인’, ‘다양한’, ‘매력적인’, ‘복잡한’, ‘개성적인’, ‘뛰어난’, ‘무거운’, ‘견고한’으로 나타났다. 젠더리스 표현 특성과 대조해보면 유희성과 과장성이 유사 범주로 나타나 남성들

의 고정된 사회적 성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의 해방감에서 오는 유희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며 여성과 반대로 신체를 핏 하는 의상을 통해 남성이 가진 인체를 더욱 드러내고 부각한 섹슈얼한 모습을 어필한 과장성의 이미지로 분석된다.



<그림 84> 젠더리스 이미지스케일이 적용된 이모보이 이미지 범주



<그림 85> 젠더리스 이미지스케일이 적용된 엠니스 이미지 범주

V. 결론

사회적으로 젠더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 차별에 관한 반성과 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유럽 연합(EU)은 2009년 여성의 이름 앞에 붙는 미스(Miss)와 미시즈(Mrs), 그리고 프랑스어 마드모아젤(Mademoiselle)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운동선수나 정치인을 의미하는 스포츠맨과 스테이츠맨(Statemen)을 애슬리츠(athletes)와 폴리틱얼 리더(political leader)로 변경했다⁹⁷⁾. 이처럼 사회로부터 오는 성 역할에서의 해방의 시도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패션 디자인 영역에서 젠더리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젠더리스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를 기반으로 차별과 평등의 인식을 내포하며 사회적인 수용의 단계를 넘어 현재는 남녀가 함께 쓰는 화장품 브랜드나 패션 디자인으로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의 경계가 모호해진 젠더 뉴트럴 시대에 젠더리스를 포함한 다양한 중성 이미지의 영역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젠더리스 표현 특성 색채에 따른 중성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한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과 중성 형용사 이미지의 색채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1차적 분석을 통하여 젠더리스의 대표 상징적 색채를 도출한 후 젠더리스 표현특성별 이미지에 따른 중성 색채 이미지 스케일 제안을 위한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색채 이미지 분석법은 1,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차 분석은 보그 공식홈페이지(<http://www.vogue.co.kr/>)를 통하여 수집된 젠더리스 컬렉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의 수집 범위는 2011년 S/S부터 2020년 F/W시즌에 발표된 컬렉션에서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이 나타난 800점의 의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젠더리스의 표현특성에 따른 색채를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

97) Artur Papyan. "EU bans sexist words like 'Miss' and 'Mrs'", 2009.03.17. <https://ditord.com/2009/03/eu-bans-sexist-words-like-miss-and-mrs/>(접속일:2020.11.25.)

해 각 표현 특성별로 20개의 의상을 선별하였으며 총 120개의 젠더리스 의상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 표준색 색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80가지의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별 주조색을 추출하여 총 480개의 젠더리스 색채를 도출하였다.

2차 분석은 젠더리스의 기준색을 I.R.I 컬러 플래닝 프로세스를 통해 젠더리스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을 제작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중성 이미지 유형의 색채를 대입하여 중성 색채 이미지의 범주와 영역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리스 표현 특성은 절충성, 양성성, 유희성, 관능성, 과장성, 역사성과 같이 총 6가지로 분류됐다. 절충성은 상반된 이미지의 아이টে를 코디네이션한 두 영역의 교류로 결합과 대조를 통한 병치에서 오는 새로운 디자인을 나타냈으며 양성성은 젠더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의 구분 자체를 초월한 것으로 양성의 융합을 통하여 나타난 제 3의 성적 디자인을 나타냈다. 유희성은 펀(fun) 요소를 본질로 삼는 반고전주의적 경향을 띤 동시에 성 역할에서의 해방과 일탈의 쾌감, 자유의 감정, 유희 충동의 발산을 의미했으며 관능성은 나르시즘에 의해 성적 대상화된 에로티시즘 이미지와 성적 주체로서 자유로우며 독립적인 강인한 여성 인체 이미지를 나타냈다. 과장성은 확장과 축소, 변형을 통해 신체를 왜곡하여 실제보다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으로 형상을 주관적이고 창조적으로 재형성했으며 역사성은 복고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과거의 흔적을 새로운 현대적 가치와 융합한 디자인을 패션에 응용하여 재현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창조를 나타냈다.

둘째, 젠더리스 표현 특성별로 나타난 색채 분석은 다음과 같다.

젠더리스의 절충성에 나타난 색채는 퍼플블루(PB), 레드(R), 무채색(N) 순이며 주조색으로는 저명도의 저채도를 띤 다크 톤의 퍼플블루(PB)와 고명도와 저채도의 그레이시 톤의 퍼플블루(PB)로 나타났고 보조색으로는 중채도의 레

드(R)와 퍼플(P)로 나타나 한색과 난색의 혼합 비율이 대두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절충성의 색채 이미지는 ‘모던한’, ‘화려한’, ‘은은한’, ‘우아한’, ‘내추럴한’, ‘점잖은’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색채와 동일하게 상이한 이미지의 영역으로 나타나 상반된 이미지의 절충으로 분석됐다. 이는 김지혜, 이연희(2016)⁹⁸의 절충성의 색채에서 나타난 무채색의 베이스에 난색 계열의 사용과 저명도, 저채도의 베이스에 상반되는 브라이트, 비비드 톤과 같이 밝은 색조들이 도출된 것과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충성과 유사한 중성 이미지는 매니시, 밀리터리, 크로스섹슈얼, 이모보이 이미지로 나타났다.

둘째, 젠더리스의 양성성은 무채색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채색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색채가 탁한 저채도로 분포되어 있어 색상이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여성의 의상에 남성적 디자인 요소를 결합하여 남녀의 공존과 모호성을 표출한 결과로 분석됐다. 이는 김누리, 박영경(2017)⁹⁹의 중성색에 관한 연구에서처럼, 패션은 색채보다 형태와 소재의 디자인적 요소가 중성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 이론을 뒷받침하며 중성 디자인 영역에서의 양성적 고유의 형태성은 이미지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포인트로 쓰인 한색의 퍼플블루(PB), 퍼플(P), 블루(B)는 여성의 의상에 남성성을 가미하여 양성성이 느껴지는 이미지로 나타났고 색채 이미지는 ‘모던한’, ‘점잖은’, ‘은은한’으로 도출되었으며 양성성과 유사한 중성 이미지로는 밀리터리, 히피, 앤드로지너스 이미지로 분석됐다.

젠더리스 유희성에 나타난 색채는 레드(R), 퍼플블루(PB), 레드퍼플(RP)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조색은 저명도, 저채도의 블랙에 가까운 레드퍼플(RP)로 분석됐다. 반면에 보조 색채와 포인트 색채는 고채도의 레드(R), 블루(B), 레드퍼플(RP)로 젠더리스 표현 특성의 색채들보다 다채로운 편에 속했으며 유희성의 색조는 저(低)에서 고(高)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한색과 난색의 경계가

98) 김지혜, 이연희(2016). op.cit., p.910.

99) 김누리, 박영경(2017). op.cit., p.134.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희성의 색채 이미지는 ‘모던함’, ‘은은한’, ‘경쾌한’, ‘온화한’, ‘화려한’으로 나타나 동적임(dynamic)과 동시에 정적(static)이고 딱딱(hard)하며 부드러운(soft) 범주의 색채가 고르게 나타났다. 또한 젠더리스 표현 기법 중 동적인 축에 빈도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젠더리스 표현 특성별 의상 중 유희성의 패션 디자인이 비교적 개성이 강한 의상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색채 이미지의 공간에서 차지하는 범주가 울동성이 크고 다채롭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사한 중성 이미지는 보이시, 히피, 유니섹스, 핑크, 메트로섹슈얼, 콘트라섹슈얼, 엠니스로 나타났다.

젠더리스의 관능성에 나타난 색채는 무채색(N), 옐로우레드(YR), 레드(R), 레드퍼플(RP)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채색(N)을 제외한 워 톤 계열은 시스루와 같이 신체의 피부가 그대로 노출되는 소재를 활용한 의상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저명도와 고명도의 클린하고 무거운 색상의 의상을 바탕으로 신체가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하여 독립적이며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관능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능성의 색채 이미지는 ‘모던한’, ‘우아한’, ‘은은한’, ‘내추럴한’으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중성이미지로는 매니시, 앤드로지너스 이미지로 분석되어 단순한 섹스어필보다는 여성을 독립적인 성적 주체로서 인식하여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젠더리스의 과장성에 나타난 색채는 채도가 낮은 베이스 컬러에 중명도와 중·고채도의 레드(R), 퍼플블루(PB), 레드퍼플(RP)을 사용하여 의상의 형상을 극대화하여 강조하고 과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장성의 색채 이미지는 ‘모던한’, ‘고상한’, ‘은은한’으로 나타나 다소 과한 의상의 장식성으로 인하여 동적인 색채가 두드러짐과 동시에 반대의 은은한 영역의 분포에서는 젠더리스의 과장된 형태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사한 중성 이미지로는 보이시, 유니섹스, 핑크, 메트로섹슈얼, 콘트라섹슈얼, 이모보이, 엠니스 이미지로 나타났다.

젠더리스의 역사성에 나타난 색채는 베이스 컬러인 무채색(N)을 기준으로 옐로우(Y), 레드(R), 옐로우레드(YR)와 같은 난색과 퍼플블루(PB), 블루그린(BG)의 한색 계열로 나뉘어 나타났다. 주조색인 스트롱한 톤의 골드 컬러는 고풍스럽고 중후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이와 함께 난색 계열의 색채는 과거지향적이며 차분하고 격식이 있는 이미지를 나타냈다. 또한 퍼플블루(PB)와 블루그린(BG)과 같은 한색의 사용으로 색채의 보색대비를 통하여 따뜻한 색채의 채도를 높여 온도감의 상승과 역사성의 미적 효과를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사성의 색채 이미지로는 ‘점잖은’, ‘모던한’, ‘은은한’이 나타났고 딱딱하고 정적이며 부드러운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사한 중성 이미지로는 매니시 이미지가 나타났다.

셋째, 젠더리스를 나타내는 상징적 대표 색채를 추출하여 색채 이미지 분포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젠더리스 패션 표현 특성별 색채 이미지 스케일로 중성 이미지가 젠더리스 디자인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젠더리스 안에 다양한 중성 이미지의 영역이 고르게 분포되어 중성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최근까지 진행된 젠더리스의 연구들은 색채 이미지 분석보다는 패션의 표현 특성에 관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에서 디자인의 형태와 함께 색채의 이미지, 그리고 다양한 중성 이미지의 범주를 분류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들을 반영한 이론적 모델 제시하였다. 또한 패션의 범주를 넘어서 뷰티 영역으로까지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그동안 모호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중성 이미지의 색채를 뷰티디자인 프로세스의 컬러 플래닝 단계에 적용하여 보다 명확한 범주의 객관성 있는 중성 이미지 색채를 활용함으로써 뷰티 분야에서도 실용 가치를 높일 것으로 본다. 또한 퍼스널컬러 시스템의 이미지 메이킹 색채 참고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패션과 뷰티의 색채 이미지를 일치시켜 부합할 수 있으므로 인체 코드

네이션의 디자인 완성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본다.

차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 표본의 일반화와 측정도구에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는 성을 초월하는 ‘제 3의 성’을 뜻하는 젠더리스를 중심으로 표현 특성과 색채를 도출하여 이미지를 정의한 것으로 측정 도구를 여성에 국한지어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의 경향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남성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표현 특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강조로 특정 성의 부각에 국한되어 여성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표현기법에 비해 세분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양성의 패션 모두를 아우르는 젠더리스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 색채 분석 시스템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젠더리스와 중성 이미지의 색채를 도출하기 위하여 채택한 프로그램인 한국표준색 색채분석 프로그램(KSCA)은 색상수를 감소하여 색채를 축소한 후 도출하는 프로세스로 색의 감소시 약간의 색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니터의 해상도에 따라 컬러 추출의 정확도가 변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색채 분석에 적합한 색채 분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젠더리스에 따른 색채 분석의 정확도와 중성 범주의 형용사적 이미지 배치에 관하여 패션 디자인을 토대로 한 뷰티 디자인에서의 상호보완적 요인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실용가치를 높이는 이론적 토대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단행본>

- 김난도 외 8(2019). 「트렌드 코리아 2020」, 미래의창.
- 정홍숙(2014). 「서양패션문화사」, (주)교문사.
- 최경희(2009). 「패션속의 성」, 경기도:(주)한국학술정보.
-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1997). 「패션전문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소.
- I.R.I색채연구소(2003). 「Color Combination 어떤색이 좋을까?」, (주)영진닷컴.
- I.R.I색채연구소(2004). 「감성만족 컬러마케팅」, (주)영진닷컴.
- Marian Salzman(2006). 「남자의 미래」, 이현주 역, 서울: 김영사.
- Jung, Karl G.(1964). 「Man and his symbols」. 이윤기 역, 열린책들.

<학위논문>

- 고지민(2019).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작품 연구 - 샤샤발츠, 마기마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선(1983). 근대 서구 여성패션의 기능화 요인에 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2015).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본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소연(2014). 1960년대 스타일을 재현한 현대 패션 뷰티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및 미적 특성,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소영(2001).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이상적 신체미, 숙명여자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주영(2002), *걸 파워 의상에 표현된 3세대 페미니즘 여성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지혜(2016).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의 표현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성욱(2019). “퍼스 기호학 관점에서의 현대 젠더리스 패션 스타일 표현특성 연구”,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현정(2018).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예술의 메시지를 반영한 패션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백아름(2015). *보그 화보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별 뷰티디자인 트렌드 분석*,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수현(2015). *다셈 싱(Tarsem Singh) 영화의상에 나타난 매직리얼리즘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유혜진(2012).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엠니스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수현(2013). *핑크 이미지의 표현 특성을 응용한 스타일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승연(2018). “문화현상에 따른 화장품 브랜드 패키지디자인 제안”,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현중(2019). “젠더리스 스타일을 응용한 Z세대 메이크업 디자인 제품 이미지 개발 연구”,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승수(2010). *과장형 패션이 신체에 미친 영향에 관한연구: 유행의 강제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학술지>

- 강숙녀, 권진(2013). “현대 니트웨어에 표현된 앤틱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19(2), pp.1-16.
- 권정숙(2008). “패션에 표현된 네오젠더 개념의 특성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8(2), pp.37-58.
- 권하진(2019). “팔로모 스페인(Palomo Spain)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 복합성”,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7(2), pp.1-17.
- 김경옥, 금기숙(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학회지*, 36(0), pp.239-262.
- 김누리, 박영경(2017). “성별과 연령에 따른 연상 대상별 중성색으로의 인식 차이”,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61(-), pp.128-135
- 김정미(2013).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5(6), pp.862-873.
- 김정은, 이재정(2004). “현대 패션에 표현된 키덜트적 유희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4(1), pp.85-99.
- 김지혜, 이연희(2016). “현대 여성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의 표현 특성”, *패션문화학회*, 24(6), pp.903-919.
- 김현순(2001). “유니섹스 영 캐주얼웨어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1(6), pp.85-99.
- 김현정, 임은혁(2015).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주디스 버틀러의 정체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패션학회*, 65(3), pp.47-61.
- 박미령(2014). “현대패션에 표현된 젠더의 혁신 이미지”, *한국생활과학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23-27.
- 박신미, 이재정(2010). “1900년대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 고찰”, *한국패션디자인학회*, 10(3), pp.115-133.

- 박주희, 하지수(2008). “한국과 미국의 Emo Fashion Style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학회*, 58(2), pp.48-61.
- 안광숙(2018).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표현된 젠더리스 특성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9(4). pp.1543-1556.
- 안현주(2007). “크로스섹슈얼 이미지로 표현된 남성 패션의 디자인 특성 분석”, *한국니트디자인학회*, 5(2), pp.21-34.
- 양은진, 이인성(2009). “현대 여성의 콘트라섹슈얼 성향에 따른 패션 디자인 개발”, *패션문화학회*, 17(5), pp.733-745.
- 유현정, 권미정(2019). “현대패션에 나타난 이브 생 로랑의 뮤즈패션”,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5(4), pp.365-377.
- 유홍식(2007). “국내의류업체의 패션상품에 나타난 젠더리스 연구”, *한국문화학회*, 10(3), pp.57-72.
- 윤현경, 신원선(2017). “대학생이 선호하는 간호사 메이크업 이미지에 대한 연 I.R.I 이미지스케일을 중심으로”,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18(3), P.39-53.
- 이기열, 강병석(2007). “현대 패션의 과장된 인체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8(1), pp.397-407.
- 이언영, 변미연, 이인성(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남성복 스타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 8(2), pp.293-301.
- 이연희, 김영인(2005). “현대패션룩에 표현된 성 정체성”, *패션문화연구학회*, 13(5), pp.709-803.
- 임민정(2018). “페미니즘 테마 패션 컬렉션에 표현된 젠더 플루이드 이미지”, *한국의상디자인학회*, 20(3), pp.63-78.
- 장지혜(2015).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룩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1(1), pp.505-519.

- 전여선, 김영삼(2012). “반사회적 의식이 반영된 시대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학회*, 62(6), pp. 112-126.
- 정수진, 임은혁, 서승희(2018).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으로 본 남성복의 젠더리스 스타일”, *한국의류학회*, 42(4). pp.626-638.
- 정세희, 양숙희(2004). “드래퀸(Drag Queen)과 드래킹(Drag King)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학회*, 54(7), pp.135-150..
- 최경희(2017). “크리스찬 디올 오뜨 꾸뛰르의 대중화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 *한국기초조형학회*, 18(3), pp.373-394.
- 최나리, 우주형(2007).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성별에 따른 젠더 이미지 표현”, *한국패션학회*, 57(2), pp.143-154.
- 최해주, 안은경(2003).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패션학회*, 53(2), pp.137-151.
- 한순영, 김경희(2012).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양성성에 관한 디자인 연구”, *한국니트디자인학회*, 10(3), pp.11-21.

<해외 문헌>

- Luna, Camilla Pinto(2019), “Genderless Fashion: A (Still) Binary Market“, *Latin American Business Review*, Vol. 20 Issue 3, 20(3), p.269-264.
- Oetojo, J. O(2016). Consumer Perception on Gender Equality and Designer Performance for Genderless Fashion Brands“ *Pertanika Journal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24(-), p137-146.

<인터넷 자료>

“日 도쿄 지자체 2곳, 여중생에 ‘젠더리스 바지교복’ 허용”, <매일경제>, 2019.01.03.,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1/65266/>>, (접속일: 2020.06.20.)

“향에는 성별이 없다. 젠더리스 향수 인기”, <중앙일보>, 2020.02.26., <<https://news.joins.com/article/23704129>>, (접속일: 2020.06.20.)

“향수, 화장품도 남녀 공용으로 뷰티업계 젠더리스 제품 각광”, <아시아 투데이> 2018.08.02.,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801010000244>> (접속일:2020.06.20.)

“Decoding Genderless Fashion”, <WWD>, 2020.01.08., (접속일:2020.11.24)

ABSTRACT

Color Images Scal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Fashion Expression

Choi Ji Eun

Department of Cloth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appearance of the Generation Z represents desire for changes of the times based on diversity. Gen Z places importance on the diversity of individuals by accepting differences and recognizing others and rejects outdated conventions or uniform norms, accelerating the breakdown of gender's social boundaries. Riding this social and cultural flow, the trans-gender phenomenon of gender is emerging. It is happening in various forms in the field of fashion, as well. It is time to take an approach of analyzing the design factors of genderless fashio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factors of genderless fashion design and thus objectify the categories of various neutral images that were colorful and had boundaries used in an ambiguous manner. It set out to expand the

approach scope of fashion design study and objectify color image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expressions, proposing classification methods for neutral images.

Both literature study and color image analysis were employed in the study.

First, literature study examined colors of neutral images in the history of fashion in previous studies, books published home and abroad, regular periodicals, and portal sites and applied them to the categorization of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expressions. This work built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empirical research to identify genderless colors. Then, the technique of color image analysis was used based on collection and color analysis programs. Collections of total 20 seasons from 2011 S/S to 2020 F/W were analyzed with 120 collections selected. Based on the collections, the Korea Standard Color Analysis(KSCA) program was used to identify 480 col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expressions. These colors were compared with colors of neutral images to analyze neutral color images in fashion in the category and domai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expressions were categorized into compromise, androgyny, enjoyment, sensuality, exaggeration, and historicity. Compromise was designed as a new design based on juxtaposition through combination and contrast through exchanges between two different areas that coordinated items of contrasting images. Androgyny meant third gender design displayed through the fusion of two genders transcending gender distinction itself beyond the limitations of gender. Enjoyment showed an anti-classical tendency whose essence was in a fun element

and, at the same time, signified the release of pleasure of deviation, emotion of freedom, and impulse of play as well as liberation from gender roles. Sensuality represented images of eroticism sexually objectified by narcissism and body images of free, independent, and strong women as sexual subjects. Exaggeration was defined as the subjective and creative recreation of shapes based on the distortion and excessive expression of the human body different from its reality through expansion, reduction, and alteration. Historicity involved the application and reproduction of designs blending traces of the past with new modern values based on reactionism or the recreation of such designs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times.

Secondly, the study analyzed col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expressions and found that dark-tone purple blue(PB) of low brightness and low chroma and grey-tone PB of high brightness and low chroma were used for compromise in genderless expressions. The color images of compromise were found in such areas as "modern," "splendid," "subdued," "natural," and "gentle" with a compromise between contrasting images. Neutral images similar to compromise included mannish, military, cross-sexual and Emo Boy.

Neutral colors(N) recorded the highest frequency in androgyny of genderless expressions, which is a result of expressing coexistence and ambiguity between male and female. Calm color images of beige and brown were used in the family of warm colors. In the family of cold colors, androgyny with the addition of masculinity was expressed in purple blue(PB), purple(P), and blue(B). The overall color images were "modern," "gentle," and "subdued." Neutral images similar to androgyny included

military, hippie, and androgynous.

Enjoyment in genderless expressions was in dark tones of low brightness and low chroma and strong tones of middle brightness and high chroma, conveying a big rhythmic sense in colors. Its color images included "modern," "subdued," "lighthearted," "mild," and "splendid." There was an even distribution of color categories on its image scale, which suggests that it was an expressive characteristic of distinct individuality. Similar neutral images to playfulness included boyish, hippie, unisex, punk, metrosexual, contrasexual, and M-ness.

Sensuality in genderless expressions was mainly expressed with neutral(N) and warm colors. The frequency of clothes was high which were made of materials showing the skin as it was. Its color images were "modern," "graceful," "subdued," and "natural." Its similar neutral images included mannish and androgynous, which suggests that women were recognized as independent sexual subjects rather than sex appeals and expressed in graceful and luxurious images.

In exaggeration of genderless expressions, base colors of low chroma were used along with red(R), purple blue(PB) and red purple(RP) of middle brightness and middle and high chroma to maximize and exaggerate the forms of clothes. Its color images were "modern," "elegant," and "subdued" to highlight dynamic colors derived from exaggeration and, at the same time, mitigate exaggerated forms with subdued color images. Similar neutral images to exaggeration included boyish, unisex, punk, metrosexual, contrasexual, Emo Boy, and M-ness.

In general expressions, historicity represented antique and imposing

images in strong-tone gold colors and past-oriented calm and formal images in warm colors. Cold colors were also used to increase the chroma of warm colors through their complementary contrast and emphasize the rising sense of temperature and the aesthetic effects of historicity. The color images of historicity included "gentle," "modern" and "subdued" in stern, static, and soft areas. Its similar neutral image was mannish.

Finally, the study extracted symbolic colors representing genderless expressions in fashion and presented them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their color images. This color image scal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fashion expressions can serve various roles.

In today's situation in which the importance of genderless design is gradually expanding in the gender-neutral era when gender boundaries are collapsing, the present study proposes a scale of color images and expects its utilization in the design field. In the future, ongoing analysis of genderless fashion designs will help to reinforc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neutral colors.